



# 2011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Arts in Education and Creativity

예술교육으로 창의교육의 변화를 이끌다  
Leading Change in Education through AIE and Creativity

2011. 08. 12. Friday 09:30 - 17:00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



[www.sisac.or.kr](http://www.sisac.or.kr)

주최 | 서울문화재단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SISAC

□ 목 차

I. SISAC 개요 및 프로그램 안내 .....	3
II. 환영사 · 축사 .....	6
III. 연사소개 · 사회자소개 .....	14
IV. 연사 발제 원고 .....	19
1. 데이비드 한센 .....	19
2. 폴 콜라드 .....	35
3. 문용린 .....	45
4. 앤 패트슨 .....	61
5. 아이리양 추아 .....	77
6. 안호상 .....	89
7. 데이시아 워싱턴 .....	109
8. 김선 .....	125

SISAC

## 2011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Arts in education and Creativity:

SISAC 2011

### □ 심포지엄 개요

- ◆ 주 제: 예술교육으로 창의교육의 변화를 이끌다  
“Leading Change in Education through Arts in Education and Creativity”
- ◆ 일 시: 2011. 08. 12. (금) 09:30 ~ 17:00
-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 주 최: 서울문화재단
- ◆ 후 원: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 목 적
  - 창의예술교육의 철학적, 정책적 접근과 이해
  - 교육과 예술교육, 그리고 창의성과의 관계 및 방향성 조망
  - 국내외 다양한 창의예술교육 사례 공유
  - 예술교육 행정가 및 실천가들 간의 실질적 네트워크 기회 제공

## □ 프로그램

09:30 - 10:00 (30')	<b>오프닝</b> 환영사 / 축사
10:00 - 10:40 (40')	<b>기조발제</b> “세계 시민과 창의성” 데이비드 한센 / 미국 콜롬비아 사범대학 교수
10:40 - 10:50 (10')	휴식
10:50 - 11:20 (30')	<b>주제발표 1</b> “창의성 구현, 이론에서 실제로” 폴 콜라드 / 영국 CCE 대표
11:20 - 11:40 (20')	<b>주제발표 2</b> “창의성 교육의 도전과 과제” 문용린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11:40 - 11:50 (10')	휴식
11:50 - 12:30 (40')	토론
13:30 - 14:00 (30')	<b>기조발제</b> “LTTA, 캐나다의 삶과 지역사회를 바꾸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앤 패트슨 / 캐나다 앙립음악학교 프로그램 연구개발 디렉터
14:00 - 14:10 (10')	질의응답
14:10 - 14:40 (30')	<b>사례발표 1</b> “싱가포르, 지역과 학교변화를 위한 예술교육의 지원” 아이리양 추아 / 싱가포르 예술위원회 예술과 지역부서 총괄 디렉터
14:40 - 14:50 (10')	질의응답
14:50 - 15:10 (20')	휴식
15:10 - 15:40 (30')	<b>사례발표 2</b> “예술교육과 서울의 변화” 안호상 /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15:40 - 16:10 (30')	<b>사례발표 3</b> “미국 뉴욕 링컨센터 예술교육원 & HSAII(예술, 상상력, 탐구 고등학교)” 데이시아 워싱턴 / 미국 링컨센터 예술교육원 전임 TA
16:10 - 16:40 (30')	<b>사례발표 4</b> “예술교육을 통한 사회적 관계 맺기” 김선 / 사다리연극놀이아카데미 교장
16:40 - 17:00 (20')	질의응답 및 마무리

□ Program

<b>09:30 - 10:00 (30')</b>	<b>Opening</b> Welcoming Address / Congratulatory Address
<b>10:00 - 10:40 (40')</b>	<b>Keynote Address</b> "Cosmopolitanism and Creativity in the World Today" David T. Hansen / Professor at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b>10:40 - 10:50 (10')</b>	<b>Coffee Break</b>
<b>10:50 - 11:20 (30')</b>	<b>Plenary Session 1</b> "Delivering Creativity: Turning Theory into Practice" Paul Collard / Chief Executive of CCE
<b>11:20 - 11:40 (20')</b>	<b>Plenary Session 2</b> "The Challenges and Tasks of Creativity Education in Korea" Yonglin Moon /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11:40 - 11:50 (10')</b>	<b>Coffee Break</b>
<b>11:50 - 12:30 (40')</b>	<b>Discussion Session</b>
<b>13:30 - 14:00 (30')</b>	<b>Keynote Address</b> "Learning Through the Arts: An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 Transforming Lives and Communities Globally" Ann Patteson / Director of Academic Research, Royal Conservatory of Music
<b>14:00 - 14:10 (10')</b>	<b>Question and Answer Session</b>
<b>14:10 - 14:40 (30')</b>	<b>Case Presentation 1</b> "National Efforts for Implementing Arts in Education" Ai Liang Chua / Director of Arts and Community,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b>14:40 - 14:50 (10')</b>	<b>Question and Answer Session</b>
<b>14:50 - 15:10 (20')</b>	<b>Coffee Break</b>
<b>15:10 - 15:40 (30')</b>	<b>Case Presentation 2</b> "Changes of Seoul by Creativity and Arts in Education" Hosang Ahn / CEO of Seoul Foundation for Art and Culture
<b>15:40 - 16:10 (30')</b>	<b>Case Presentation 3</b> "LCI & HSAII, Imagination Learning for Creativity" Dacia Washington / TA of Lincoln Center Institute, Adjunct Professor at NYU
<b>16:10 - 16:40 (30')</b>	<b>Case Presentation 4</b> "Building Partnership with Drama" Sun Kim / Principal of Sadari Creative Drama Academy
<b>16:40 - 17:00 (20')</b>	<b>Closing Address</b>

## □ 환 영 사



오세훈 / 서울특별시장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2011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에 참가하신 국내·외 예술교육 전문가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울은 수도로서의 600년 역사와 천혜의 자연 환경, 최첨단 ICT가 어우러진 역동적이고 개성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지난 5년간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2010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로 선정되며 문화와 디자인이 꽃피우는 명실상부한 창의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2011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창의성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는 “미래 사회 도시와 국가의 발전은 새로운 능력을 가진 인재의 확보에 달려있으며, 그러한 능력의 바탕이 곧 창의성”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창의시정을 추진해온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창의시정’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들은 모든 행정에 대해 시민입장에서 생각하고 계획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의’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제안한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면서 이제 서울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창의성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얻는 감수성과 상상력은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관점과 독창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문화재단을



주축으로 세대별·대상별·지역별 맞춤형 창의예술교육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기타 어린이를 위한 ‘음악영재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들이 문화 예술 향유능력을 가지고 창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교육계, 예술계, 행정기관 관계자들이 어렵게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이번 심포지엄에서 예술교육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창의성과 예술교육의 미래와 실천방안에 대한 활발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훈

SISA

## □ Welcoming Remark

Distinguished guests, good morning.

I am Se-hoon Oh, the Mayor of Seoul. I extend my warm welcome to all participants and the leaders of arts in education from home and abroad to the 2011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Arts in Education and Creativity.

Seoul is the capital city of Korea and is blessed with a wonderful natural environment. While boasting a 600-year history, it is also a dynamic city of cutting-edge ICT. In the past five years, we have strived to make Seoul a truly attractive city with culture and design. As a result, Seoul was named the World Design Capital 2010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and became a UNESCO City of Design in 2010. These achievements gave Seoul precious opportunities to make a new leap forward to become a truly creative city. I believe that it is very meaningful to hold the 2011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Arts in Education and Creativity at this momentous time.

Today, creativity is flowing through the world. Daniel Pink, a world-renowned futurist, said “the development of societies, cities and countries in the future will be determined by creative individuals who have unique abilities, and the basis of such abilities is creativity.”

This is why Seoul has implemented what is called “Creative Governance.” For the past five years, public officials of the City of Seoul have pursued this Creative Governance, putting themselves in the shoes of the citizen. In addition, many projects based on creativity and imagination were promoted, transforming Seoul into a city where people live in happiness.

I believe that culture and the arts are the most important sources for creativity, because emotion and imagination which can be developed through culture and the arts will help to develop new perspectives on the world as well as problem-solving skills.

To this end, Seoul is trying hard to let citizens enjoy culture and the arts whenever and wherever they want and to make culture and art education accessible to every citizen. In particular,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is actively committed to creativity and arts in education tailored for all ages, population groups and regions. For instance, various projects such as the Music Academy for the gifted children and the Arts school for senior citizens are promoted. Seoul is committed to continuing its endeavors to

support and expand such educational services for the arts so that all citizens of Seoul will learn how to enjoy the cultural arts and lead creative lives.

I hope that the leaders in education, arts and administration who have participated despite their busy schedules will find this symposium an excellent opportunity to find practical solutions to changing schools and communities through arts in education and have active and in-depth discussions on the future directions of creativity and arts in education. Thank you.

SISAC

## □ 축 사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2011년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시기에 “예술교육으로 창의교육의 변화를 이끈다”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마련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과거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는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력, 도전정신, 상상력 등을 융합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창의적인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개인의 행복이나 사회의 발전 모두 창의성에 기반을 두게 될 것 입니다.

교육은 고정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춰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 활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이 중요해지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우리 사회의 교육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공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교육과정 개정과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비롯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창의교육 구현에 예술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야말로 감수성과 창의적 사고를 길러내는 가장 풍부한 자양분을 지니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예술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생활 속의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창의문화도시를 지향하면서 혁신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서울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시민의 창의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학교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어우러질 때, 창의적 예술교육을 통해 우리의 교육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교단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과 예술교육 전문가들이 창의교육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가 활짝 열리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이 창의적 예술교육을 통한 교육과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통찰과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국문

## □ Congratulatory Remark

Ladies and gentlemen, good morning.

I am Ju-ho Lee,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ose responsible for on the opening of the 2011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Arts in Education and Creativity.

I believe that it is very meaningful to hold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under the theme of "Leading Change in Education through AIE and Creativity" in this era where fostering creative talent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In the past, people just studied hard and worked hard to achieve success. However, in the future, to become a so-called "creative expert," we will need to combine creativity, a challenging spirit and imagination together for a variety of different areas and combine them in our own ways. Personal happiness as well as social development will be built on creativity.

I believe that the role of education should go beyond the mere delivery of common traditional knowledge. Education should play a dynamic role that changes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Our education should follow the development of a trend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reativity, and our education needs a new paradigm.

To this end,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policies so that public education can promote creativity education through innovation, and the government has made an effort to upgrade the overall school curriculum and vitalize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I expect that the arts in education will play a key role in promoting creativity education, because the cultural arts are fertile soil for developing sensibility and creative thinking.

Realizing this value and importance of the arts in education, related government bodies --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are actively cooperating together to implement measures to promote the arts in education.

To strengthen the arts in education, we are placing art instructors in schools and supporting student orchestra programs in several schools which are located in communities that have almost no cultural arts infrastructure. We are also working with communities to bring arts in education into life.

I was informed that Seoul has also developed and implemented innovative policies under the goal of transforming Seoul into a creative, cultural city. I have learned that Seoul is particularly focused on working with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to promote integral, and aesthetic education programs in order to develop creativity among its citizens.

I strongly believe that when the government bodies offer their continued support and the schools take a deep interest, the creative arts in education can change our education.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ask teaching artists and teachers working with students in school to strive and take action together for the sake of creativity education, and ultimately, for a better future for Korea.

I sincerely hope that today's symposium will provide valuable insights and wisdom to participants who are using the creative arts in education to pursue educational and social change.

Once again, I congratulate on the opening of the 2011 SISAC and thank all the distinguished guests for honoring us with your presence.

I wish you all the happiness and success. Thank you.

## □ 1부 사회자(Moderator) 및 연사(Speaker) 소개

### 1부 사회



사 회  
곽덕주  
**Deokjoo Kwak**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전문위원
-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Member of Advisory Committee for Arts in Education,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1부 연사



기조발제  
데이비드 한센  
**David T. Hansen**

- 現 콜롬비아 사범대학 교육철학과 교수
- 現 교육철학학회 북미지역 회장
- 존 듀이학회 전임회장
- Professor at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President of the Philosophy of Education Society [North America]
- Former President of John Dewey Society



주제발표 1  
폴 콜라드  
**Paul Collard**

- 現 영국 CCE(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 창의성, 문화와 교육) 대표
- Creative Partnership, Find your Talent 프로젝트 운영 책임
- 영국영화연구소 부국장 역임
- 영국현대미술관 총괄매니저 역임
- Chief Executive of 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
- Operator of Creative Partnership and Find Your Talent



주제발표 2  
문용린  
**Yonglin Moon**

- 現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現 한국교육학회 회장
- 제 40대 교육부 장관 역임
- 미네소타대학 교환교수 역임
-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Former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President of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 2부 사회자(Moderator) 및 연사(Speaker) 소개

### 2부 사회



사 회  
이선철  
Sunchul Lee

- (주)감자꽃스튜디오 대표이사
-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문화예술행정전공) 겸임교수
- CEO of Potato Flower Studio
- Adjunct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Policy (Arts Administr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2부 연사



기조발제  
앤 패트슨  
Ann Patteson

- 現 캐나다 왕립음악원(RCM) LTTA (Learning Through The Arts) 프로그램 연구개발 디렉터
- 現 왕립음악원(RCM) 학술연구조직 대표
- 예술교육학 박사, 현직 음악가
- Director of Academic Research of Royal Conservatory of Music
- Assistant Professor at Queen's University



사례발표 1  
아이리앙 추아  
Ai Liang Chua

- 現 싱가포르 예술위원회 (National Arts Council) 예술과 지역부서 총괄 디렉터
- 現 유네스코 싱가포르위원회 예술교육 자문위원
- Director of Arts and Community, National Arts Council of Singapore



사례발표 2  
안호상  
Hosang Ahn

- 現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 現 Live Singapore 자문위원
-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겸 이사
- CEO of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Member of Advisory Group, Live Singapore
- Member of Organizing Committee, 2010 UNESCO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사례발표 3  
데이시아 워싱턴  
Dacia Washington

- 現 미국 링컨센터 예술교육원 전임 TA(Teaching Artist)
- 現 뉴욕대학교 겸임교수
- 현직 연극배우
- Theater Teaching Artist at Lincoln Center Institute
- Adjunct Professor at New York University



사례발표 4  
김 선  
Sun Kim

- 現 사다리 연극놀이 아카데미 교장
- ASSITEJI 사무국장 역임
- Principal of SADARI Creative Drama Academy
- Former Secretary General of ASSITEJI Korea

SISAC

SISAC

**데이비드 한센**  
**David T. Hansen**

세계 시민과 창의성  
Cosmopolitanism and Creativity in the World Today

SISAC

## “Cosmopolitanism and Creativity in the world Today”

David T. Hansen / Professor at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USA

### Introduction

It is a pleasure to participate in today's symposium and I thank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for their cordial invitation.

Arts education has been important since it first arose in cultures around the world. Arts education brings children, youth, and adults into the many joys and mysteries of creation. As they learn to paint, to sculpt, to dance, to compose poetry, to sing and play musical instruments, human beings discover important parts of themselves. Their sense of beauty expands, and their imagination deepens. According to many thinkers who care about the arts, including my colleague Professor Maxine Greene, arts education can also have a moral influence on young and old alike. As it enriches their aesthetic sensibility, art can lead them to appreciate people and life in new ways. It can awaken them to the reality of how different people are, and that learning to truly respect others is itself a creative, artful activity.

In my research in recent years, I have been studying the idea of cosmopolitanism. I believe this idea helps us appreciate the importance of arts education in a fresh way. It helps us understand why educating people to develop their creative capacities is so important in light of our fast-changing, often challenging contemporary world. Many people today worry about the speed of global change. They worry whether, as individuals, they can do anything to render our societies and communities more humane and caring about all the things that matter to us: friendship, loving relations with family, respect between different people and cultures, care for the environment, and more. Through a cosmopolitan perspective, I believe we can see why arts education can play a valuable role in educating people to be active participants in change, rather than passive spectators who do not see what difference they can make in human affairs.

What is cosmopolitanism? Very briefly, a cosmopolitan framework has several core assumptions: (1) that people can learn to develop reflective openness to new people and ideas while retaining reflective loyalty to current norms and local commitments, and (2) that people can learn to hold and express their values in new ways even while retaining the substance of those values. I believe arts education can help people –

educators and students alike – to cultivate this learning. It can help educators and students not just to tolerate differences between themselves and others, significant as that accomplishment is, but to learn from one another. Arts education can help them understand how vital it is to see themselves as creative people who can play a role in improving our world.

In this lecture I will try to show you what arts education looks like when viewed through a cosmopolitan perspective. This education can generate countless opportunities for learning what it means to be open reflectively to new ideas and people, while remaining loyal reflectively to local values and ideals. While such learning can happen, in any subject, I believe that experiences with art offer special possibilities for what I would like to call “cosmopolitan creativity.”

### **Inside a Classroom: Developing a Cosmopolitan Sensibility**

Consider a music teacher and music students in a local school anywhere in the world. [This example is a composite based on what I have witnessed in a variety of classrooms] The students enjoy listening to music from all round the globe. At one point, several are so taken with the Spanish flamenco strains in a particular track that they want to incorporate its sound in their own musical compositions. If asked why, they might simply reply, “Because we like it!” The teacher endorses their decision but at the same time poses a range of questions they must slowly but steadily consider, some of which are technical, and others philosophical. What is the history of flamenco as a form of music? What kind of instruments does it deploy and what are their histories? Of what materials are these instruments made? Who makes them? With respect to the origins of flamenco, to what in human life or in nature might it be a response? In what ways – call them ludic, if you will – do traditions of flamenco respond to particular human joys, sufferings, values, aspirations, and the like? How do those responses, in turn, help us think about how we express our own joys, sufferings, concerns, and hopes through music and perhaps art in general? Might the responses embedded in flamenco tradition suggest ways of re-conceiving or even reconstituting our own cares and desires?

In short, through questioning, coaching, suggesting resources, and the like, the teacher helps students move from what could become a merely passing fancy, or a consumer-like sampling, to a participatory inquiry in which meanings and outlooks are explicitly at play. The teacher does not, to be sure, pose all these questions at once. That approach would overwhelm students and doubtless squelch their curiosity.

But the teacher’s questions are crucial, because education sometimes necessitates discomfort, unsettlement, and friction. In the age of the internet it is all too easy to

simply “click again,” literally or mentally speaking, when one is pushed to think in a new way. The Roman Emperor and Stoic philosopher, Marcus Aurelius, contended that: “The impediment to action advances action. hat stands in the way becomes the way.” Thus the teacher speaks, listens, waits, and acts as if the students’ initial spark of delight can, if nurtured and prodded with care, ascend into a higher, richer, and more enduring mode of aesthetic, moral and intellectual meaningfulness. Put another way, the teacher conducts her- or himself as if the musical traditions of flamenco are not only emblematic of aspects of Spanish culture, but are also a world inheritance bequeathed to persons everywhere – including in that teacher’s local classroom far removed in space and time from flamenco’s origins.

Moreover, imagine for a moment a whole series of encounters like the one described here that this teacher helps make possible for students. This sustained engagement with an arts curriculum makes it possible for students to re-imagine and re-embrace the meaning of being “at home” in the world – or to come to grips with this meaning for the very first time. That meaning has to do with responding, participating, and creating.

The students in the music classroom have arrived at a crossroads where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intersects with a significant cultural inheritance. They share that crossroads with their teacher and with one another, each of whom brings to it a distinctive aesthetic and reflective sensibility. The crossroads constitutes a scene of dynamic interaction.

The students enter the crossroads as they are: they have been intrigued by a piece of music. But they travel someplace else: they have incorporated into their orientations a response to a human inheritance that has passed through the world. This transformation may be modest when compared with the totality of their evolving humanity, but it is noteworthy not only in its technical and musical senses – the students and teacher now know more about flamenco than they did before – but in the accompanying philosophical, moral and ethical senses of their experience. The students still live in their local world, but they are no longer merely of it. They have the same names and are the same ages but their orientations are now different. They have had an opportunity to cultivate a deeper intimation of what it means to take the world seriously, to learn from the reality of its offerings, and to appreciate it aesthetically and morally.

Furthermore, what these students have learned, and what they have become as persons with respect to their evolving orientations, will affect the local world in which they move because they will carry those orientations everywhere they go. This claim reflects the fact that in engaging the philosophies of life and of art embedded in flamenco they did not abandon their own musical traditions and accompanying values, even if these were

subjected to influence. Their learning was not a matter of all or nothing. It was a transaction between the new and the familiar such that both have been infused with new dynamism. Thus their learning will also affect the ever-changing shape and substance of the world. They have expanded, deepened, and enriched the human tapestry in ways that matter, however infinitesimal all this may seem. As they consolidate their experience through subsequent encounters, their ever-evolving achievement can itself contribute, in microcosm, to a potential inheritance for others. All of this is what an arts education can do if we learn to “see” its potential; and a cosmopolitan perspective helps us learn to identify this potential.

The teacher does not regard flamenco as a bounded inheritance whose significance is already contained or exhausted within a particular frame of meaning. The teacher does not presume that to learn something authentic from flamenco traditions is reserved only for those who inhabit its original settings. However, the teacher does not pretend that students can experience the same meaning as its creators, much less reside in their outlook. There remains a sacred quality to their original, artful creation; it was born of distinctive sufferings, joys, and yearnings. But this sense of aesthetic and moral reverence, which mirrors cosmopolitan reverence for the sheer fact of the world, does not convert creations into possessions that cannot be shared with others. The idea of a cosmopolitan arts education encourages a sense of hospitality. People can participate in and welcome other traditions into their lives. They can come to understand aspects of how people far and wide have responded to being in the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cosmopolitanism, it is important to engage students with philosophical diversity such as that which resides in different musical traditions. Figuratively speaking, the teacher here is helping students understand not only what it means to study flamenco, but to imagine it as “speaking to them” with questions about who they are and what they wish to become. The teacher is assisting students to come to grips with what it means to be a human being in a changing world, as well as how they themselves can help constitute their humanity. The teacher is encouraging students to perceive why all curriculum represents, in principle, their inheritance, to which in due course they can contribute even if it may be hard to identify and assess their eventual imprint.

Moreover, they are all learning – teacher and students alike – more about what it means to be a reflective custodian of inheritances of meaning, of purposiveness, and of responsiveness to the world. They are cultivating, at least in germ, a posture of what Hannah Arendt described as care for the world. That care begins with the local, in this case their classroom. In discerning the reality of how each of them responds to the music



curriculum, they move closer and closer apart – that is, they come to see each other’s individuality and distinctiveness more meaningfully. In realizing the depth and meaning in a tradition new to them, they move further and further together in their learning. At the same time, they experience the value and the wondrousness in acting as creative people. They learn, construct, and put forward cultural resources for themselves and others. They see the value in recognizing flamenco tradition as more than “just another nice sound” but as educational and as potentially edifying in its distinctive response to the experience of being human. This emerging, dynamic sensibility can help position them to participate that much more actively and constructively in the affairs of life into which they enter.

Human beings cannot turn the tides of the sea, as Brian Ferry and Roxy Music beautifully express in their song, “More Than This.” But whether as children or as adults, they do not need to drift on the tides of chance. They can draw on their own latent aesthetic and intellectual capacity, and thereby turn their energies to constructive purpose. As John Dewey posed the matter at the conclusion of his well-known book, *Democracy and Education*: “Interest in learning from all the contacts of life is the essential moral interest.” This interest is moral, in part, because it substantiates concern, responsibility, and creative guardianship of creativity itself at whatever level it occurs.

### **Artful Creativity Across the Curriculum**

I have tried to show you something about “cosmopolitan creativity” in arts education. This creativity calls to mind Ralph Waldo Emerson’s metaphorical idea of “drawing a new circle” from moment to moment, and from contact to contact. To learn from another person, event, or idea implies transforming one’s circle of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This change is something different than an expansion of the circle. It is not merely quantitative; it will lead to more than the acquisition of new information or facts. It will be qualitative, however modest in comparison with the totality of the person’s outlook. Consider the poet who decides after a long meditation to delete a stanza, or the sculptor who prunes away what had hitherto seemed essential, or the music composer who finally eliminates a passage before signing the work. These are not cases of merely subtracting material in a brute manner. They involve genuine transformation in both the person – whose sense of craft and of judgment has been touched by the experience – and the object at hand as it enters culture.

Put another way, the consequences of a person’s contacts with the world include losses rather than solely gains or measurable increases. To develop a new understanding can mean losing a previous one. To broaden an horizon of concern implies losing a previously narrower one. To conceive new perspectives destabilize and may dissolve

prior views. What the poet Anne Carson calls “decreation” constitutes the other side of creativity. As mentioned in the previous paragraph, the need to dismantle is as vital, at moments, as building.

These changes do not imply that people must reject the old out of hand. A cosmopolitan orientation involves remembering the roads abandoned or not taken, and re-configuring them through time. The poet Robert Frost writes: “All reasoning is a circle. At any rate, all learning is a circle. We learn A the better to learn B the better to learn C the better to learn D the better to learn A. All we get of A is enough to start us on the way to take it up later again. We should circulate among the facts not progress through them leaving some forever behind.” Frost’s insight pertains as much to aesthetic and moral learning as it does to any other form of insight. These modes of learning are neither linear nor cumulative in a direct manner. They involve circulating back and forth between previous experience and point of view, and that which seems called for by current circumstance. To remember how one saw people as a child, for example, or at any earlier stage of life, can suddenly shed valuable light on what is at stake in the present moment.

This artful process coheres with picturing a cosmopolitan-minded education as a continuous process of drawing a new circle. In keeping with the symposium theme, in this lecture I have offered an example of such an education in an arts classroom.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lessons of art can be learned across all the subjects of school. A good science teacher grasps the profound beauty of nature and the miracle of life itself. That attitude, when translated into his or her pedagogy, can influence students’ own evolving aesthetic sensibilities. As a result, a student who at one time did not understand or appreciate art may suddenly see why art is itself a kind of miracle, a truly distinctive way in which human beings everywhere have acknowledged the fact of life’s beauty, confusion, pain, joy, and hope.

At the same time, a good arts teacher understand why serious-minded art-making involves focus, method, systematic thought and experiment, a capacity to deal with doubt and uncertainty, and patience. This orientation, when infused into her or his pedagogy, can have an impact on students’ appreciation for disciplined inquiry. As a consequence, a student who at one time did not like science and found it alien may suddenly see that science is not merely a body of facts but a living, dynamic engagement with the world – a wondrous, experimental, and open-ended adventure of learning.

From the perspective of cosmopolitanism, the spirit of art and creativity can come to permeate the entire life of a school or indeed any institution set aside for formal learning. And this means that the arts should be at the very heart of the process. They need to

share “center stage,” as people in the theater put it, alongside other subjects. In a rapidly changing, demanding world like ours, there has never been a greater need for arts education and the beautiful, humane learning it can make possible. I hope this symposium today will revitalize our imagination and renew our commitment to the values of arts education that I have sought to illustrate in this lecture. Thank you very much.

### Bibliography

Ambrosio, J. (2008). Writing the self: Ethical self-formation and the undefined work of freedom. *Educational Theory* 58(3),251-267.

Bouriau, C. (2007). *Qu'est-ce quel'Humanisme?* [What is Humanism?] (Paris:J.Vrin).

Day, C. & Gu, Q. (2010). *The New Lives of Teachers*(London: Routledge).

De Marzio, D. M. (2007b). The care of the self: Alcibiades I, Socratic teaching and ethics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187(3),103-127.

Domanski, J. (1996). *La Philosophie, Théorie ou Manière de Vivre? Les Controverses del'Antiquité à la Renaissance* [Philosophy as Theory or as a Way of Life? The Controversies from Antiquity through the Renaissance] (Paris: Éditions de Cerf).

Foucault, M. (1994). The ethic of care for the self as a practice of freedom. In J. Bernauer & D. Rasmussen (Eds.), *The Final Foucault*, pp.1-20(Cambridge: MITPress).

Foucault, M. (2005). *The Hermeneutics of the Subject*, ed. F. Gros, trans. G. Burchell (New York: Picador).

Hadot, P. (1995). *Philosophy as a Way of Life*, ed. A. I. Davidson, trans. M. Chase (Oxford: Blackwell).

Hansen, D. T. (In press 2011). *The Teacher and the World: A Study of Cosmopolitanism as Education* (London: Routledge).

Hiebert, D. (2002). Cosmopolitanism at the local level: The development of transnational neighborhoods. In S. Vertovec & R. Cohen (Eds.), *Conceiving Cosmopolitanism: Theory, Context, and Practice*, pp. 209-22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wok-bun, C. (2005). *Chinese Identities, Ethnicity and Cosmopolitanism* (London: Routledge).

Mitchell, K. and Parker, W. C. (2008). *I pledge allegiance to . . . Flexible citizenship and shifting scales of belong*. Teachers College Press, 110 (4).

Nehamas, A. (1998). *The Art of Living: Socratic Reflections from Plato to Foucaul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Nussbaum, M. C. (1994). *The Therapy of Desire: Theory and Practice in Hellenistic Eth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Osler, A. & Starkey, H. (2003). *Learning for cosmopolitan citizenship: Theoretical*

debates and young people's experiences. *Educational Review* 55 (3), 243-254.

Papastergiades, N. (2007). Glimpses of cosmopolitanism in the hospitality of art.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0 (1), 139-152.

Shusterman, R. (1997). *Practicing Philosophy: Pragmatism and the Philosophical Life* (New York: Routledge).

Szerszynski, B. & Urry, J. (2002). Cultures of cosmopolitanism. *The Sociological Review* 40, 461-481.

Wardle, H. (2000). *An Ethnography of Cosmopolitanism in Kingston, Jamaica* (Lampeter: Edwin Mellen).

Werbner, P. (1999). Global pathways: Working class cosmopolitans and the creation of transnational ethnic worlds. *Social Anthropology* 7 (1), 17-35.

SISAAC

## “세계 시민과 창의성”

데이비드 한센 / 콜롬비아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철학과 교수

### 머리말

오늘 심포지엄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서울문화재단에 깊이 감사합니다.

처음 이 세상에 문화가 나타난 이래로 예술교육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술교육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에게 많은 기쁨과 창조의 신비를 가져다줍니다. 그림을 배우고, 조각하고, 춤추고, 시를 쓰고,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신 안에 중요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확장되고 상상력이 깊어집니다. 저의 동료 학자인 맥신 그린 교수를 포함하여 예술에 대해 연구했던 많은 철학자들에 따르면 예술교육은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도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술은 미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사람들과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예술은 사람들 사이의 다름의 실재를 깨닫게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그 자체로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입니다.

최근 저는 세계시민주의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이해하는데 세계시민주의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하고 종종 어려운 과제를 던지는 현대사회에서 왜 창조적 역량을 발달시키는 교육이 그토록 중요한지를 이해하는데 세계시민주의가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급속한 전 세계적 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와 지역공동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우정, 가족 간의 사랑, 서로 다른 사람이나 문화 사이의 존중, 환경 보호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인간적인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과연 개인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걱정합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인간사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소극적인 방관자보다는 적극적인 변화에의 참여자가 되도록 교육하는데 있어서 저는 예술교육이 어떻게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세계시민주의 관점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시민주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간략히 말해, 세계시민주의는 몇 가지 핵심적인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현존하는 규범과 지역사회의 생활양식에 대해 성찰적 지지의 태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과 생각들에 대해 열린 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그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술교육을 통해 교사 학생 모두 다같이, 이와 같은 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교육을 통해 교육자와 학생들은 단지 다름을 용인하도록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중요한 성취이지만 서로 다름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은 예술교육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들 스스로가 창조적 인간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예술교육이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려 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지역적 가치와 이상에 대해 성찰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새로운 생각이나 사람들에 대해 성찰적으로 열린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배움이 일어나는 동안, 예술적 경험은 어떤 교과 교육에서라도 제가 “세계시민주의적 창조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위한 특별한 가능성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실 안에서: 세계시민주의적 감수성 계발하기

세계 어딘가의 한 지역사회 학교의 음악교사와 학생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예는 제가 관찰했던 다양한 수업에 기초하여 구성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전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듣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플라멩코 선율에 끌려 자신들의 곡을 작곡하는데 그 선율을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 단순히 “좋으니까요”라고 답할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결정을 장려하면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아야 할 일련의 질문들을 던집니다. 몇몇 질문은 음악적 기술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질문들은 철학적인 것들일 것입니다. 플라멩코 음악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악기가 사용되고 그 악기의 역사는? 악기는 어떤 물질로 만들어지나? 누가 만드나? 플라멩코의 기원과 관련하여 볼 때 플라멩코는 인간 삶과 특성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유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플라멩코의 전통은 인간의 기쁨, 아픔, 가치, 열망과 같은 것들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반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음악과 예술을 통해 우리의 기쁨, 아픔, 관심, 소망을 표현할 방법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플라멩코 전통에 담겨있는 응답들은 우리의 관심과 욕구를 재개념화하고 재구성할 방법들을 제안하는가?

다시 말해, 교사는 질문, 지도, 자료 추천과 같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일시적인 기호 또는 소비자적 입장에서 맛보기에 멈출 수 있었던 것을 의미와 세계관이 명백히 작동하는 참여적 탐구로 옮겨갈 수 있게 돕습니다. 교사는 반드시 이 모든 질문을 한꺼번에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 여지없이 그들의 호기심을 꺾을 것입니다.

교사의 질문은 매우 중요한데 교육은 때론 불편함, 동요, 마찰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사람들이 무언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요구될 때, 말 그대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단지 “클릭”만 하게 되는데, 이는 너무나 쉬운 과정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행동의 장애물은 행동을 촉진한다.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은 그 길이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마치 학생들의 유쾌한 최초의 불꽃이 잘 길러지고 자극 받으면 좀 더 높고, 풍부하며 지속적인 형태의 예술적, 도덕적, 지적 의의로 타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말하고, 듣고, 기다리고, 행동합니다. 다시 말해, 교사는 마치 플라멩코의 음악적 전통이 스페인 문화의 상징적 측면일 뿐 아니라 플라멩코의 고장으로부터 시간적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음악수업 현장을 포함한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세계의 문화유산이라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묘사했던 장면과 같이 교사가 학생들을 도와 가능하게 했던 만남의 연속 전체를 잠깐 상상해 봅시다. 이런 예술 교육과정과의 지속적인 접촉은 학생들이 세상 속에서 “집에 있는 느낌을 가지는 것”의 의미를 처음 파악하거나 다시 상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상 속에서 “집에 있는 느낌을 가지는 것”의 의미는 응하고, 참여하고, 창조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음악 수업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중요한 문화유산과 만나는 교차로에 도착합니다. 학생들은 그 교차로에서 교사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 각자는 독특한 미적, 성찰적 감수성을 가지고 만납니다. 교차로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장이 됩니다.

학생들은 있는 그대로 음악 하나에 흥미를 느끼는 상태로 교차로에 들어서지만 학생들은 다른 곳을 여행하게 됩니다. 이 때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전 세계를 통해 전해 내려온 인간의 문화유산에 대한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학생들의 서서히 발달하는 인간성 전체와 비교했을 때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예전보다 플라멩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안다는 점에서 기술적, 음악적으로 현저한 변화일 뿐 아니라 동반되는 철학적, 도덕적, 윤리적 의미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그들의 지역 세상 안에서 살지만 그들은 더 이상 단지 그 일부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과 나이는 그대로이지만 그들의 태도는 이제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을 진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은 시사를 얻고 현실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배우고 미적으로 도덕적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더하여 이 학생들이 배운 것 그리고 그들의 서서히 발달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는 그들이 어디를 가든 그러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나타내는데 학생들이 플라멩코에 깃들여 있는 삶과 예술의 철학과 접할 때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음악적 전통과 가치들을 영향을 받을 수는 있더라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습은 ‘아무것도 없는 無’나 ‘모든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학습은 새로운 것과 익숙한 것이 새로운 역동 안에 녹아들어 서로 영향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배움은 또한 세계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와 본질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학습은 인간에게 유의미한 방식으로 우리의 태피스트리를 확장시키고,

깊이를 더하고,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가 지극히 작은 정도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습자가 잇따른 대면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통합시킬 때, 계속적으로 서서히 발달하는 성취 자체가 극미하더라도 다른 이들을 위한 잠재적 문화유산으로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술교육의 잠재성을 “보는 것”을 배운다면 예술교육을 통해 이를 수 있는 것들이며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은 우리가 이런 잠재성을 확인하는 것을 배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교사는 플라멩코를 그 의미가 특정한 틀 안에 이미 담겨 있거나 고갈되어 버린 갠힌 문화유산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사는 플라멩코 전통으로부터 진정한 무엇을 배우는 것이 플라멩코 본고장에서 정통 플라멩코를 익힌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들이 플라멩코의 창조자들과 같은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창조자들의 시야는 훨씬 더 좁기 때문입니다. 창조자들의 본래의 예술적 창조에는 기록함이 서려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는 특징적인 아픔, 기쁨, 열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순전한 것들에 대한 세계시민주의적 존경을 반영하는 이러한 미적 도덕적인 존경은 창조를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없는 소유물로 바꾸어 놓지는 않습니다. 세계시민주의적 예술 교육의 사상은 따뜻한 포용성을 장려합니다. 우리는 다른 전통에 참여하고 다른 전통을 우리의 삶 안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넓게 퍼져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존재들에 대해 응대해 왔는지 여러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주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학생들이 서로 다른 음악적 전통 속에 담겨 있는 것과 같은 철학적 다양성에 접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앞서 본 예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플라멩코를 공부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의 질문을 던지며, 학생들에게 플라멩코가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을 상상하도록 돕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간성 형성을 위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한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계속 관심을 갖도록 돕습니다. 교사는 왜 모든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는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것인지 학생들이 인지하도록 돕고 그들도 적절한 과정을 통해 비록 그 흔적을 알아보는 어렵겠지만 문화유산 형성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돕습니다.

더하여, 의미, 목적, 세상에 대한 응대의 유산들의 성찰적 지지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교사와 학생 모두가 같이 배웁니다. 교사와 학생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세상의 대한 관심이라고 표현했던 자세를 적어도 받아적 형태로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런 관심은 지역에서 시작되는데 예를 들자면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각자가 음악 교육과정에 응하는 방법의 실재를 인지하면서 점점 서로서로가 달라집니다. - 그것은 그들이 서로의 개별성과 특이성을 더욱 의미 있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접하게 된 전통의 깊이와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배움의 길에 있어서 함께 더욱 더 멀리 전진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창조적 인간으로서 행동할 때의 가치와 경이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문화적 자원을 배우고, 구성하고, 발전시킵니다. 그들은 플라멩코 전통을 “단지 또 하나의 좋은 소리”가 아닌 그 이상으로 인식하는 한편, 인간됨에 대한 플라멩코의 특징적인 응답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적이면서도 잠재적으로 교화적인 측면을 인식합니다. 이 새롭게 나타나는 역동적 감수성은 그들이 삶의 장면들 속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건설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페리(Brian Ferry)와 락시 뮤직(Roxy Music)의 노래인, “이보다 더(More Than This)”에서 아름답게 표현했듯이, 인간은 바다의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든 어른이든 우연의 조류에 자신의 몸을 내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잠재된 예술적, 지적 역량을 끌어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힘을 건설적인 목적에 쓸 수 있습니다. 존 듀이는 그의 유명한 저서, 「민주주의와 교육」의 결론 부분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여 말하길, “삶의 모든 만남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관심은 가장 중요한 도덕적 관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심은 도덕적인 것인데 부분적으로는 배려, 책임 그리고 모든 수준의 창조성에 대한 지지를 실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예술적 창조성

이번 강연에서 저는 예술교육에서의 “세계시민주의적 창조성”에 대한 것을 여러분께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창조성은 랠프 월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의 매 순간, 모든 만남에서 “새로운 원을 그린다”는 은유적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른 사람, 사건, 생각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이해의 원을 변형시킨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이런 변화는 원을 확장시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양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이며 이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총체에 비하여 볼 때 작은 부분 일 수 있습니다. 시인이 긴 숙고 끝에 한 연을 지우기로 결정하는 경우, 조각가가 지금까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였던 부분을 제거해 버리는 경우, 또는 작곡가가 작품에서 서명하기 직전에 악절 하나를 마지막으로 제거해 버리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는 단지 거칠게 구성요소를 제거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 경우들은 기술과 판단에 대한 감각이 경험에 의해 영향 받은 그 사람과 예술문화에 포함될 그 사물 둘 다의 변형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과 세상의 만남의 결과는 단지 획득이나 측정 가능한 증가 뿐 아니라 소실을 포함합니다. 새로운 이해를 얻는다는 것은 이전의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관심의 지평을 넓히는 것은 이전의 작은 지평을 잃는 것을 내포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것은 이전의 관점을 동요하고 해소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안네 칼슨(Anne Calson)이라는 시인이 “decreation” (해체를 통한 창조)이라고 불렀던 것은 창조성의 다른 측면을 구성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해체는 건물을 지을 때처럼 매 순간 매우 긴요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오래된 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계시민주의적 태도는 버려진 길을 기억하고 서서히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라는 시인이 쓰길, “모든 이성적인 사고는 원이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배움은 원이다. 우리는 A를 배워 B를 더 잘 배우고, B를 더 잘 배워 C를 더 잘 배우고, C를 더 잘 배워 D를 더 잘 배우고, D를 더 잘 배워 A를 더 잘 배운다. A를 통해 배운 모든 것은 나중에 다시 다른 배움을 시작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어떤 것을 영원히 뒤로 한 채 지나치듯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 사이에서 순환해야 한다.” 프로스트의 통찰은 다른 통찰이 그러하듯이 미적, 도덕적 배움에 잘 적용됩니다. 이런 배움의 형식은 직선적이거나 축적적인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배움은 이 전의 경험과 관점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험과 관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순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였을 때 혹은 삶의 이전 시점에서 자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 떠올리는 것은 현재시점에서 중대한 문제에 놀랄만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예술적 과정은 세계시민주의적 교육을 새로운 원을 그리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묘사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와 발맞추어 예술교육에서의 세계시민주의적 교육의 예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술의 교훈을 다른 교과교육에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과학 선생님은 자연의 심원한 아름다움과 삶의 경이로움 자체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교수법으로 연결될 때 학생들의 서서히 발달하는 미적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없었던 학생이 모든 인류가 삶의 아름다움, 혼란, 고통, 기쁨, 소망의 실제에 대해 특징적으로 경이를 표해 왔던 하나의 방식인 예술이 왜 그 자체로 하나의 경이인지 갑자기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좋은 예술 교사는 진심 어린 예술 작업이 왜 집중력, 방법, 체계적 사고와 실험, 의문과 불확실성을 다루는 능력, 그리고 참을성을 포함하는 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사의 태도가 교수법에 통합될 때, 탐구를 잘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학생들의 이해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학을 좋아하지 않고 낯설게 느끼던 학생이 갑자기 과학이 사실들의 총체만이 아닌 세상에 대한 생생하고 역동적인 만남—경이롭고, 실험적이고, 끝없는 배움의 모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시민주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술과 창조성의 정신은 학교생활 전체에 또는 교육이 일어나는 어떤 곳이라도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술이 그 과정의 심장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예술을 다른 과목들과 함께 무대에 올릴 때, 예술이 “무대 중심”에 놓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빠르게 변하고 많은 것이 요구되는 세상에서는 예술교육과 그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아름답고 인간적인 배움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심포지엄이 우리의 상상력에 활기를 불어넣고, 제가 이 강연에서 그리고자 했던 예술교육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SISAC

**폴 콜라드**  
**Paul Collard**

창의성 구현, 이론에서 실제로  
Delivering Creativity, Turning Theory into Practice

SISAC

## “Delivering Creativity: Turning Theory into Practice”

Paul Collard / Chief Executive, 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 UK

### 1. What does CCE do?

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 (CCE) is an international not-for-profit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 (NGO) which aims to transform the lives of children and families by harnessing the potential of creative learning and cultural opportunity to enhance their aspirations, achievements and skills.

Because many children and young people already have access to rich cultural opportunities, CCE focuses its work on those children and young people who don't, and for whom access to such opportunities could transform their future.

CCE is about making a difference to the lives of children and families. It promotes a systemic approach to creative and cultural initiatives. It builds on the excellent practice which already exists in many places to make the quality of such interventions consistently high, to ensure that all children and young people are included and to place quality at the core of any creative or cultural experience. There are many projects and small scale initiatives which have been able to demonstrate a positive impact on young people and their families. CCE has developed an approach which tries to ensure that every such initiative always has a powerful effect.

CCE has been delivering two major programmes in England:

**Creative Partnerships** - England's flagship creative learning programme fosters long-term partnerships between schools and artists, cultural institutions and creative professionals to inspire, open minds and harness the potential of creative learning. The programme has worked with over 1 million children, and over 90,000 teachers in more than 8,000 projects in England. It works with around 2,500 schools each year.

**Find Your Talent** - a pilot cultural off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which aimed to ensure they have access to the wide range of quality cultural experiences essential to unlocking their talent and realising their potential.

After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programmes in England, CCE is increasingly involved in assisting with the development of programmes abroad. In the summer of 2010, CCE were appointed advisers to the City of Amsterdam and is in the process of

redesigning the City's programmes for creative and cultural learning. Centred on building a stronger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al and education departments of the City, the new programmes are designed to refocus existing programmes to improve their impact. CCE has now been asked to carry out a similar role in Western Australia.

CCE are also advising one of Germany's largest private foundations, Stiftung Mercator, on the development of a 5 year programme in four of the German regions which will be modelled on Creative Partnerships. The Foundation and the German Government have each allocated €10 million to the programme which is intended to be launched in schools in the Autumn of this year. In addition, CCE is supporting a smaller but similar initiative in Hamburg.

CCE are also now working closely with the Governments of Lithuania and Latvia on the development of new programmes in their schools. In Lithuania, CCE has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an application which has now been submitted for European Social Funding and a similar proposal is under development in Latvia. It is intended that a Creative Partnerships programme will start in 100 schools in Lithuania this Autumn.

CCE has also attracted EU funding to develop programmes in partnership with other European countries. Its Artists in Creative Education programme, a partnership between Austria, Holland, Sweden and the UK is exploring how artists should be prepared to work in primary schools. This EU Culture programme funded project will result in a publication and conference in the Autumn of this year.

## **2. Why Does CCE do this?**

To succeed in the 21st Century, young people have to develop a set of skills and competencies. People no longer enjoy long term careers in specific arenas of employment where a set of specialised skills developed in school and or university can be deployed for the rest of one's life. People should expect to have a number of careers, to enjoy periods of portfolio working (simultaneously working on a number of different contracts) and to be prepared to develop new skills and knowledge. More often than not they will have to develop their own specialisms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The world is looking for job creators, not job seekers.

The skills and/or competencies required to succeed in this world have been as defined by CCE include:

- Thinking imaginatively/lots of ideas
- Taking confident decisions
- Taking and managing risks

- Asking challenging questions
- Transferring knowledge/skills into new settings
- Emotionally literate/working effectively in teams
- Spotting surprises
- Persistence/resilience
- Reflecting critically

This set of skills is increasingly seen across education systems as being of fundamental importance. The EU have recently conducted a survey of all European Education systems and have concluded that the core competencies they each seek to develop in young people are:

- Critical thinking
- Creativity
- Initiative taking
- Problem solving
- Risk assessment
- Decision taking
- Managing feelings

Clearly these mirror the skills that CCE is seeking to unlock in young people.

CCE argues from its experience that these skills and/or competencies are in fact behaviours and that behaviours are learnt by imitation. If we wish young people to become more creative, then we will have to educate them in environments in which adults model these behaviours. For many teachers this will require a major change in their teaching style.

### **3. How does Creative Partnerships work in schools?**

CCE puts artists into schools in long term relationships. Schools apply to be in the programme, identifying an issue within the school's development plan on which they wish to focus. This could be weak speaking and listening skills among 5 – 6 year old, poor mathematics results among 10 year old, truancy or poor behaviour. The schools may select any topic.

Each school selected to enter the programme is allocated a Creative Agent, a specially trained creative practitioner who works with them to devise a programme of activity

which will help them address the school development issue they have selected. The creative agent will then select appropriate artists or creative practitioners to deliver the programme in the school. There are a wide variety of projects and approaches each one tailored to each school.

#### **4. The impact of Creative Partnerships**

CCE has commissioned extensive research on many aspects of its impact. The programme is shown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 Raising attainment
- Reducing absences
- Engaging parents in the children's learning
- Strengthens teacher skills and motivation

And returns £15 to the treasury for every £1 invested by the Government.

This compares well with OECD research which shows that the traditional ways of teaching is resulting in demotivated young people lacking in confidence.

For this reason CCE is now partnering with the OCED in a research project designed to produce a teacher-friendly instrument for assessing progression in creativity in the classroom.



## “창의성 구현, 이론에서 실제로”

폴 콜라드 / 영국 창의성, 문화와 교육(CCE) 대표

### 1. CCE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CCE: 창의성, 문화와 교육)은 창의적 학습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아동과 아동 가족의 삶을 개선하고, 학습자의 열망, 성취, 재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탄생한 국제적 비영리, 비정부기관이다.

이미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CCE는 아직까지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CE의 목표는 아동과 아동 가족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이니셔티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단 한 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소외되지 않고 우수한 창의적/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관례에 더하여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프로젝트와 소규모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동, 청소년 및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사례를 보았다. CCE는 계속해서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강력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접근법을 개발하였다.

CCE가 영국에서 실시한 주요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다.

**Creative Partnership (CP: 창의적인 파트너십)** - 예술가, 예술 관련 기관, 창의적인 전문직과 학교간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영감을 불어 넣어주고 마음을 열고 창의적 학습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창의적 학습 프로그램이다. 영국에서만 8천 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실행되었으며 약 백만 명의 아동과 9만 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매년 약 2,500개의 학교가 참여한다.

**Find Your Talent (FYT: 너의 재능을 찾아라)** - 아동과 청소년이 재능을 발휘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적 경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적인 문화적 프로그램이다.

영국에서 거둔 성공을 바탕으로 CCE는 이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여름, 암스테르담 자문위원으로 선출되어 암스테르담의 창의적, 문화적 학습을 재개발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문화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기존 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CCE는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 받은 바 있다.

CCE는 독일의 대형 민간 재단인 스티프통 메르카토르(Stiftung Mercator)가 CP에 기반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독일 4개 지역 대상 5개년 프로그램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 재단과 독일 정부는 본 프로젝트에 1,000만 유로를 투입하여 금년 가을 학교를 개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외 이와 비슷한 함부르크의 소규모 이니셔티브도 지원하고 있다.

CCE는 리투아니아 및 라트비아 정부와 학교의 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리투아니아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ing)에 제출되었으며 라트비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년 가을 리투아니아의 100개 학교에서 CP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CCE는 기타 유럽 국가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을 유치하였다. CCE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의 예술가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 국가는 초등학교에서 예술가의 준비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U 문화 프로그램에서 기금을 지원받는 본 프로젝트의 결과는 금년 가을 출판될 예정이며 관련 컨퍼런스도 개최될 예정이다.

## 2. CCE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21세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청소년은 일련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학교나 대학교에서 습득한 전문적인 재능을 평생 동안 사용하며 일할 수 있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졌다. 즐기며 일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개의 계약을 맺고 근무) 새로운 재능과 지식을 개발할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커리어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람들은 대개 직접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개발하거나 고용 기회를 찾아야 한다. 세상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창출하는 사람을 원한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능과 능력을 CCE가 다음과 같이 정의해보았다.

- 상상력을 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 자신감 가지고 결정 내리기
- 리스크를 감수하고 관리하기
- 도전적인 질문 던지기
- 지식과 재능을 새롭게 변모시키기

- 감성적으로 글을 읽고 쓰고, 팀과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일하기
- 놀라운 사실 발견하기
- 끈기/회복탄력성
-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기

이러한 재능이 매우 중요해 지면서 교육 시스템 전반에 등장하고 있다. 최근 EU가 실시한 EU 교육 시스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주요 능력을 청소년이 개발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판적 사고법
- 상상력
- 진취성
- 문제 해결 능력
- 리스크 평가 능력
- 의사 결정 능력
- 감정 조절 능력

동 조사 결과는 CCE가 청소년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과 일치한다.

CCE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재능과 능력은 사실은 ‘행동이자 습성’이며, 이러한 행동은 따라 하면서 배우게 된다. 청소년이 좀 더 창의력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어른이 이러한 행동을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는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교사들은 자신의 교수법을 크게 바꿔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CP가 학교에서 적용되는 방식은 어떠한가?

CCE는 예술가가 장기적으로 학교에서 근무할 것을 권장한다. CP를 시작한 학교는 우선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주요 계획을 세운다. 예를 들면 다소 뒤쳐지는 5-6세 대상 말하기/듣기 수업이나 10세 대상 수학 수업이 될 수도 있고, 수업 외에 무단결석이나 좋지 않은 태도 등이 될 수도 있다. 학교가 직접 주제를 정한다.

CP를 시작한 학교에 Creative Agent(CA, 창조적 행위자)를 배치한다. CA는 특수 훈련을 받은 창의성 전문가로 학교가 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와 함께 고안한다. 배치된 CA는 각 학교에 적합한 예술가나 창의성 전문가를 선정하여 학교에 프로그램을 전달하게 한다. 각 학교별 맞춤형 프로젝트와 접근법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 4. CP의 효과

CCE는 다양한 학습 효과에 대하여 폭넓은 연구를 실행해왔다. CP가 보여준 긍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 학습 성과 증진
- 결석률 하락
- 부모의 자녀 학습 참여율 상승
- 교사의 재능 및 동기부여 강화

정부가 투자한 1파운드 당 15파운드에 해당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교수법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청소년의 학습 의욕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밝혀진 OECD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CCE는 현재 OECD와 함께 수업 중 창의력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교사 친화적 교재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SISAC

**문용린**

**Yonglin Moon**

창의성 교육의 도전과 과제

The Challenges and Tasks of Creativity Education in Korea

SISAC

## “창의성 교육의 도전과 과제”

문용린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1. 창의 교육은 시대적 요구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접어든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다. 대통령들까지 나서서 지식의 생산력과 정보 유통력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곤 했다. 벤처산업 육성과 정보 인프라 구축에 여념이 없었던 시기가 바로 그 때다. 그 덕분에 불과 20여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갖춘 국가가 되었고, 특히출원이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나라로 변모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 창의적 지적재산과 정보의 유통능력이 기술과 산업 그리고 경제와 문화와 예술을 견인해 간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260여 국가 중에서 10위 정도의 경제규모를 갖추게 된 것과 OECD의 DAC 가입으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최초의 국가가 된 것 등은 모두 이런 시대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덕분이다.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은 멀고 험하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지식생산과 정보유통체제를 혁신하기 위한 경쟁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쟁에서 우리는 선두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앞에 있는 미국, 일본, 독일을 따라잡아야 하고, 바짝 뒤쫓아 오는 무서운 추격자들인 브림크(Brim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멕시코, 중국)를 앞서 가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절대 절명의 과제는 무엇인가? 지식생산과 정보유통의 우위를 고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위의 고수는 어떻게 가능한가? 창의적 인재의 양과 질을 높여가는 것이다. 결국 창의적 인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양하고, 그들의 창의성 발휘를 돕는가에 국가적 명운이 걸려 있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창의적 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수준의 전략이 요구 된다. 어떤 기업인은 1명의 창의적 인재가 수 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업수준의 전략이고, 창의적 인재를 어떻게 길러서, 국가를 어떻게 번영시킬 수 있을까하는 것은 국가수준의 전략이다.

창의성 교육은 그래서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이어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창의성 교육의 문제와 방향, 그리고 향후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창의성 교육의 문제와 도전

창의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교육적 가치였다. 오늘날의 창의성 돌풍 같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성은 언제나 중요한 교육적 가치였다. 1948년 이래 여러 번 제정/개정된 초, 중, 고 국가교육과정 속에서 창의성이 중요한 교육적 가치로 빠져 본 적이 없는 게 이를 증명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육에 대한 비판의 단골 메뉴엔 왜 항상 “창의적 인재를 못 기른다.”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간 창의성 교육이 표방은 크게 되곤 했지만, 실효는 크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창의성 교육을 에워싼 문제는 무엇일까?

첫째는 입시를 위한 성적경쟁이 주된 관심사인 학교교육의 관행이 창의성 교육을 어렵게 했다. 객관적 공정성을 최우선시하는 입학시험과 전형형식 때문에 창의성을 입시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창의성 교육은 입시와 상관없는 교육이 되어버려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돌보지 않는 무관심의 분야가 되어 버렸다.

둘째는 초, 중, 고등학교의 경직되고 획일화된 “교사중심”, “교과서 진도 나가기 중심”, “정숙하고, 엄숙한 수업분위기 중심”의 수업관행과 학교조직문화는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이나 언행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억압해 왔다. 수업시간의 농담이나 일탈 행동에 대한 교사들의 무관용은 창의성의 발휘를 억누르는 무게추였다.

셋째는 학생들을 학교라는 공간에 가두어 두려하는 기성세대의 전통적, 편의적 관행과 발상 때문에 학생들의 세상체험의 기회가 제한되고 세상에 대한 의견의 형성과 표현이 억압되어 창의적 사고와 체험, 발전이 매우 어렵게 사회가 조직, 운영되고 있다. 창의성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끄집어내지는 것’이라 본다면 학교 밖의 폭넓은 체험이 창의성 교육에 필수적 요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렵게 막고 있는 셈이다.

넷째는 따라서 이러한 창의성 교육에 대한 소홀함 때문에 교육계 내부와 학교 내에 창의성 교육 전문가가 매우 희귀하다. 특히 교사들은 교과 전문가이기는 할지언정, 해당 교과의 창의성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섯째로 창의성의 실체에 대한 연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고 지원이 미비해서 학교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따라서 창의성 교육의 학교 간의 전파와 확산 속도는 그간 매우 더뎠다.

여섯째로 ‘공부 잘하고, IQ가 높은 학생이 창의성도 높을 것’이라는 오해가 창의성 교육을 영재 교육의 일환으로 오도해왔다. 그래서 그나마 있었던 창의성 교육도 소수의 영재에 대한 엘리트 교육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런 오해 덕분에 창의성 교육은 정책당국자들의 보편적 교육가치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곤 했다. 창의성 교육은 모든 학생 잠재된 창의성을 극대화 한다는 대중 교육적 가치로 정당화 될 때, 더 큰 지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곱 번째로 창의성 교육을 너무 수학과 과학교과 중심의 사업으로 국한 시켜온 관행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인문, 사회, 예체능 분야의 창의성 교육은 상대적으로 매우 소홀했고 창의성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폭넓은 지지와 협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 창의성 교육은 수학과 과학의 독점물이 아니다. 오히려 인문, 사회, 예체능 분야의 창의성이 수학과 과학 분야 창의성의 인프라를 형성한다. 일부 소수 교과의 창의성 교육 독점은 학교 전체에서의 창의성 교육의 확산과 심화의 장애요소가 되어온 측면도 있다.

이런 일곱 가지 이유들이 서로 엉켜서 우리나라에서의 창의성 교육을 어렵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억압해온 것이다. 이 일곱 가지 요소들은 지금도 막강한 힘으로 창의성 교육을 위협하고 도전하고 있다. 이 요소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무게로 느끼면서 창의성 교육을 진행해야하는 것이 창의성 교육자들의 운명이라면 운명이다. 이런 무게 속에서도 우리나라에서의 창의성 교육은 나름대로 아래와 같은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 3. 창의성 교육의 발전단계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정보화 시대로의 이행을 무난히 잘 이루어 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이룬 산업화의 성과를 토대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지식정보화 사회의 인프라 구축에 성공했다. 그 덕분에 오늘날의 경이적인 경제적 발전의 성과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의 인재 육성의 국가전략을 창의성 측면에 초점을 두고 개괄한다면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지식창의성(知識創意性) 단계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인데, 1948년 이후부터 1980년 초까지의 시기다. 이 단계에서는 창의성이 독립적인 교육 가치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으나, 대체로 “지식이 많으면 창의성도 높다.”, “많이 알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나온다.”, “학력이 높을수록 새로운 생각도 많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창의성을 이해하던 시기다. 공부 잘 하는 학생과 학력이 높은 사람이 창의성이 높을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창의성 그 자체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지식이 많도록 가르치고 좋은 학교(소위 일류교)에 진학시키는 일이 주된 관심사가 되곤 했다. 그래서 창의적 인재란 결국 일류학교 출신이면서 성적이 좋고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규정되곤 했다. 60-80년대에 걸쳐서 국내 일류 대기업들이 선호한 신입사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창의적 인재가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념이 컸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고력창의성(思考力創意性) 단계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인데, 1983년 이후부터 2008년까지의 시기다. 이 단계에서는 창의성을 교육의 가치 있는 목표로 무게 있게 등장시키기는 하는데 사고력이나 문제해결력 중심으로 규정하는 시기다. “지식의 암기가 창의성을 억압하고 훼손

시킨다.”는 비판의 소리가 크게 울리기 시작한 시기다. 특히 과학교육분야에서 이 목소리가 커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도된 시기다. 우리나라 최초로 경기 과학고등학교가 생긴 것(1983년)도 이런 분위기의 반영이다. 과학적 지식을 가르치되 암기 중심이 아니라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주로 가르침으로써 과학 분야의 창의적 인재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념이 품이하던 시기다.

이러한 분위기는 빠르게 사회전반으로 파급되어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의 측정을 표방하는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되고 각급의 대학들도 논술시험을 도입하여 단순지식이 아닌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입시에 반영하고자 애쓰게 된다.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에 대한 강조는 예술교육 분야에도 확대된다. 한국종합예술학교는 바로 예술분야의 창의적 인재 육성을 표방하면서 생긴 학교(1993년)인데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배양이 초점을 맞추고자 다른 대학과는 다른 교육방법과 체제를 도입하고자 애쓴다.

기업들의 채용 관행도 이 시기에 많이 달라진다. 성적과 일류교 중심의 선발에서 능력 중심으로 바뀌고 그 중에서도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요한 전형요소로 등장 시킨다. 분명히 이 시기는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심으로 창의적 인재를 규정하던 시기였다.

셋째는 창의인성(創意人性) 단계라 부를 수 있는 시기인데 비교적 최근인 2009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간 진행되어온 창의성 교육의 기본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제목이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2009.12)이다. 그 취지는 분명하다. 그간의 창의성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효율적이고 진화된 창의성 교육을 전개하기 위해서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킨 창의성 교육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인성교육을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하면서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 고,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교육활동에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병행 또는 연계시켜서 국가발전의 잠재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 경쟁력의 두 가지 핵심은 지식·정보의 생산력과 사회적 자본이다. 지식·정보의 생산력은 창의성 교육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간의 신뢰와 법질서의 준수라는 사회적 자본은 인성교육으로 확보 할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자본은 창의성의 발휘를 촉진하고 확산시키는 텃밭이자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기 시작한 창의인성교육은 결국 국가발전을 위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리고 있는 야심찬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창의성 교육은 이제 “창의인성교육”(Creativity & Character Education: CCE)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이제 창의성 교육의 한국적 브랜드인 창의인성교육(CCE)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로 한다.

#### 4. 창의인성 교육의 의미와 특징

그럼 창의인성교육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창의인성교육이란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두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창의성의 배양과 발휘를 촉진하는 인성과 사회문화적 가치와 풍토를 조성하고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전략이다. 따라서 이 전략 하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골격이 드러난다.

첫째로 창의인성교육은 기존의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체제를 해체 시키고 새롭게 시작하는 전략이 아니라 기존의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을 보완하고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창의성과 인성 교육 분야의 전문가와 교육자들 간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고 교과 선생님들 간에 활발한 협동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수학과 과학 교사와 사회, 도덕 교사 간의 소통이 크게 증진되어야 한다.

둘째로 인성과 창의성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바, 창의성의 육성과 발휘를 촉진하고 강화시키는 인성 특징이 있는가하면 오히려 억제하고 방해하는 인성 특징도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모여 이루는 사회문화적인 풍토와 가치도 창의성의 육성과 배양을 촉진하기도 하고 억제, 방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창의인성교육에서는 창의성의 육성과 발휘를 촉진하거나 강화하는 인성 특징과 사회문화풍토의 조성과 강화를 위한 전략을 담고 있어야 한다.

셋째로 창의성은 인재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창의성은 독창적(original)이고, 독특하며(unique), 사회적으로 적합하고 유용한(relevant & useful) 지식과 물건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지만 자신에게나 사회적으로 바른 인성(good)과 도덕적 가치(right)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적어도 교육적으로 지향하는 창의적 인재는 창의성과 더불어 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함께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바른 인성과 도덕적 가치를 구비하지 못한 창의적 인재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치 제국의 수장으로 인류에게 많은 해악을 끼친 아돌프 히틀러도 권력투쟁에서나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엄청난 창의성을 발휘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창의적 인재라고 부를 수는 없다.

세계역사에 명멸한 수많은 독재자가 있었는데, 그들도 젊은 시절에는 창의적 인재라 불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왜곡된 가치를 지닌 덕분에 우리는 그들을 창의적 인재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따라서 창의성과 인성 및 도덕적 가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그들은 합쳐서 창의적 인재의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도덕을 갖추지 못한 창의적인 인물이 역사의 큰 해악을 끼친 예를 우리는 주목해야하며 이번에 펼쳐지는 창의인성교육은 이런 해악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인성교육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공헌하는 창의적 인간을 기르려는 것이며 인류에 해악을 끼치는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창의적 인간을 배출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 5. 창의인성 교육의 과제와 전략

그러면 이런 취지의 창의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네 부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부문은 창의성의 배양과 발휘의 수단이 되는 교과관련 지식과 기술 및 사고력을 관심은 이미 과학고등학교나 각급의 영재학교를 통해서 교과전문교수나 교사에 의해서 오래도록 진행되어 왔다.

둘째 부문은 창의성에 대한 심리학적 교육학적 전문지식을 총 동원하여 어떻게 하면 유, 초, 중, 고, 대학에서 창의성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발휘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과 학교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일에는 창의성이나 영재교육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창의성 연구는 1970년대 이래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활성화 되어왔고, 그 성과도 엄청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문적 성과가 창의적 인재 교육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런 학문적 성과가 우리나라 창의성이나 영재교육에 스며들어야 한다. 이 두 번째 부문은 바로 창의인성교육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최신의 심리학적, 교육학적 지식과 기술을 창의적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셋째 부문은 창의성과 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 또는 통합시키려는 노력이다. 창의성과 인성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성격적인 특징이 창의성의 발휘를 억압하기도 하고, 활성화시키기도 한다. 협동적이고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창의적 업적을 많이 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오늘날의 창의성은 독불장군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속에서의 협동과 경쟁과정을 거치면서 발휘된다. 집단 속에서의 사회생활 능력은 곧 인성과 도덕적 수준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이 부문에서는 창의성의 육성과 발휘를 촉진하고 돕는 인성특징에 대한 연구,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를 탐색, 이를 학교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짜게 될 것이며 아울러 창의적 인재가 되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도덕적 가치와 판단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탐색을 하게 될 것이다.

넷째 부문은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회의 온갖 자원을 학교와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창의적 인성은 교과서와 학교교사를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기르는 것이다. 지역사회는 온갖 다양성과 전문성과 복잡성을 갖는 기관들로 가득 차있다. 이 다양한 기관들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체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공공단체는 학생들의 창의체험 장소로 언제나 개방 되어야 한다.

이런 네 가지 부문의 연구와 전략의 수립은 우리나라에서의 창의성 교육의 패러다임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도덕성과 인성 그리고 창의성을 겸비한 과학자, 예술가, 기업가, 인문학자, 사회과학자가 많이 길러지고 그들이 활발하게 창의적 활동에 몰두 할 때 한국 사회는 그 자체로 번성하고 그런 번성을 통해서 인류사회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 “The Challenges and Tasks of Creativity Education in Korea”

Yonglin Moon /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1. Creativity education is a need of the times

Korea entered the knowledge-information era in the late 1990s. Presidents stood at the forefront of enhancing knowledge productivity and information distribution. This was the time venture companies were fostered and establishing 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was considered to be a priority for Korea. Thanks to such efforts, Korea established one of the best information infrastructures in the world within just 20 years. Korea also has the fourth largest number of patents, after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In the knowledge-information era, creative intellectual properties and the ability to distribute information are the forces driv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dustry, economy, culture and arts. Korea actively responded to such changes of the times, which made Korea the 10th largest economy among the 260 countries in the world, and allowed it to transform itself from a recipient country to a donor country with its joining the DAC of the OECD.

There, however, is a long way to go, because every country around the world is focused on the competition to innovate its knowledge production and information distribution system. Korea should be at the head of the race. Korea should catch up with the runners ahead --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 and surpass powerful chasers, like the BRIMC countries (Brazil, Russia, India, Mexico and China).

What is the way to survive in the face of this challenge? It is to hold a dominant position in the production of knowledge and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And, how can we accomplish this? The answer can be found in fostering excellent, creatively skilled people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these creative individuals. Ultimately, how effectively the creative individuals are fostered and what kind of support they are provided to let them exert their creativity will determine the fate of a nation. In this regard, it is of the utmost importance.

Thus, there is a need for a national strategy for nurturing creative individuals. One entrepreneur said one creative individual will fee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This is a strategy for the corporate-level, whereas fostering creative individuals to develop the country is a national-level strategy.

For these reasons, creativity education should be covered by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its importance should be acknowledged. Bearing this in mind, I will talk about the challenges creativity education faces and the direction and future tasks for our creativity education.

## 2. The Challenge of Creativity Education

Creativity has been considered as an essential value in education throughout history in every country. In Korea as well, creativity has been an important educational value although these days it has been receiving particular attention as proven by the fact that creativity has never been dropped from the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curricula despite their having been revised repeatedly since 1948. Yet criticisms of Korean education always include “why we fail to foster creative individuals.” The answer is because we have claimed a stake in creativity education but failed to place importance on actual results. What, then, are the problems surrounding our creativity education?

First, score-focused public education which is focused on entering a good university does nothing if not make it difficult to promote creativity education in Korea. Entrance examinations and a screening process which place the priority on fairness have been an obstacle to applying creativity. Creativity education became irrelevant to entering a university, and consequently,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turned their backs on creativity education.

Second, classes in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are rigid, straight-jacketed and silent and are centered on textbooks or a one-way lecture style in which teachers provide information without interacting with students. School culture has excessively suppressed creative activities as well as the language and behavior of students. Teachers show no tolerance for jokes or deviant behavior during class and have been a heavy weight dragging down creativity.

Third, the traditional practice and the old way of thinking of the older generation which is to keep students in school limit the opportunities students have to experience the world. Students find it difficult to form and express their opinions about the world. Our society has been a place where the expression of creative thinking, experience and realization is difficult.

If creativity is something that can be “pulled out” by various experiences, not by cramming down education, a variety of experiences outside the school are essential to developing the education of creativity, but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Korean education is hindering such development.

Fourth, having such a neglectful attitude towards creativity education results in a lack of experts on creativity not only in schools but also in the overall education sector. More

specifically, art teachers may be experts in the curriculum of public education but are not creative experts of the curriculum.

Fifth,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research on creativity 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nor support for such research. This has resulted in a lack of reliable creativity education programs that can be utilized in schools, and experiences vis-à-vis creativity education in school were not fully shared among schools.

Sixth, there has been a misunderstanding that students with high scores and a high IQ will be more creative. This has led to the misinterpretation that creativity education is a special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a small number of creativity education programs were transformed into programs restricted to a few talented youth. Because of such a misunderstanding, policy-makers did not pay enough attention to creativity education when pursuing universal educational values. We should realize that when we justify the value of creativity education by its being able to maximize the creativity of all students, it will garner more support.

Seventh, creativity education has been limited to the mathematics and science, and creativity education in liberal arts, social studies, art and physical education have been comparatively neglected. Teachers were neither fully supportive of nor cooperative with creativity education. Yet creativity education is not an exclusive property of mathematics or science and its place in the liberal arts, social studies, art and physical education is what forms a creative infrastructure for mathematics and science. A few subjects placing a monopoly on creativity education have been an obstacle to expanding and deepening creativity education in schools.

These seven reasons got tangled up and have caused hardship and interrupted or suppressed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education in Korea. These seven factors still threaten and challenge creativity education. It is the destiny of educators to move creativity education forward while aware of the strong adverse effects of these elements, but creativity education in Korea, despite such hardships, has made some progress as explained below.

### **3. Stages of Creativity Education Development**

In Korea, the transition from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to the era of knowledge - information was a smooth one. Based on its experience of achieving industrialization beginning in the late 1960s, Korea has been successfully establishing an infrastructure for the knowledge-information era since the late 1990s. That is why Korea is enjoying remarkable such economic development today.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creativity, the national strategy for fostering talented

individuals after the 1960s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the step of creativity in terms of knowledge from 1948 to the early 1980s. Creativity was not highlighted during the period as a unique value of education, but people believed that “people with vast knowledge are creative”, “more knowledge leads to new ideas” and that “people who have a high level of education have many new ideas.” As people who made good grades in their studies and had a high level of education were considered to be creative, most people focused on teaching as much knowledge as possible and sending their children to the best schools in Korea, rather than on having an interest in creativity itself. Thus, creative individuals were defined as those who came from the best schools and who had good grades and a lot of knowledge. Korean companies in the 1960s to 80s preferred those kinds of new employees because they believed that there was a good chance that a creative individual would be amongst a group of such people.

The second stage is creativity in terms of thinking from 1983 to 2008. On this stage, creativity emerged as a new value in education, and people defined it as being equivalent to thinking skill or problem-solving skill. This was when some people raised their voice and made the criticism that memorizing knowledge suppresses and destroys creativity. In particular, using such a learning method in science drew criticism and science education was changed to foster thinking skill and problem-solving skill. Such an atmosphere was internalized and led to the opening of the Gyeonggi Science High School in 1983, a first in Korea. People believed that teaching science based on thinking and problem-solving skill, not by memorization, would lead to nurturing creative individuals.

Such atmosphere quickly spread throughout general society and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was adopted to examine the think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of students. A number of universities also adopted essay examinations to accommodate such a trend. Emphasis on think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also had an impact on the arts.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which was established in 1993 to foster creative artists also adopted the educational approach of other schools and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think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Companies also started to look for different types of employees. They concentrated on the abilities of applicants, especially on their think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rather than their school grades or academic background. Clearly, creative individuals were defined during that period as having think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The third stage is the step of creativity in terms of character from 2009 to the present. In December 2009,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resented the Basic Policy for the Education of Creative Character in order to upgrade the basic



paradigm of creativity education. Its goal has been clear. In addition to its achievements in creativity education, it aims at promoting creativity education which intimately connects creativity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reativity education. Because the Ministry considered creative and character education as an educational strategy suited for national development, the Ministry is devoting itself to ensuring the potential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by connecting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in the curricula for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The two main pillar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re social capital, which is trust among people and the observance of laws, and knowledge-information productivity. Character education can guarantee the former and creativity education the latter. Furthermore, social capital is a fertile soil for the expression and promotion of creativity. In this sense, the promotion of creativity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s an ambitious strategy that aims to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In other words, creativity education in Korea entered an era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CCE). Next, I will talk about CCE, a symbol of Korea's creativity education.

#### **4. Meaning and Content of CCE**

What does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CCE) really stand for? CCE emphasizes the distinctive functions and roles of creativity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and at the same time, it combines these two types of education to foster social/cultural values and create an environment which is suitable for nurturing creativity and encouraging people to express their creativity. It is also an educational strategy that aims to foster creative individuals who have upright character as well as moral judgment. There are three pillars to the strategy.

First, CCE is not a whole new strategy which abolishes and replaces the traditional system of creativity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Rather, it is an effort to complement and connect the traditional education in order to maximize effectiveness. Thus, close communication among experts in both creativity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and other educators is important and so is active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school teachers. In particular, communication among teachers of mathematics and science and their counterparts in social studies should be significantly enhanced.

Second,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and creativity and some characters nurture and encourage creativity whereas others hinder or disrupt it. Likewise, the social atmosphere and values built up by many people may promote creativity or may obstruct or block it. CCE, therefore, should include characters that foster and promote creativity as well as strategies that create the ideal social atmosphere.

Third, creativity is a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condition for a person to be creative. Creativity is the original and unique ability to create socially relevant and useful knowledge and goods, but people should have a good character and the right values. Even if too lofty of a goal, education should aim at fostering creative people who have both creativity and the right personality as well as moral judgment, because creative people without the right personality and moral judgment can be dangerous. Adolf Hitler, the leader of the National Socialist German Workers Party who committed enormous crimes against humanity, expressed his own creativity in his approach to the power struggle and his will to power but he cannot be called a creative person.

There have been a number of dictators throughout the world in the past. Those dictators may have been called creative people in their youth, but we do not call them creative people because of their morally distorted values. In this regard, the combination of creativity, good personality and moral value becomes a sufficient as well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creative talent.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cases in which creative people without morality inflicted harm on humanity, and the CCE should be able to prevent such harm. CCE aims to foster creative people who can contribute to upholding the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and at the same time, prevent the birth of creative, but immoral and unethical people who would harm to humanity.

## 5. Future Tasks and Strategies for the CCE

How then should we go about achieving such goals of the CCE? We can think about the following four tasks. First, we should think about how we can teach knowledge, techniques and thinking skills that are related to the curriculum and that function as tools that nurture and bring out creativity. This task is related to the role of professors or teachers in the schools. There has been a deep interest in this issue among curricular professors or teachers at science high schools or special education programs for the gifted for a long time.

Second, we should resort to our expertise in psychology and pedagogy when examining the ways to effectively develop creativity in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so that they can express their creativity. We should also create specific educational programs and a school system that can realize this. To do so, experts in creativity or special education for the gifted, psychologists and pedagogists will play an important and necessary role.

A variety of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on creativity by psychologists or pedagogists since the 1970s and has produced big results. Such academic results, however, have not yet been fully reflected in creativity education and will need to become part of our

creativity education or special education for the gifted in the future. This second point is very important for the CCE. It argues that the latest psychological, pedagogical expertise and techniques should be actively utilized to foster creative talent.

Third, we should make an effort to connect and combine creativity and character, between which there is a close connection. Some characters suppress creativity whereas others promote it. One research stated that people with good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make more creative outcomes. Today, creativity comes from cooperation and competition within groups not from a maverick. And it is precisely this social skill within a group that is determined by the personality and morality of a person.

We, therefore, should research the character that will help to develop and express creativity, should explore the ideal social, cultural environment, and should establish strategies to take actions in schools. Furthermore, we should study those moral values and judgments which are necessary to engender creative talent.

Fourth, we should provide all resources to schools and students to provide students with a sufficient number of experiences. Creative talent is not fostered by textbooks or school teachers, but by communities. Communities are full of complex organizations which have diversification and professionalism. This diversity of organizations should be a place for children and youth to have experiential learning. Companies or public organizations of a certain size should always be open to such experiences of students.

I believe that research and strategies relating to these four points will upgrade the paradigm for creativity education in Korea. We will be able to foster scientists, artists, entrepreneurs, anthropologists and social scientists who are moral and creative. When these talents are involved in creative activities, Korea will flourish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overall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SISAC

**앤 패트슨**  
**Ann Patteson**

LTТА, 캐나다의 삶과 지역사회를 바꾸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Learning Through the Arts: An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 Transforming  
Lives and Communities Globally

SISAC

## **“Learning Through the Arts: An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 Transforming Lives and Communities Globally”**

Ann Patteson /

Director of Academic Research, The Royal Conservatory of Music, Canada

### **Introduction**

Learning Through the Arts (LTTA) is a transformative arts-based school and community education initiative developed by The Royal Conservatory of Music in Toronto, Canada. LTTA was designed with the goal of engaging children, youth, and adults deeply and meaningfully in learning.

In schools, LTTA provides lessons in non-arts curriculum areas that incorporate performing and visual arts into the learning process. Students learn Mathematics, Literacy, Science, and Social Studies by making images, creating dances, creating films, telling stories, and singing songs. In community settings, LTTA offers arts-based explorations of issues relevant to a wide variety of groups. In this talk, I will focus first on LTTA’s school programming and then speak briefly about its community initiatives.

What makes LTTA effective are its strong philosophical and practical underpinnings, its programs of artist and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its dedication to program evaluation research, and its ability to respond to the demands and needs of particular educational contexts.

### **History of LTTA**

LTTA was largely a response to the Ontario school education context of the 1990s, an era when, in Canada and elsewhere, many changes were afoot: teachers were feeling beleaguered by the demands to deliver ever-increasing educational content; student groups increasingly reflected a diversity of cultural backgrounds and languages; arts teachers were no longer included on school rosters in many regions; there was a movement to return to teaching primarily the basic subjects of Mathematics, Literacy, and Science, accompanied by standardized testing; and economic instability was leading to widespread cut backs in education. At the same time, and not unrelated to these changes, students seemed to be becoming increasingly disengaged from their learning experiences (Arstvision, 1994). Add to these factors, rapid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changes that demanded flexible, creative, engaged thinkers, and it was not hard to see that educational change was imperative.

It was natural for The Royal Conservatory of Music (RCM), with its guiding principle to develop human potential through leadership in music and arts education and its expertise and resources in the arts, to address what was becoming an educational crisis (Elster, 2001).

### **Philosophical and Practical Underpinnings of LTTA**

The LTTA is grounded in the theoretical and research literatures that tell us the following:

- a) Among other things, art-making experiences are intrinsically motivating (Csikszentmihalyi, 1996) and can
  -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imagination and creativity (e.g., Greene, 1995);
  - provide windows into alternate ways of being in the world (e.g., Greene, 1995);
  - enhance social skills, community, empathy, and acceptance of alternate points of view (e.g., Patteson, 2010; Bai, 2004; Dissanayake, 1995);
  - lead to higher levels of self-knowledge, self-esteem, and self-confidence (e.g., Eisner, 1994; Greene, 1995; Sylwester, 1998);
  - increase academic achievement (e.g., Murfee, 1995; Music in World Cultures, 1996; Upitis & Smithrim, 2003; Welch & Greene, 1995);
  - develop higher order thinking skills, reflection and self-regulation (e.g., Bilhartz et al., 2000; Winner, Hetland, Veenema, Sheridan, & Palmer, 2005).
- b) The brain is plastic and capable of change throughout the life-span and increasing bodily, mental, and emotional engagement in learning leads to deeper and more long-lasting learning (Go, 2010);
- c) In any group of learners there will be multiple kinds of intelligence, and the arts offer many entry points into learning, accommodating a wide variety of learner capacities and learning styles (Gardner, 1983); and
- d) Enjoyable learning experiences such as those provided by art-making promote engagement and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and skills.

### **Teacher and Artist Professional Development**

While it brings a myriad of benefits to school learners, the LTTA program is, at its core, a sustained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Teacher development in the arts involves an intermingling of institutional, curricular, pedagogical, and personal issues (Oreck, 2002). More often than not, it takes years to



travel the road from conceiving of one's self as a novice in the arts to feeling capable of conveying artistic skills and knowledge in a classroom setting (Patteson, 2004; Upitis, Smithrim, & Soren, 1999).

LTТА brings specially trained artist-educators into the classroom to work creatively together with teachers, providing teachers with sustained, hands-on, job-embedded training in arts-based teaching. These LTТА-trained actors, musicians, painters, dancers and writers, who have been certified to help teach curricular requirements, develop lively and engaging ways to present and teach non-arts subjects through arts-infused lessons. LTТА also provides professional development to educators through a variety of teacher institutes, conferences, and workshops.

The LTТА artist-educators who work with teachers receive multi-leveled and on-going training, requiring them to move through a series of modules over the course of three or more years. As well, those individuals who have completed this training are required to renew and deepen their learning by participating annually through an additional 42 hours of training and mentoring more junior artist-educators. Educational specialists are engaged to lead the artist-educator training.

Some of the areas of learning experienced by an LTТА artist-educator in training are as follows:

- Learning theories
- Lesson planning
- Teaching tactics
- Creating meaningful links between art forms and curricular goals
- Ages and stages of child and youth development
- Understanding school culture
- Forging effective partnerships with teachers
- Classroom management
- Understanding the Mathematics, Literacy, Science, and Social Studies curricula
- Cultural sensitivity and knowledge

In the LTТА model, the teacher is recognized as the curriculum expert and the artist-educator is acknowledged as a specialist in the arts. They work in partnership, moving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es:

- An initial planning meeting where the teacher identifies specific curriculum

goals and the artists suggest how his/her art form may be used to achieve those goals

- Development and submission by the Artist-educator to the teacher of a series of lesson plans with suggestions for teacher activities that can further the learning and prepare students for subsequent artist-educator visits
- A series of four artist-educator classroom visits lasting about an hour and a half each, with each visit followed by debriefing between artist-educator and teacher

The fore-going activities usually take about two months to complete. The whole process is repeated by the same teacher with a different artist-educator in the same school year, constituting a total of four months of yearly in-class engagement with the LTTA program on the part of the teacher. Schools are encouraged to commit teachers to a minimum of three years of participation in the LTTA program, since the LTTA research has shown that this amount of time is needed to instil the confidence and skills that enable a teacher to make arts-based teaching an integral part of their pedagogical practice (Patteson, 2004, 2005; Upitis & Smithrim, 2003).

Based in Toronto with programs offered across Canada, LTTA is supported by regional LTTA managers and artist-educators. LTTA ensures the success and relevance of its programming by underpinning it with rigorous, on-going evaluation and research.

### **Evaluation and Research**

Since 1994, LTTA has conducted close to 60 studies. Those studies have consistently found positive effects for participants in the areas of cognition, emotions, and social interaction. Here are some examples of those findings:

- An LTTA an-Canadian study (1999-2002), involving over 6,000 students and their teachers, found that Grade 6 student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program for three years performed 11 percentile points higher in Mathematics than did their non-LTTA control group counterparts. Gains have also been recorded in Social Studies and in Literacy.
- In all of the LTTA studies, students attest that they retain knowledge longer when learning is arts-based.
-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confirm that students are more engaged when learning is arts-based.
- Students who are normally on the periphery of classroom activities often become leaders in LTTA classes.

- LTТА makes students happier to be in school.
- Students invariably identify Physical Education and the Arts as their favourite school subjects.
- Students gain self-confidence and self-respect through LTТА classes.
- Students in the LTТА new media programs developed critical lenses through which to view messages of the media.
- Students using locative media and the arts developed a better appreciation of and attachment to their communities.
- First Nations students thrive in arts-based learning.
- Teachers are inspired by the joy they see in the faces of their students during LTТА classes.
- The vast majority of parents want their children to have school arts experiences.
- The gains students derive from LTТА classes spill over into other aspects of their social and learning lives.

[Names, dates, and contexts of LTТА studies supporting these findings will be included in the actual conference presentation]

### **Community Programming**

To this point, the focus of this presentation has been on LTТА's school programming. LTТА also works in diverse community settings, in partnership with a wide variety of organizations.

For example, LTТА has delivered arts-based learning to medical students at Canada's largest medical school. In other medical contexts, LTТА is partnering with Canada's foremost geriatric care centre to provide arts programming to senior adults and to study the effects of that programming, and partnering with neuroscientists at Canada's leading children's hospital to study the effects of LTТА's music-based programm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child.

In the province of Ontario alone, LTТА currently works with over 60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serving populations facing life challenges such as mental illness and poverty to provide arts-based lessons that develop self-confidence and life skills.

LTТА is also working in partnership with one province's Ministry of Justice and another provinces Ministry of Education to provide arts-based programming for youth at risk of delinquent behaviour and/or of dropping out of school.

An example of LTТА's international work in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is provided

by its program for orphaned children being cared for by nine non-government organizations in Cambodia. This project involved partnerships with the NGOs,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in the United States, the University of Panasastra in Cambodia, and a funding partner in England.

### **Meeting Contextual Needs**

A very large part of the success of LTTA is its responsiveness to contextual needs. A needs assessment study is conducted for every program LTTA offers: this is an essential step in ensuring that the needs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re met in subsequent programming.

LTTA's policy of hiring and training regional or local artists for its artist-educator rosters also ensures that individuals who are familiar with the cultural, social, and educational needs of a given setting are delivering the program. For example, in its work with Canada's Aboriginal groups in northern Alberta, LTTA has recruited and trained close to 30 Aboriginal artist-educators to deliver arts-based lessons using traditional, as well as contemporary, art forms, so that LTTA lessons and activities are culturally relevant, promote academic and social success, and enhance cultural pride and identity.

### **Funding the LTTA Program**

Some of the major sources for funding of LTTA programming are as follows:

- School budgets and/or parent councils
- Provincial Ministries of Education and of Culture and of Justice
- Corporations
- Foundations
- Regional and provincial arts councils

### **Establishing LTTA in non-Canadian Contexts**

There are several ways to establish LTTA in non-Canadian contexts. One option is to focus on teacher and artist-educator development. For teachers, courses in arts-based teaching provide participants with the strategies, knowledge, and skills to deliver arts-based lessons. LTTA has offered two-week courses in Singapore, Japan, Germany, Cambodia, Italy,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Canada.

It is wise to couple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with regional artist training, so that teachers have the artistic support they need in the classroom. For example, LTTA

currently works with a team in Germany to provide on-going artist-educator training. In these early days of the German program, Canadian LTТА artists and educators facilitate this training. LTТА also provides LTТА Germany with guidance on how to structure, conduct, and present research into the impacts of its program. Eventually, German LTТА artist-educators, teachers, and researchers will be experienced enough in program delivery that they will be able to continue without assistance from LTТА Canada.

### **Closing Words**

LTТА is not the only arts-based initiative in Canada. Other professional arts groups take their work into schools and communities. Many organizations are adopting the LTТА model. That is good news: the more arts experiences we can provide to our citizens, the better.

However, LTТА remains unique in the strength of its infrastructure, its expertise in using the arts to teach non-arts content, its programs for certifying teachers and artists in arts-based teaching, its research and evaluation, and its global reach.

It is an honour to be here among educators who believe in the power of the arts to create happy, respectful, knowledgeable and skilled citizens, and to have the opportunity to share the LTТА story.

### **References**

- Art vision, (1994).
- Bai, H. (2004). Education and cultivation of democratic human agency: A preliminary exploration. 1-4.  
[http://www.educ.sfu.ca/people/faculty/hbai/EdAndDemoc\\_ABS.html](http://www.educ.sfu.ca/people/faculty/hbai/EdAndDemoc_ABS.html) Retrieved February 16, 2004.
- Butzlaff, R. (2000). Can music be used to teach reading? *The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34(3-4), 167-178.
- Csikszentmihalyi, M. (1996).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ew York: HarperCollins.
- Dissanayake, E. (1995). *Homo aestheticus: Where art comes from and why*. Seattle, W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Eisner, E.W. (1974). Is the artists-in-the-schools program effective? *Art Education*, 27(2), 19-23.

Elster, A. (2001). Learning Through the Arts Program goals, features, and pilot res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 the Arts*, 2(7).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Greene, M. (1995). *Releasing the imagination: Essays on education, the arts, and social chang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Go, T. (2010). The Neurology of Singing. Keynote talk delivered at Beethoven and the Brain Symposium, The Royal Conservatory, Toronto, Ontario, Canada, October 27.

Hamblen, K.A. (1993). Theories and research that support art instruction for instrumental outcomes. *Theory into Practice*, 32(4), 191-198.

Hetland L., Winner, E., Hetland, L., Veenema, S., Sheridan, K., & Palmer, P. (2005). *Studio Thinking: How Visual Arts Teaching Can Promote Disciplined Habits of Mind*. To appear in P. Locher, C. Martindale, L. Dorfman, & D. Leontiev (Eds.), *New Directions in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Baywood, CA.

Luftig, R. (1995). *The schooled mind: Do the arts make a difference? Year 2*. Oxford, OH: Center for Human Development, Learning, and Teaching, Miami University.

Moore, B. & Caldwell, H. (1993). Drama and drawing for narrative writing in the primary grade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7(2), 100-110.

Music in World Cultures (1996). *The Georgia project: A Status report on Arts Education in the State of Georgia*. St. Bonafice, MN: Author.

Patteson, A. (2004). *Present moments/present lives* Teacher transformation through art-making.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Faculty of Education, Queen's University, Kingston, Ontario, Canada.

Patteson, A. (2005). *Learning Through the Arts: Five-year longitudinal study*. Available from the Royal Conservatory, Toronto.

Patteson, A. (2010). *Learning Through the Arts: Music Champion program evaluation research report, year 1*. Available from the Royal Conservatory, Toronto.

Sylwester, R. (1998). Art for brain's sake. *Educational Leadership*, 56(3), 31-35.

Uptis, R., Smithrim, K., & Soren, B. J. (1998). Teacher development and the arts: Measures of teacher transformation. Paper presented at the Canadian Society of the Study of Education (CSSE), Ottawa, ON.

Welch, N. & Greene, A. (1995). *Schools, communities and the arts: A research compendium*. Tempe, AZ: Morris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Arizona State University.

## “LTТА, 캐나다의 삶과 지역을 바꾸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앤 패트슨 / 캐나다 왕립음악학교 LTТА 연구개발 디렉터

### 도 입

Learning Through the Arts(LTТА, 예술을 통한 학습)은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왕립음악학교(The Royal Conservatory)가 학교 및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개발한 예술에 기반을 둔 교육 이니셔티브다. LTТА는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깊이, 또 의미 있게 학습에 참여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고안되었다.

학교에서 LTТА는 비예술 교과과정에서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을 포함시킨 학습 과정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이미지와 춤을 창조하고 영화를 찍고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수학, 국어, 과학, 사회 과목을 공부한다. 지역사회의 경우, LTТА는 더 넓은 그룹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문제를 예술에 기반을 두어 탐구한다. 본 발표 요약문에서 우선 LTТА의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그 후 지역사회 이니셔티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LTТА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LTТА의 철학적이고 실용적인 기반, 예술가와 교사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프로그램 평가 연구에 대한 노력, 특정 교육적 맥락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와 요구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 LTТА의 역사

LTТА는 1990년대 온타리오 주 학교 교육 상황에 맞춰 개발된 대응이었다. 당시에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교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는 교육 콘텐츠에 대한 요구사항 때문에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었고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과 언어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었다. 많은 지역에서 예술 교사는 더 이상 근무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기본 과목이라 할 수 있는 수학, 국어, 과학 등의 과목에 다시 초점을 맞추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 불안정성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교육 관련 지출을 줄이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변화와 상관없이 학생들의 학습 경험 참여도는 눈에 띄게 줄어갔다(Arts Vision, 1994). 이러한 요소와 더불어 급격한 세계화와 기술적인 변화는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상가를 원하는 시대를 만들었고 교육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극명했다.

캐나다 왕립음악원(RCM, The Royal Conservatory of Music)의 원칙인 “음악과 예술의 교육에 대한 리더십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을 키우자”와 보유하고 있는 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자원을 간주해 보았을 때, RCM이 교육 위기로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엘스터, 2001)



### LTТА의 철학적, 실용적 기반

LTТА에 대한 이론과 연구논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a) 그 무엇보다도 예술을 창작하는 경험은 본질적으로 동기부여가 된다. (칙센트미하이, 1996) 또한,
  - 상상력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다. (예, 그린, 1995)
  -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을 열어준다. (예, 그린, 1995)
  - 사회성 기술, 커뮤니티, 공감,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 패트슨, 2010; 바이, 2004; 디사나여커, 1995);
  - 더 높은 자기인식, 자부심,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예, 아이스너, 1994; 그린, 1995; 실웨스터, 1998);
  - 학문적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예, 머피, 1995; 세계문화 속 음악, 1996; 유피티스 & 스미스립, 2003; 웰치 & 그린, 1995);
  - 더 높은 사고력, 반영 및 자기 조절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예, 빌하츠 옛 엘, 2000; 위너, 헤트랜드, 비네마, 쉐리던 & 파머, 2005)
- b) 뇌는 가소성이 좋고 평생 동안 변할 수 있다. 학습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참여는 더 깊고 오래 남는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고, 2010);
- c) 그 어떤 학습자 그룹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지능이 있을 것이고, 예술은 학습자가 다양한 역량과 학습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많은 입구를 제공해준다. (가드너, 1983); 또한
- d) 예술창작과 같은 즐거운 학습 경험은 참여도를 높이고 지식 및 재능 습득에 도움이 된다.

### 교사 및 예술가의 전문성 개발

LTТА 프로그램은 학교 학생들에게 무수히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프로그램의 핵심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교사의 예술 개발 프로그램은 제도적, 교육학적, 개인적 문제와 교육과정을 다룬다. (오렉, 2002) 자신이 예술에 있어서는 초보라고 여기는 시점부터 수업 중에 예술적 재능과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느낄 때까지 대개 수년이 소요된다. (패트슨, 2004; 유피티스, 스미스립, & 소렌, 1999)

LTТА는 특별 훈련을 받은 예술교육가를 교실에 배치한다. 배치 받은 예술교육가는 교사와 함께 창의적으로 협력하여 일자리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포함한 예술 기반의 수업을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제공한다. LTТА에서 훈련을 받고 필수적인 커리큘럼을 가르치는데 도움 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한 배우, 음악가, 화가, 무용가, 작가들은 예술을 주입한 수업 방식을 통해 비예술 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활동을 펼치며 활기차고 참여도 높은 수



업 방식을 개발한다. 또한 LTTA는 다양한 교사 훈련, 컨퍼런스, 워크숍 등을 통해 교육자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사와 협력하는 LTTA의 예술교육가는 3년 이상 일련의 교과목 단위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받는다. 또한, 이러한 훈련을 마친 후에도 매년 추가적으로 42시간 동안 훈련 및 신입 예술교육가 멘토링을 통해서 새롭게 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넓힌다. 교육전문가가 참여하여 예술교육가 훈련을 지도한다.

다음은 LTTA 예술교육가가 훈련 중 경험한 교육 내용이다.

- 학습 이론
- 수업 계획
- 교수 전략
- 예술 형식과 학습적 목표 간의 의미 있는 연관성 형성
- 아동 및 청소년 연령별, 단계별 개발
- 학교 문화 이해
- 교사와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
- 수업 관리
- 수학, 국어, 과학, 사회 커리큘럼 이해
- 문화적 감각 및 지식

LTTA 모델에서 교사는 커리큘럼 전문가로, 예술교육가는 예술 전문가로 인식된다. 교사와 예술과는 다음의 과정을 협력적으로 추진한다.

- 최초계획 수립 회의에서 교사는 구체적인 커리큘럼 목표를 전달하고 예술가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예술형식을 제안한다.
- 예술교육가는 학습을 발전시키고 예술교육가의 다음 방문을 대비하여 학생들이 더욱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교사 활동 및 일련의 수업 계획을 제공해준다.
- 예술교육가는 한 시간 반씩 총 4회 수업에 참여한다. 방문 후 예술교육가와 교사의 보고를 받는다.

앞서 말한 활동을 완성하는 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된다. 교사는 같은 학년도에 각기 다른 예술교육가와 함께 전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며 연 1회 개최되는 LTTA 프로그램에 4개월 동안 참여하게 된다. 학교는 교사가 최소한 3년간 LTTA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유는 LTTA 연구 결과에 따르면 3년간 교육을 받아야 교사들은 필수적인 교육학적 수업을 예술에 기반을 두어 진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트슨, 2004, 2005; 유포티스 & 스미스럼, 2003)

캐나다 전국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LTTA는 토론토에서 시작되었지만 각 지역 LTTA 관리자 및 예술교육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LTTA는 철저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성공과 관련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 평가 및 연구

LTTA는 1994년부터 약 60건에 달하는 연구를 실행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LTTA가 참여자의 인지능력, 감정,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일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일부 연구 결과이다.

- 6000명 이상의 캐나다 학생과 교사가 참여한 연구에 따르면 (1999-2002), LTTA에 3년간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수학에서 11%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회와 국어 수업에서도 더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모든 LTTA 관련 연구에서 학생들은 예술에 기반을 둔 교육을 받았을 때 습득한 지식이 더 오래간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 교사, 부모, 학생들은 예술에 기반을 둔 학습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더 높다고 답했다.
- 수업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왔던 학생들이 LTTA 수업에선 리더 역할을 수행했다.
- LTTA는 학생들이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오게 만든다.
- 학생들은 예외 없이 체육과 예술을 가장 좋아하는 과목으로 꼽았다.
- 학생들은 LTTA 수업을 통해 자신감과 자부심을 얻었다.
- LTTA의 새로운 미디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미디어가 전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을 개발했다.
- 위치 기반 미디어 및 예술을 활용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더 아끼고 애착을 가지게 된다.
- 캐나다 원주민 학생들은 예술 기반 학습에서 성장을 보인다.
- 교사들은 LTTA 수업 중 발견한 학생들의 기쁜 표정을 보고 영감을 받는다.
-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예술을 경험하길 희망한다.
- 학생들이 LTTA 프로그램에서 얻은 것들은 사회적 생활과 기타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

## 지역사회 프로그램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은 LTTA의 학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그 외, LTTA는 많은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LTTA는 캐나다의 가장 큰 의과대학에 예술에 기반을 둔 학습을 제공하였다. 의학적 맥락에서 보자면, LTTA는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노인 의료 센터와 협력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하며 캐나다의 유명한 소아과 병원의

신경과학자와 협력하여 LTТА의 음악 기반 프로그램이 아동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LTТА는 온타리오 주에서만 60개 이상의 사회서비스단체와 함께 정신질환, 가난 등 삶에서 마주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술 기반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LTТА는 한 주의 법무부와 다른 주 교육부의 공조 하에 비행, 자퇴 등의 위험에 처한 청소년에게 예술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LTТА는 사회서비스단체와 함께 국제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서 9개의 비정부 기관이 보호하고 있는 부모가 없는 아동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본 프로그램에는 NGO, 미국 남가주 대학, 캄보디아 파나사스트라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의 기금 제공자도 참여하고 있다.

### 맥락적 요구 충족

LTТА의 성공 뒤에는 맥락적 요구를 충실하게 충족했던 대응력이 있었다. LTТА는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연구를 실행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프로그램에서 개인 및 지역사회 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LTТА는 교육을 실시하는 지역 출신의 예술가를 고용하여 예술교육가로 훈련시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을 전달하고자 하는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요구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알버타 북부 지역의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의 경우, LTТА는 약 30명의 원주민 예술교육자를 고용하여 훈련시켰고, 현대적 예술뿐 아니라 전통적 예술을 사용하는 예술 기반 교육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LTТА 수업과 활동은 문화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게 되었고 학문적, 사회적 성공을 도모하고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LTТА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모금원

다음은 LTТА 프로그램에 쓰이는 기금 모금원이다.

- 학교 예산 및/혹은 학부모 위원회
- 주 교육부, 문화부, 법무부
- 기업
- 재단
- 지역 및 주 예술 위원회

## 캐나다 외 지역의 LTTA 활동

캐나다 외 지역에서 LTTA를 펼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 방법은 교사 및 예술교육가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 기반 교수법 수업에서 참여자는 예술에 기반을 둔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전략,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LTTA는 싱가포르, 일본, 독일, 캄보디아, 이탈리아,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2주 수업을 제공해왔다.

교사 전문성 개발과 지역 출신 예술가 훈련을 한데 묶는 것이 현명한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교사는 교실에서 필요로 하는 예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LTTA는 독일의 한 팀과 함께 예술교육가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 독일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LTTA의 캐나다 예술가와 교육가가 훈련을 진행했다. 또한 LTTA는 프로그램 영향에 대한 연구 구성, 실행, 발표 방법에 대한 지침서를 LTTA 독일에게 제공한다. LTTA 독일의 예술교육가, 교사, 연구원들이 프로그램 전달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하게 되면 LTTA 캐나다의 지원 없이 직접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 끝맺는 말

LTTA는 캐나다에 있는 단 하나의 예술기반 이니셔티브는 아니다. 다른 전문적인 예술 그룹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많은 단체는 LTTA 모델을 도입하고 있고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더 많은 예술 경험을 제공할수록 좋다.

그러나 LTTA는 인프라의 힘, 예술을 비예술 콘텐츠에 적용하는 전문 기술, 교사와 예술가가 예술 기반 교수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연구 및 평가, 전 세계적인 활동 범위 등을 간주해볼 때 유일무이한 이니셔티브이다.

행복하고 존중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재능을 갖춘 시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술의 힘을 믿는 교육자와 함께 할 수 있고 LTTA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이다.



**아이리앙 추아**  
**Ai Liang Chua**

싱가포르, 지역과 학교변화를 위한 예술교육의 지원  
National Efforts for Implementing Arts in Education

SISAC

## **“National Efforts for Implementing Arts in Education” Arts Education for All - Developing A Continuum for Arts Engagement**

Ai Liang Chua / Director of Arts and Community,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 **Introduction**

The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was set up in 1991 to spearhead the development of the arts. Its mission is to nurture the arts and make it an integral part of peoples' lives. Anchored on the twin strategic framework of excellence and engagement, the Council aims to build a vibrant arts sector where the arts is accessible to everyone and artistic talents are supported to excel and develop distinctive body of works that enrich our cultural development.

Engaging the community in the arts is not limited to broadening and developing an arts audience but also extends to people's involvement as active participants; experiencing the arts through deeper engagement. To achieve this, the arts is introduced to the children from young and also brought to the community to enable more people to appreciate the arts and to have first hand experience.

### **Arts in Schools**

The Council works in tandem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t the policy and school levels to develop arts pedagogy and programmes for both education in the arts and education through the arts. Its Arts Education Programme was first mooted in 1992 and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learning experiences that engage the mind, heart and body. Besides instilling in them an interest in the arts, it also develops life skills such as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and civic consciousness. A 3-E framework that embraces a broad spectrum of arts forms and programmes was adopted to provide a diversity of experiences for students. This complements the Ministry of Education's general arts curriculum.<sup>1)</sup>

Annually some 300 or about 90% of Singapore schools subscribe to more than 2,000 arts programmes under this framework. The 3-E refers to Exposure, Experience and Excursion programmes. Exposures are introductory programmes to raise students'

---

1) The General Arts and Music curriculum is mandatory to all students in Primary and lower Secondary education (aged 7 to 14 years).

awareness of the performing, visual and literary arts including film and multi-disciplinary art forms. These are usually short 30 – 45 min performances held during school assemblies. Experience programmes are typically workshop-based activities tailored for a smaller group of students to gain insights into the form and technique. Students are able to interact with artists to experiment with different media to conceptualise and implement their ideas. In recent years, the Council has placed greater emphasis on supporting Excursions that bring students to arts spaces and venues to attend quality programmes; to engage students in critique and discussions. This is an important component for building arts-going culture among the young.

We believe that the 3-E framework is important as students nurtured on a rich diversity of art forms and experiences are more open and receptive to creative and cultural practices. They develop a more inclusive perspective to appreciate the cultural diversity in Singapore and globally. Learning different art forms also stretches students' mind and learning capacities. They are able to discover their strengths and can be recognised for different talents and skills. This takes reference from various discussions on Gardner's theory of multi-intelligence where the arts should be encouraged for learning and in providing an environment where diverse learners can excel. The arts is a powerful tool that engages people and expands their imagination, creativity and capacity in critical thinking. It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education and in developing the individual for the 21st century.

To this end,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identified schools as Centres of Excellence to give greater impetus to the development of students' skills and talents. Specialised resources and expertise are allocated to raise the overall quality of education and the efforts and achievements of these Centres of Excellence serve the purpose of benchmarking. Their best practices are shared with other schools to help hone and reflect upon processes and practices that would best benefit and stretch the ability of students.

To recognise schools' achievements and different levels of progression in arts education, the Council confers the National Arts Education Award.<sup>2)</sup> Schools applying to this Award use a self – scoring framework that guides them in developing their policies for arts education and in their plann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cesses.

---

2) National Arts Education Award recognises schools with a coherent and integrated approach to achieve their goals of arts education. They are committed to the processes that sustain achievements in the arts. The framework covers 3 domains: School Policy and Planning, Implementation of Programmes and Arts Achievement and Culture. In this 3-tier award, schools are conferred awards (Spark, Glow or Blaze) according to their progress and development. For schools in the highest category of award, apart from having sound processes and structures in place to support a vibrant arts culture, they would be required to champion arts and contribute to community and also lead and assist other schools in their arts development.



### Case study on an emerging trend

There is an emerging trend among many more schools to integrate the arts into the curriculum as foundational skills for their students at various formative stages. Schools are also interested to develop arts as a pedagogy tool for the teaching of academic subjects. This has seeded some collaborative residency projects between teachers and artists. The Council supports such partnerships as they offer teachers access to resources and expertise from traditional to contemporary arts practices. This continually refreshes and broadens students' arts perspectives. Often, artists in the schools are able to engage the students in a less structured environment, providing greater impetus and inspiration to students in their learning journey. With a small but growing pool of artist-educators, it will bring new creative synergy to arts education in school.

The following case study illustrates a partnership programme between teachers and artists and its impact on students. Ang Mo Kio Secondary School, a public school in Singapore collaborated with a group of artists-educators since 2005 to implement an integrated arts programme that provides drama and dance as a foundation programme for all students in their year one and two of study (aged 13 to 14 years) during curriculum time. This is in addition to their art and music core curriculum. This multi-disciplinary programme culminates in a biennial school festival called NOMAD (Night of Music, Art and Dance) that is participated by the entire school using various spaces within the school to present the works of the students.

This integrated arts programme has enabled students to better appreciate the arts and culture and explore elements such as creative thinking and spatial concepts. Through feedback gathered from students and teachers' observations, it was further noted that there were also positive outcomes in team building and development of social and emotional skills. The transformative effect of the arts was also further observed to be more significant among the normal academic and normal technical<sup>3)</sup> students who are more kinesthetically inclined. The challenge currently is the lack of evidence based study and longitudinal research to demonstrate the impact of such programmes. Moving ahead, this will be one of the key developmental areas of the Council.

The Ang Mo Kio Secondary School has been working with the same group of artists since 2007. The long term collaboration has enhanc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ists and school, and led to better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requirements. As such, the artists are able to tailor the programme according to the school's and students' needs and improve on the challenges faced in the previous years. These artists have built up a good

---

3) At the secondary level, students are placed in the Express, Normal (Academic) or Normal (Technical) course based on their score of the national examination at the end of 6 years of primary education. The different curricular emphases are designed to match their learning abilities and interests.

rapport with both teachers and students. They are regarded as teachers as well as role models for the students. Many students who have graduated from the school have returned to support and volunteer for this biennial festival. An interesting development to this programme is an extended community project to reach out and connect with the community in the neighbourhood. Increasingly, schools are adopting an outreach perspective to reach out and also bring the community into the school. Working with the community encourages an education that is rooted in our living heritage. It also expands the concept of schools as a community space.

### **Arts in Community – Changing Perspectives**

Arts in the Community provides a continuum for arts engagement where the arts are valued for its transformative power on the individuals and community; to bring about social good such as bonding, integration and well being, raise the quality of life and strengthen our cultural heritage and identity especially in today's globalised world.

In developing arts in community, we can broadly define it as embracing all creative activities that bring people together; giving them the opportunity to gain new skills, nurture their potential to be creative, to express, to have fun and enjoy themselves through the Arts.

To do so, we also recognise that an inclusive approach has to be adopted and we should be open to what constitutes “the arts” at the community level. The population is not homogenous. Each population segment has different perceptions, interests, priorities and social conditions. It is thus important that arts in the community are also differentiated for various communities for children, young adults and senior citizens.

Where in the past, the Council's community arts strategies concentrated on supporting performance-based activities for the general public, today the approach is more targeted and facilitative. The Council's approach is underpinned on the notion that arts participation should be interactive and a process-based participation that informs and empowers the individual is important to developing sustained interests and ownership.

People-led initiatives and programmes that bring people with common arts interest together can lead to formation of “arts interests” groups. Such “arts interests” groups will foster learning and more important friendships through shared experiences. These groups can proliferate to form networks. A case in point is a drumming network that was seeded by the Council in 2010 in partnership with community organisations. Within a year, the network has 16 member groups formed and led by people with no prior encounter with the arts. Drumming has a low entry barrier and anyone without prior music background can participate. It is an activity that one can enjoy together with

family and friends. The Council will continue to develop engaging arts content to seed networks of different genres. The notion of networks is similar in essence to how various communities are formed through the social media.

### **Conclusion**

Arts Education is critical for life-long learning. It fosters awareness and appreciation of our cultural heritage and it can also impact people's lives. We should ensure Arts Education is available to all and facilitate people to find meaningful engagement with the arts at a level that they can enjoy and be enriched by the experience. The quality of engagement is therefore important and developmental work in areas of training, evidence-based research, cultivating partnerships within the community as well as across different sectors in the society are critical to expand the growth and mindshare of this sector

## “싱가포르, 지역과 학교변화를 위한 예술교육의 지원” 모든 이를 위한 예술교육 - 지속가능한 예술참여방안의 개발

아이리양 추아 / 싱가포르 예술위원회 예술과 지역부서 총괄 디렉터

### 서 론

싱가포르는 1991년 예술분야 발전을 선도해 나갈 국립예술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예술 감각을 고취시켜 예술을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취지다. 국립예술위원회는 우수성과 참여라는 두 가지 전략에 바탕을 두고 국민 모두가 예술을 손쉽게 즐기고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지원하여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대중이 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예술 저변이 확대되고 능동적 참가자로서 심도 깊은 참여를 통해 예술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예술을 소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감상하고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다.

### 학교에서의 예술

위원회는 교육부와 협력 하에 예술 교육과 예술을 통한 교육 모두를 위한 예술 교수법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과 수준을 결정한다. 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1992년 처음으로 구상되어 학생들을 위한 심, 신, 체를 통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예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비판적 사고, 창의력, 윤리의식 등의 생활 기능을 개발한다. 다양한 예술 분야와 프로그램을 총망라 하고 있는 3E 체계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또한 3E 체계는 교육부 전체 일반 예술 교육과정<sup>1)</sup>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싱가포르 전체 90%에 달하는 300여 개의 학교에서 3E 체계 내의 2000여 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3E란 Exposure, Experience, Excursion의 앞 글자로 노출, 경험, 견학을 뜻한다. 노출(Exposure) 프로그램이란 영화나 통합교과적 예술 형태를 포함한 공연, 시각, 문학예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개론적인 프로그램이다. 학교 조회 시간 동안 30-45분의 짧은 공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험(Experience) 프로그램은 전형적인 소규모 학생 그룹 맞춤형 워크숍

1) 초등학교 및 중등 저학년 교육(7세-14세)에서 일반 미술과 음악 교과과정은 필수 과목이다. 일부 학교는 일반 교과과정을 중등 4학년(16세)까지 실시하고 있다. 지정된 중등 고학년 및 고등학교(15-18세)에서는 미술, 음악, 연극이 선택 과목이다.

위주의 활동으로 학생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 형식과 기법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 학생들은 여러 다른 매체를 경험함으로써 예술가들과 교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개념화하고 구체화 해볼 수 있다. 최근 위원회는 견학(Excursion) 프로그램 지원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양질의 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예술 공연장에 데리고 가고 예술 비평 및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더욱더 예술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한 형식의 예술을 학습하고 경험한 학생들이 창의적, 문화적 관행에 더욱 더 개방적이고 허용적이기 때문에 3E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3E체계를 통해 학생들은 국내외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다. 여러 가지 다른 예술 형태를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 및 학습 능력도 배양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발견하여 자신들이 가진 다양한 능력과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예술을 통한 학습이 필요하고 예술을 통해 학습자들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연구를 참조하였다. 예술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상상력과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능력을 확장시키는 아주 강력한 도구이다. 이러한 예술 교육은 21세기형 인간을 만들어 내고 교육하는데 있어 막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수월성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학생들의 기능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촉매를 제공하였다. 특화된 자원과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전반적인 예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월성 거점학교의 성과가 많은 학교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다. 이들의 선진사례는 타교 학생들도 예술교육의 혜택을 향유하고 능력을 연마할 수 있는 예술 교육 과정과 관행 선진화를 위해 함께 공유되었다.

위원회는 각급 학교의 예술 교육 진행 수준과 성과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국가 예술 교육상<sup>2)</sup>을 제정하였다. 수상을 희망하는 학교는 자체 채점 기준에 맞추어 자교 예술 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기획, 조사, 평가 프로세스를 결정한다.

### 발전동향사례 연구

점점 더 많은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예술을 학생들의 기본적 능력으로서 교과 과정에 접목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학교들이 학과용 교수법 도구로 예술을 이용하는데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결과로 교사 예술가간 협업 상주 프로젝트가 여러 개 생겨났다. 위원회에서는 파트너십을 통해 교사들이 전통예술 및 현대예술의 자원과 전문성을 쉽게

2) 국가 예술 교육상은 예술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일관되고 통합적인 접근법을 사용한 학교에게 수여된다. 이들 학교는 예술 성과를 지속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열과 성을 다한다. 수상내용은 교내 정책 및 기획, 프로그램 실행, 예술 성과와 문화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진행과 발전 수준에 따라 Spark, Glow, Blaze상을 각각 수상하게 된다. 건전한 프로세스와 구조를 가지고 예술 문화 활성화에 앞장선 최우수 학교는 예술교육을 표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타 학교의 예술 발전을 돕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시각을 새롭게 하고 확대시키고 있다. 때로는 예술가들이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좀 더 큰 자극과 영감을 주기 위해 조금은 덜 구조화 된 환경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아직은 협소하나 계속 증가하고 “예술교육가(artist-educators)” 전문 풀은 학교 예술 교육에 새로운 창의적 시너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다음 사례 연구는 교사와 예술가간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학생에게 주는 영향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싱가포르 공립학교인 앙 모 키오 중등학교는 2005년부터 “가르치는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1,2학년(13,14세) 정규 과정 학생들의 기초 프로그램으로 드라마와 무용을 제공하는 통합 예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 핵심 교과 과정인 미술과 음악과목에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통합교과적 프로그램에서 같고 님은 실력은 격년으로 열리는 노마드(NOMAD, Night of Music, Art and Dance)라는 학교 축제에서 공연되고, 전체 학교는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실로 사용 된다.

통합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예술 및 문화 감상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창의적 사고와 공간 지각능력 같은 요소들을 수련하게 된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관찰을 통해 집계된 피드백을 통해, 사회적, 정서적 기능 개발 부문과 단체 활동 부문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술의 혁신적인 효과는 감각적 학습 성향이 높은 일반 인문 과정과 일반 기술 과정<sup>3)</sup> 학생들 사이에서 더욱 많이 발견되었다.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 기반 연구와 종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 부분이 위원회의 주요 개발 영역이 될 것이다.

앙모 키오 중등학교는 2007년부터 같은 예술가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장기적인 협업을 통해 예술가와 학교간 관계가 증진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예술가들은 학교와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고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었다. 예술가들은 학생, 교사 모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롤 모델이자 교사였고 축제기간이 되면 학교 졸업생들이 학교를 방문해 자원 봉사를 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전은 공동체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사회와 연계하였다는 점이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함으로써 생활 터전에 뿌리를 내리는 교육을 지향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학교를 지역공동체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 공동체에서의 예술-관점의 변화

공동체 예술 즉, 커뮤니티 아트는 예술이 개인과 공동체에 혁신적 영향을 미치는 참여 예술의

3) 싱가포르는 초등학교 졸업시험(PSLE)을 통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성적에 따라 '속성과정'과 '일반인문과정, 일반 기술과정'으로 나누어 학습 능력 및 관심별로 수업을 진행한다.



연장체가 되고 있다. 공동체 예술을 통해 유대감이나 동질감, 웰빙 같은 사회 가치관을 이룰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화 된 세상에서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다.

공동체 예술이란 광범위하게는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예술을 통해 즐겁고 유익할 수 있는 모든 창의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접근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지역 공동체 차원의 예술에 대한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인구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 모두 다른 개념과 관심, 최우선 과제와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 예술 역시 다양한 공동체 내의 어린이, 청소년, 노령인구들을 고려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위원회 공동체 예술 전략이 일반 대중을 위한 공연중심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오늘날의 접근법은 좀 더 그 목표대상이 뚜렷하고 함께 호흡하는 쪽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 참여는 상호 교류적이어야 하고 개개인에게 정보를 주고 직접 참여하게끔 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 접근법의 근간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신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주인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공통적인 예술적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결집하게 해주는 시민 주도의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들을 통해 “예술 이익”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 예술 이익 집단은 함께 공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하고 친밀도를 높이게 한다. 이러한 집단이 더욱 확대 성장하여 네트워크를 이룰 수도 있다. 위원회가 2010년 지역단체 조직과 파트너십을 맺고 발족한 드럼 동호회 (Drumming Network)가 좋은 예이다. 이전에는 전혀 예술을 경험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주도 하에 1년 만에 네트워크 내 16개 회원 단체가 설립되었다. 드럼 동호회는 이전에 음악적 백그라운드도 없어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다. 위원회는 계속하여 예술 콘텐츠를 개발하여 여러 다른 장르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생겨난 다양한 공동체와 유사하다.

## 결 론

예술 교육은 평생 학습에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인식하도록 하며, 사람들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예술 교육은 모든 이가 즐겨야 하는 것이며, 예술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수준에 맞는 의미 있는 예술 활동 참여를 이끌어 내고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예술 참여는 훈련, 증거기반 연구, 공동체 파트너십 성립에 있어 아주 중요하고 발전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각 부문별 인식과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SISAC



SISAC

**안호상**  
**Hosang Ahn**

예술교육과 서울의 변화  
Changes of Seoul by Creativity and Arts in Education

SISAC

## “예술교육과 서울의 변화”

- 서울문화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

안호상 /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Live Singapore 국제자문이사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 세계가 지역과 문화, 인종과 나이,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어 소통과 화합을 향해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 세계 경제지표를 움직이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기술 발전은 놀라울 뿐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에도 우리의 감성은 메말라가고 있으며 치열해진 경쟁은 우리 사회를 화합보다는 갈등으로, 소통보다는 단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치유가 필요한 시대이자 ‘나’를 잃어버린 위기에 우리는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문화와 예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홀히 취급받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한 개인의 삶을 바꿀 수도 있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에 초석이 되는 ‘근원적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 힘의 정체가 ‘창의성’이라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문화예술은 늘 그 역할을 담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레 집중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예술교육과 서울의 변화’라는 주제로 저는 그동안 제가 고민해온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서울이 이런 글로벌 환경 속에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지속 성장하도록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 공유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원천으로서 예술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와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예술교육을 지원할 의무와 책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김하고자 합니다.

### 1. 시대적 요구와 서울의 변화 : 서울문화재단의 설립과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사회는 7-80년대 고도의 압축 성장과 8-90년대 민주화 열풍을 거쳐 지난 10여 년 간 소득수준의 향상과 그에 따른 폭발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과 수요를 목격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발맞추어 서울시민의 행복과 도시 발전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두고 시대적 요구를 발전적으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축제 등 지역성을 반영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그런 시대적 흐름과 요구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서울문화재단이 설립

되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을 대표하는 전문 문화예술지원기관이자 예술을 매개로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에서 지속성장 가능한 가치와 발전요소를 발굴 육성하는 창조집단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설립 이래 ‘인적자원’에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도시는 인프라를 제공하지만 사람은 인프라를 채우고 운영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차별화된 새로운 콘텐츠는 도시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창출하기도 하며 때론 세계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아이폰, 트위터, 페이스북, 유럽에까지 미친 한류열풍 등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서울의 변화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로 이제 8년차에 접어든 우리 재단은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요구의 시대에 서울시가 가진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계 제일의 창조문화도시 서울을 만든다”는 미션과 “서울 시민 모두가 예술에 참여하게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서울 전역에 걸쳐 50여개 주요사업과 13개소에 이르는 문화시설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천만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고 생활 속에 스며드는 문화예술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이나 ‘책 읽는 서울’, ‘서울시 창작공간’과 ‘창의예술교육’ 등은 ‘모든 서울 시민이 문화적으로 풍부한 삶을 느끼며 예술의 창조자’가 되도록 서울문화재단이 추구해온 가치와 믿음의 흔적을 잘 드러내준다 하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5대 사업분야>

- 1) 예술지원 : 시민예술활동지원 및 예술창작지원, 유망예술가육성지원, 예술로희망드림프로젝트 등
- 2) 예술교육 : 어린이·청소년 창의예술교육, 전문예술교육가(TA) 양성, 문화매개자 창의교육운영 등
- 3) 문화사업 : 서울거리아티스트, 책 읽는 서울, 고궁뮤지컬, 서울문화예술탐방 등
- 4) 창작공간 : 서울시창작공간(9개소) 및 서울연극센터,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대학로연습실 등
- 5) 축 제 : 하이서울페스티벌, 청계천축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그 결과, 서울은 현재 연중 300여개 이상의 문화예술축제 및 행사가 개최되는 아시아 최고의 문화도시이자 세계적인 문화예술인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공동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제적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뛰어난 문화인재들의 노력과 문화예술을 내재적으로 열망해 온 서울시민의 열정 덕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향해야 할 예술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서울문화재단이 추구하는 예술교육의 지향점

: 문화 감수성이 높고, 사회에 공헌하는 창조적, 통섭적 인재의 양성

서울문화재단이 추구하는 예술교육을 ‘창의예술교육’으로 특별히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인 교육 지향점이 예술을 매개로 하여 삶을 풍성하게 하고 건강한 시민사회 구현을 위한 가치를 공유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창의예술교육 철학은 2007년 ‘3C 모델’로 정립되었는데 즉, 예술을 통한 창조적 지성(Creative Intelligence)과 문화적 감성(Cultural Sensitivity), 그리고 사회공헌적 인성(Contributive Humanity)의 가치를 예술교육이 지향해야 할 3개축으로 삼아 지성과 감성, 인성을 겸비한 인적자원을 길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단절과 치유의 시대적 필요성과 함께 도시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점차 글로벌화 되고 다문화적인 생활의 요소가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는 차이가 갈등이 아니라 향유할 수 있는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지고 다름 속에서 조화로운 창의적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 환경과 사회 문화는 아직도 <다름에 대한 인정>, <모호함에 대한 열린 태도>, <관찰과 질문을 통한 열린 가능성의 탐구> 등에 대해 경계적이며 서투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문화적 감수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감성과 인성교육에 일찍부터 주목해왔으며, 상상력, 창의성, 혁신이라는 3가지 핵심역량을 추구함에 있어 철학적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노력에서부터 점차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예술교육이라고 하면 보통 기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실기교육을 지칭해온 것이었는데, 앞서 살펴본 근래의 글로벌 환경 속에 문화의 영향력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면서부터 예술교육이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예술적 이해력을 넓혀주고 다른 관점에 대한 수용성을 확장해줌으로써 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사고, 창조적 사고를 가능케 한다는 광의의 ‘교육 방법론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술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예술은 새로운 실험과 가능성에 대해 열려있습니다. 누구나 예술을 감상하고 평할 수 있으며 누구나 스스로 예술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술의 특징을 가지고 다양한 장르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체험과 예술가의 창조적 활동(방식)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봄으로써 우리는 나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예술작품’으로 표현되는 ‘다른 사람의 가치’, ‘나와 다른 시도와 표현’에 대한 존중과 공감대의 확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에 기초해 삶 자체에 대한 개인의 가치 기준과 행동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창의적인 문화가 샘솟도록 하는’ 진정한 예술교육의 힘이자 효과일 것입니다.

특히 변화를 수반하는 교육 효과는 개인의 자아발견 차원에서 나아가 폭넓은 문화이해력 (Cultural Literacy)을 증진시켜 다름을 인정하고 늘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 필요한 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서 서울문화재단은 실제적으로 예술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술적 체험이 상상력과 창의력의 계발,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타인과의 소통능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이 문화예술의 창조자로서 발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오면서 이에 특별히 고안된 미적(美的)체험(Aesthetic Experience) 방식의 교육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40년간 세계 최고의 예술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온 미국 뉴욕의 링컨센터 예술교육원(Lincoln Center Institute)과 아시아권 최초의, 유일한 전략적 제휴(MOU)를 2009년 체결했습니다. 존 듀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 석학이자 현존 하는 세계 최고의 교육철학자인 막신 그린 박사의 ‘미적체험교육(Aesthetic Education)’의 철학적 바탕아래 탄탄하게 발전해온 링컨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은 우리 고유의 문화적 특성과 현실,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알맞게 미적체험교육의 철학과 방법론을 수렴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장르 간 통섭적(interdisciplinary) 활동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가능성의 탐구를 통해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의 발상과 교류(소통)를 원활하게 하고 여러 장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인문학적 사고의 지평을 확장해주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교육 내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교사 교육프로그램의 대안으로도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인재는 ‘T자형’ 인재라고들 합니다. 즉,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면서도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인재는 창의성과 함께 유연성을 겸비해야 할 것이고 그 능력은 예술을 매개로 한 통섭적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계발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서울문화재단은 ‘미적체험’ 방식에 기초한 예술교육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 3. 서울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사업의 발전

서울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사업은 재단 초창기부터 운영되어 온 핵심사업 분야로서, 지난 6년간 고유의 철학과 방법론을 개발하고 확립하기 위한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간략히 그 역사와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1) 창의예술교육 제1기(2005~2007): 예술가를 교육가로, 예술교육가 양성의 기반 확립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예술 강사 파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제1기(2005 ~ 2007년)에는 재단 고유의 예술교육철학의 기초인 ‘3C 모델’을 개발하고 당시 시범 운영된 ‘방과 후

창의예술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를 교육가로 거듭나게 하는 'TA(Teaching Artist) 양성과정' 운영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즉, 적절한 인적자원의 양성과 확보를 통해 지금까지 재단이 수행해 온 차별화된 사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2) 창의예술교육 제2기(2008~2010):

### 교육대상 및 사업의 확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와의 협력

이어, 창의인재 육성과 연계해 예술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던 제2기(2008~2010년)에는 복지 차원의 예술교육에서 탈피해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 공무원, 노인,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탐구를 통해 대상별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나아가, 재단 고유의 예술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문연구를 추진하여 교육사업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규모 확대와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예술교육을 통한 공교육의 발전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전략적 업무제휴(MOU)를 체결하고 서울시내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재단 소속의 창의예술교육 전문가(TA : Teaching Artist) 파견, 청소년 문화예술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예술가 사회공헌적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다양한 민간 예술가와의 협력과 더불어 공교육 체제와의 공식 협력을 통해 모두가 득이 되는 실용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입니다.

아울러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문화예술 체험 요구와 높아진 서울시민의 문화수준을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서울시 창작공간'을 서울 전역에 걸쳐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공간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수요를 반영한 공간 고유의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면서 "지원 + 교육 + 사업"이라는 문화예술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예술 강사 지원사업의 서울지역 운영주체이자 광역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서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앞서 소개한 우리 재단의 창의예술교육이 성공적으로 전개되면서 서울의 긍정적, 발전적 변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 3) 창의예술교육 제3기(2011~ ): 체계적, 안정적 예술교육 공급의 기틀 확립

올해 2011년,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창의예술교육을 '서울창의예술학교'라는 통합브랜드로 구축했습니다. 재단 예술교육사업의 청년기라 할 수 있는 제3기를 시작하면서 서울문화재단은 보다 높은 질의 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보다 친근하게 시민에게 다가서며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대상별 교육요구의 세밀한 파악과 전문교육가 및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공급의 핵심인 교원 질 관리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여, 개인 단위 TA에 대해서는



체계적 양성교육과정 운영 및 과정 종료 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연계해주는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지 교육 영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넘어서서 지역공동체와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에 참여하는 예술교육 기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9차 교육과정 개정으로 올해 전면적으로 실시된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민간 예술단체들이 학교 공교육 교과과정(창의적 체험활동)에 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매칭 지원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예술단체들의 활동기반을 확대하기도 하지만 학교 과정 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공교육 내 부족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회를 확대하고 자생력 있는 창의예술교육 시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서울문화재단이 창의예술교육 분야에서 발전시켜온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서울문화재단의 창의예술교육사업은 4개 핵심영역 - ① 공교육 지원, ② 전문가 양성, ③ 창의시민 육성, ④ 창의거버넌스 구축 - 에 걸쳐 15개 주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공교육 지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 전략적 업무제휴에 기반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내 초등돌봄교실 300개 대상으로 연간 TA 33명을 파견 지원하는 통합적 창의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올해 하반기 강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40개 학급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정규교과(5학년 2학기 국어교과)와 연계한 창의예술교육 수업 운영,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내 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 학교’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특수 분야 직무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교사 대상 ‘통합예술교육을 통한 상상력과 창의력 계발’ 연수사업, ㉤마지막으로 500여 명의 서울지역 예술강사 운영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TA 양성과정 운영 및 체계화 연구, ㉡인턴TA제도 운영, ㉢해외 문화예술교육기관 연수 및 교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③ **창의시민 육성**을 위해서는 ㉠공공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매개자’ 창의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서울시민의 문화이해력 제고 및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문화 예술교육지원사업’, ㉢노령화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예술교육으로 추진되는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보편적인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일상에서 만나는 예술’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사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창작공간 9개소에서는 연간 200여 개 프로그램이 450회 이상 운영되면서 서울시민의 창의력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예술가와 시민을 연결하는



점점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책 읽는 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소개된 ‘나는 시민배우다’는 누구나 한번쯤 꿈꾸어보았을 무대에서의 도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하고 예술을 통한 색다른 삶의 활력을 제공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④ **창의거버넌스** 구축은 국내외 전문가 및 기관과의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재단의 창의예술교육사업이 보다 풍성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예술교육의 효과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게 될 이번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심포지엄’, ㉡교사, TA 대상의 ‘교육적 상상력 계발’을 위해 링컨센터 예술교육원과 공동개발 및 운영하는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 개최, ㉢올해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연극연구소’와 전략적 업무제휴(MOU)를 기반으로 추진한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공연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국내 유일의 예술교육정보자료관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사업>

##### <4대 중점분야별 창의예술교육사업>

- ◎ 공교육 지원 : 어린이·청소년 창의예술교육(돌봄교실 지원, 교과연계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등), 서울시교육연수원 특수분야 직무연수 (2010-2011 연수기관 지정)
- ◎ 전문가 양성 : 전문예술교육가(TA) 양성제도, 인턴TA 지원, 해외 예술교육전문기관 연수 및 교류
- ◎ 창의시민 육성 : 문화매개자(교사, 공무원) 창의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 ※ 시민 접점의 체험형 예술교육프로그램
  - 창작공간 기반 지역과 소통하는 예술교육: 금천(예술가와 1박2일), 신당(나도 예술가), 성북(겨울방학 동네탐험대), 관악(읽는 책, 듣는 책, 보는 책), 홍은(몸, 좋다 / 나에 마을, 나의 마을)
  - 서울시민 전체 대상, 예술적 체험을 통한 문화이해력 제고 프로그램 : 독서프로그램 ‘나는 시민배우다’
- ◎ 창의거버넌스 구축 :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심포지엄(SISAC),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SEW),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예술교육정보자료관) 운영 등

이렇게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창의예술교육의 효과는 작게는 시민 개인의 삶에 변화를 주고 크게는 갈등과 반목의 사회에 행복감 뿐 아니라 화합과 통합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최고 문화도시를 꿈꾸는 서울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문화재단의 창의예술교육을 통해 약 2만여 명의 서울시민이 직·간접적 교육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 수혜인원만 비교하면 처음 예술교육사업을 시작했을 때보다 백 배 가량 늘어난 것이지만 예술교육이 기초가 되는 서울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 서울 시민 누구나 가깝고 쉽게 예술적 이해를 이룰 수 있다면 서울 시민 개개인은 고유의 창의성으로 저마다 매력적인 존재로 변화할 것이며 그러한 서울시민이 사는 우리 사회는 보다 자연스럽게 창의성이 만개하는 풍요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이 국가 존폐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육 방향이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방향성을 합의하기 위한 보다 많은 논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추구하는 예술교육이 이러한 방향성 모색에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의 대안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에 뿌리 내린 예술교육은 교육의 질과 효과를 좌우합니다. 미적체험을 통해 개인의 인식을 바꾸고 실천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도록 하는 예술 교육은 창조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사회는 누구나 살고 싶고 함께 어울리며 끊임없이 보다 즐거운 현재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변화해 가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러한 인재와 지역사회는 다양한 기관, 사회조직, 개인들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많은 노력과 기다림 속에 자라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앞으로 더 많은 열정과 인내를 해야 하듯, 더 많은 예술가와 미래를 걱정하는 교육가, 관계기관의 참여와 후원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Changes of Seoul by Creativity and Arts in Education”

- Focusing on works of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Ho-sang Ahn /

CEO of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Consultant to Live Singapore, Korea

In recent years, we have been experiencing a new culture in which people can use Social Network Services (SNS) to communicate and share their worries with each other and through this, all people in the world experience new way of communication that allow them share their ideas regardless of region, culture, ethnicity or religion. We are living in the world where creative individuals shift the standard of our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form national notion, new ideas moving the global economic indicators with the rapid development in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On the other hand, we are becoming cold-hearted and indifferent to each other, and fierce competition is pushing our society to conflict and severing, rather than harmony and communication. It is safe to say that all of us, facing the risk of losing ourselves, need to find a cure. At a time like this, culture and arts are desperately needed, even though they are neglected at the same time, because culture and arts can transform people's lives dramatically and have the fundamental power to lay a foundation for the long-term development of our society. As people recently started to realize what lies behind this cultural power bringing fundamental change to our society, 'creativity' is receiving sudden high attention and people realize the significance of culture and the arts, which also enjoy the new wave of renewed attention, for 'creativity' in our society although they have been carrying out their same role for a long time.

Today, by taking this opportunity, I would like to share what I have thought about culture and arts for our community. My struggles are mainly on what we can and how we can offer support in order to continuously develop Seoul as a truly cultural city amidst the current challenges and the changes of global environment. Standing at the center of such a change, I feel that we need to share a basic understanding about our goals and development paths. I also want to remind you of the reason why Korea needs arts in education, and I want to stress that all of us should take up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providing arts in education to present a better future and a better life for the next generation.

## 1. Increased Needs for Culture and Arts in Seoul:

### **the establishment of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nd its change**

Korea went through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1970s to 80s and the democratic movement of the 1980s and 90s. Over the past ten years, we have witnessed a soaring demand and thirst for culture and art along with the increase in income. Taking up the needs of the times, the City of Seoul started to support various culture and art projects and plan various cultural events tailored for Seoul. The two goals of the City of Seoul are bringing happiness to Seoul citizens and urban development.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FAC) was founded in 2004, reflecting such trend and needs of the times. SFAC is a pioneering support organization for culture and the arts, and at the same time, a creative group which explores the sustainable values and development possibilities of Seoul through the arts. Since its foundation, the SFAC has strived to find a solution from people, because the city provides the infrastructure, but people are the ones who produce contents to fill and operate the infrastructure. A new and valuable content makes not only cities but also countries competitive, and sometimes this content commands the overall global culture. Some examples are iPhone, Twitter, Facebook and the Korean Cultural Wave which swept Europe recently and the number of those cases is only increasing. In other words, changes in our city, Seoul, are being made by people like you who are living in the city.

For the past eight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the SFAC has striv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alented individuals in Seoul. Under the mission of "Make Seoul the Creative Cultural City in the World" and the vision of "Lead all Seoul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Arts", we are currently moving ahead with fifty projects and operating thirteen cultural facilities in order to meet the cultural needs of the ten million citizens of Seoul and provide culture and art in their life. Some famous events and critical projects such as the 'Hi Seoul Festival', 'Seoul Art Space', and 'Creativity and Arts in Education' show the value and faith that the SFAC has upheld, which is to support all the citizens of Seoul to lead culturally rich lives as artists.

As a result, Seoul has become one of the best cultural cities in Asia which holds about 300 culture and arts related events and festivals annually, and is gaining its reputation globally by conducting active exchange and collaborative projects with global leaders of culture and art. I believe that these achievements were possible thanks to the efforts of talented individuals and the passionate Seoul citizens who have a strong desire for culture and art. The achievements also shed light on the future development path for arts in education.

## 2. Objectives of Arts in Education of SFAC:

### **Fostering Sensitive, Contributive, and Interdisciplinary Citizens**

The SFAC named its main program “Creativity and Arts in Education,” because its aim i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ves and share values with the arts to make healthy communities. In 2007, the SFAC designed a “3C Model” to define its educational philosophy, which stands for Creative intelligence, Cultural sensitivity and Contributive humanity. Based on the these three main values SFAC pursues, it has strived to foster talented individuals who have intelligence, sensitivity and humanity. SFAC's approach delivers critical values and messages to our society, in particular to the society in which experience afore-mentioned social problems such as indifference among people and severing social divisions. Moreover, the importance of creative citizens who can contribute to constructive and positive change to our city cannot be emphasized more. Amid the rapid pace of globalization and the spread of multicultural elements in our lives, people now see the possibility that differences can be enjoyed as diversity, not conflict, and people want to live in harmony with others who make harmonious and creative changes based on their diverse resources.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r society in Korea, however, still witnesses the lack of understanding and accepting differences, opening the mind to the advantages of enduring ambiguity so that it does not impose one correct answer to others, but open to explore possibilities through examination and questioning. In this sense, the SFAC sees the potential what arts and culture can contribute to our society and it has focused on sensi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placing the value of cultural sensibility at the center, and strived to lay a philosophical foundation to pursue the three core abilities of imagination,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Korea, arts education is understood as referring practical classes aiming at improving technical skills in art disciplines. However, amid the changes and needs of global environment explained earlier, people came to realize the influence of arts in education and sees the new possibility by exploring arts in education as effective “educational approach and methodology” to inspire new and creative thinking in people by enriching our lives as well as increasing understanding of others and acceptability about diverse perspectives. Art does not ask for correct answer for its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A work of art is open to new experiments and possibilities. Anyone can enjoy and appraise art, and everyone can be an artist. Upon understanding such characteristics, we can experience changes in perception after experiencing various genres of art as well as the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s of the creative activities of artists and

ours. Moreover, such changes in perception and the process of appreciating the works of art lead us to have stronger bond of sympathy and respect for the value of other people who made trials and projected expressions that are different from mine, which are both expressed in the works of arts.

The pursuit of fundamental change in the personal value of life and behavioral patterns is the power and effect of arts that is linked to respect for diversity and the creation of beautiful and creative cultures. In particular, the educational effects that create space for diverse changes also enhance cultural literacy which contributes to forming a culture suitable for fostering healthy, competitive talented individuals who can accept difference and lead self-initiated lives. Furthermore, the SFAC dreams about changing society through the arts. We focus on the fact that artistic experienc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imagination and creativity, the acceptance of diversity and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In addition, we emphasize its relation to the people who can enjoy culture and the arts have the possibility to develop themselves into creators of culture and art. Bearing these in mind, we designed a method to teach the aesthetic experience.

In 2009, the SFAC became the first organization in Asia to sign an MOU with the Lincoln Center Institute (LCI) of the United States, the renowned art education institute boasting a forty-year history of its professionalism in training teachers and teaching artists. The LCI has developed itself based on the philosophy of aesthetic education of John Dewey and Maxine Greene, one of the greatest contemporary educational philosophers in the world. Collaboration with the LCI has allowed the SFAC to accept and strengthen the foundation of philosophy and the methodology of aesthetic education to meet the needs of cultural characteristics, reality and the times of Korean society. Basically, the SFAC promotes interdisciplinary activities for different art genres, and has been praised for its effectiveness in producing creative ideas, facilitating communication and expanding multidisciplinary thinking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various genres. In this regard, it is a good alternative to the current training programs for teachers that can innovate public education.

People say that in the future talented individuals will be of the “T-type,” which means that they should have a profound and all-encompassing sense of professionalism. These individuals should have creativity and flexibility which we believe can be developed by training through arts in education. We are developing aesthetic education programs based on this belief.



### 3. Development of the Creativity and Arts in Education of the SFAC

Creativity and Arts in Education has been a major project for the SFAC since its beginning, and we have developed our own philosophy and methodology for it over the past six years. Its history and our achievements are as follows.

#### 1) Phase 1 (2005~2007):

##### **Laying a foundation to produce Teaching Artists**

During the first phase (2005~2007), the Support for Arts and Culture Education Act was enacted and an agency that dispatching Teaching Artists was founded. The SFAC developed the 3C Models and piloted the Arts in Education Program through afternoon class in School. SFAC made a first step to lay a systematic foundation for providing training programs for TAs (Teaching Artists). In other words, SFAC put the emphasis on ensuring the quality of our educational programs by attracting and fostering many talented individuals.

#### 2) Phase 2 (2008~2010):

##### **Expanding the targets of education, project scope and cooperation with communities through partnerships**

There was an increasing expectation about the effects of arts in education related to fostering creative talented individuals during the 2nd phase (2008~2010). The SFAC have expanded its target groups for arts in education, through this, not only remain at developing programs for children and youth, but it started to apply aesthetic education to teachers, public officers, senior citizens and multicultural families to explore different target based program. And then developed special programs, beyond the purpose of welfare, the targeted people. Furthermore, we conducted research to clarify the identity of SFAC's program and its main beneficiary target groups through arts in education and to expand and vary the recipients of our educational projects. In other words, we strived to expand our scope and achieve qualitative growth. To support developmental change in public education, in particular, we signed an MOU with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n 2008 and dispatched teaching artists of the foundation to After School Care Program(Dol-bom Gyosil) at elementary schools in Seoul to provide contributive arts in education programs which aim at vitalizing culture and the school club activities for youth. By cooperating with artists and public organizations, we established beneficial and practical partnerships.

In addition, we strategically opened branches of the Seoul Art Space throughout Seoul,

reflecting the soaring demand of Seoul citizens for cultural enjoyment and the arts. We developed unique educational programs which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trict and the demand for culture, and suggested a new paradigm of cultural support in the form of Support + Education + Business. In particular, the Seoul Culture and Arts Education Center was designated as a hub of Seoul's support project for art educators and a base for the arts in education of each metropolitan city in 2009, because the arts in education of the SFAC showed successful, positive developmental change to Seoul.

### 3) Phase 3 (2011~):

#### **Building a framework to provide systematic, stable system for arts in education**

Based on its achievements, the SFAC created a unique and integrative brand named Seoul Education Center for Creativity and Arts (SECCA) in 2011. Upon entering the 3rd phase (which could also be called the youth period), the SFAC started to focus on understanding the specific needs of each group of learners and expanding partnerships with professional educators and educational organizations. The goals of the SFAC were to continuously provide higher quality education and to get closer to citizens and create a more systematic and stable framework for the education system. In addition, to enhance the quality of teachers and strengthen their abilities, we intend to expand our support for teaching artists from providing systematic training programs to also finding educational activities after having completed the whole course. In doing so, we will be able to do more than just make ripple effects in education and contribute more, and to show our commitment to creating jobs in communities as well as in the culture and art sectors.

In addition, SFAC also works toward strengthening partnerships among various stakeholders of arts in education in our community. This year, the 9th curriculum was announced and the deployment of creative experience programs began in earnest. For first year high school students, we are piloting a matching program in which the creative experience programs and arts in education programs of arts organizations are connected together so that arts organizations can participate in public education. It will expand the activities of the traditional art organizations, but at the same time, promote the realistic development of the culture and arts in education of programs in public schools. In addition,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vitalize arts education in public education and instantaneously create a creativity and arts in education.

Next, I will explain in detail the SFAC's achievements in creativity and arts in education. Currently, the SFAC operates fifteen major businesses based on the four main



pillars: ① **Support public education** ② **Foster experts** ③ **Nurture creative citizens** ④ **Establish creative governance.**

① **Support public education:** Support public education is being promoted based on strategic partnerships with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numerous education offices in other regions. SFAC's cooperative work with public educational bodies are: A) Send 33 TAs to 300 After school Care Program(Dol-bom Gyosil) at elementary schools and provide arts in education program B) Provide regular class-linked curriculum development based on creativity and arts in education (a Korean language class at the 2nd half of Grade 5) in forty classes in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the Gangseo-gu district C) provide creative experience programs for 1st graders of high schools, in order of priority D) Support a project called "Imagination and Creativity Development through Arts in Education" for teachers chosen by the Seoul Education Training Institute E) Manage 500 arts educators in Seoul.

② **Foster experts** includes A) Conduct Researches on the operation and systematization of training courses B) Provide Internships for TAs C) Support overseas training and exchanges.

③ **Nurture creative citizens** includes A) Provide programs tailored for "mediators for arts in education," who are the employees of public sector and B) Enhance the cultural literacy of Seoul citizens and vitalize arts in education and C) provide cultural experience and arts in education for senior citizens to prepare for a happy senior life.

We also try to bring arts into the lives of people by implementing more universal and experience-based education. The nine branches of the Seoul Art Space run 200 programs more than 450 times every year,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creativity of Seoul citizens. They also put artists into direct contact with citizens, taking root in communities. Moreover, a program called "I am a citizen actor" was held this year. The program lets people stand on the stage and act what they have dreamt of, and is being praised for contributing to reducing the feeling of being alienated from art and for bringing new energy to people's lives.

④ **Establish creative governance** aims to provide fertile soil where creativity and arts in education of SFAC can flourish through exchange and networks with leaders and related organizations at home and abroad. Some examples of establishing creative governance are: A) The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Arts in Education & Creativity, which will be an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effects and importance of arts in education B) The "Seoul Educators Workshop with Lincoln Center Institute" aimed at developing educational capacities for imaginative learning for teachers and teaching artists

C) The Arts & Curiosity for Children (Performance based play & learning program) which is connected to the curricula and promoted based on the MOU signed with the Children and Youth Theater Institute of National Theater of Korea this year D) Operating the Culture Arts in Education and Informational Resource Center.

<SFAC's Creativity & Arts in Education Program >

The Four major pillars

- ◎ Support public education: creativity & arts in education for children and youths (after school care program(Dol-bom Gyosil), regular class-linked education, and creative experience programs), and job training programs for teachers of Seoul (the 2010-2011 officially designated training center)
- ◎ Foster experts: a training program for TAs, grants for intern TAs, and partnerships with overseas arts education centers for training opportunities
- ◎ Nurture creative citizens: programs for teachers and public officials to nurture effective mediating group, culture and art education for the disadvantaged social groups, and specialized programs for youth and senior citizens.
- ※ Experiential Arts in Education Programs for Citizens
  - Arts in education at Seoul Art Space: Geumcheon (2 days and 1 night with artists), Sindang (I am also an artist), Seongbuk (exploring the neighborhood during the winter vacation), Gwanak (Read, listen and look at the books), Hongseon (Good body / My District, My town)
  - Programs for enhancing the cultural literacy of Seoul citizens: the book program, "I am a citizen actor"
- ◎ Establish creative governance: the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Arts in Education and Creativity, Seoul Educators Workshop with the Lincoln Center Institute, and Arts and Education Informational Resource Center.

In these ways, the creativity and arts in education being promoted by the SFAC has brought change to the lives of citizens, and in a broader perspective, not only happiness but also clues to creating harmony in a society filled with conflict and hostility. Such change brightens up the future of Seoul which dreams to be one of the best cultural cities in the world. This year, we expect that about 20,000 of Seoul citizens will partake of the direct and indirect educational benefits made available by the arts in education of the SFAC.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creased by one hundred times compared to when we began, but I believe that changing Seoul using arts education has just started. When the cultures are understood, the ten million citizens of Seoul will find it more attractive to express their creativity. Then, the Seoul where these citizens live will be full

of creativity and rich experiences.

Everyone talks about the importance of education. We know that education determines the fate of a nation, but there is a need for more discussions to establish a consensus on the best direction for education in Korean society. I believe that the arts in education promoted by the SFAC can be one of solutions to this common question. Arts in education, which takes root in life, influences the quality of education. Arts in education which changes personal recognition through aesthetic experience and makes people communicate with others and delivers impact to our society. It will contribute to making communities in which creative and culturally rich people who can enjoy diversity and contribute to society. In addition, these are the communities where everyone wants to live in harmony with everybody else and in which people continuously pursue of happy lives and a better future. Such talented individual and communities can be developed by the efforts, patience and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various social and educational group and community itself. As the SFAC is committed to showing more enthusiasm and patience for these goals in the future, the more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more artists, educators looking for a better future and related organizations will be also needed. In closing, I would like to ask for you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Thank you.

SISAC



**데이시아 워싱턴**  
**Dacia Washington**

미국 뉴욕 링컨센터 예술교육원 & HSAII(예술 상상력, 탐구 고등학교)  
LCI & HSAII, Imagination Learning for Creativity

SISAC

## “LCI & HSAII, Imagination Learning for Creativity”

Dacia Washington / Lincoln Center Institute Theater Teaching Artist, USA

### **Background on Lincoln Center Institute:**

Lincoln Center Institute (LCI) is the educational cornerstone of 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Inc. We believe that imagination is the key to creativity and innovation, and that imagination is a skill that can be taught. Each year we work with nearly 100 local schools,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professional teaching colleges around the world reaching 400,000 students, educators, and arts administrators with the goal of bringing the arts into the classroom as a springboard for inspiration and critical thinking across the curriculum. LCI engages the students in the study of the arts as a way to build critical and imaginative thinking.

LCI has a roster of about 80 teaching artists (TAs) in the disciplines of dance, music, theater, and visual arts. The TAs work directly with pre-K through grade 12 students at schools in the New York City metropolitan area, as well as with pre-service teachers in Schools of Education, college students in other areas of study, and professors at 10 local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teaching artists conduct workshops for the students that focus on specific works of art, partnering with the classroom teacher or professor.

With over 35 years of practice, LCI has assumed a leadership role within the education community, developing students' cognitive skills through guided encounters with the visual and performing arts. As the framework for its practice, LCI has created the Capacities for Imaginative Learning, which are applicable to all curricular subjects and positively influence student learning. There are 10 Capacities for Imaginative Learning: Noticing Deeply; Embodying; Questioning; Making Connections; Identifying Patterns; Exhibiting Empathy; Living with Ambiguity; Creating Meaning; Taking Action; and Reflecting/Assessing.

### **Lincoln Center Institute International Educator Workshop:**

The Lincoln Center Institute International Educator Workshop (Workshop) is a 5-day introductory immersion into LCI's approach. Teachers from around country and world come to attend the Workshop and receive training in LCI's methodology and philosophy so they can take these strategies back to their classroom and implement them (without a partnering teaching artist). Participants in the Workshop engage with works of art as



students would, learn about the Capacities for Imaginative Learning, discover ways to elicit new ideas from their students, and learn how to stimulate curious, creative, conceptual thinkers prepared for the world beyond the classroom.

In 2004-2005, LCI began offering the International Educator Workshop at host sites around the country and the world so that educators who could not travel to New York City had the option to attend a workshop closer to their home community. We are honored and pleased to say that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joins the International Educator Workshop community for the second time with the 2011 Seoul Educators Workshop in Alliance with Lincoln Center Institute (SEW 2011). This August, we will offer two (2) Introductory Level Workshops (August 15-19, 2011), as well as a 3-day Advanced Level Workshop (August 22-24, 2011).

Though the International Educator Workshop is for educators from around the world, this professional development model is similar to what our local teachers experience as preparation for partnering with a TA and implementing LCI's work in the classroom.

#### **High School for Arts, Imagination and Inquiry:**

The High School for Arts, Imagination and Inquiry (HSAIL) was founded by LCI, in partnership with New Visions for Public Schools and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in 2005. It is a New York City public high school, and all students are eligible to attend. The only requirement for acceptance for prospective students is an interest in fostering imaginative, creative,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through the study of works of art. All of the teachers at HSAIL are trained in LCI's methodology.

#### **Demographics of HSAIL:**

In order to appreciate the impact of LCI's partnership with the teachers and administrators at HSAIL,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founding and composition of the school. The first class of 9<sup>th</sup> graders at HSAIL started in the fall of 2004, and a grade level was added each year until HSAIL became a 9<sup>th</sup>-12<sup>th</sup> grade school. The first graduating class was in the spring of 2009.

HSAIL is an urban, public school, with all of the same challenges that New York City high schools face. Only 15% of the class of 2009 came in performing at grade level, with 65% having had attendance problems in middle school.

In the 2010/2011 academic year, HSAIL's enrollment was nearly 400 students in grades 9 through 12. 40 special education students are enrolled in self-contained or collaborative classes; 71 students are English Language Learners (ELL); 56% of students are male, and 44% are female; 69% of students live below the poverty line. The students come from the following ethnic demographics: 55% Hispanic/Latino, 39% African

American / Black, 3% Caucasian, 2% Asian / Pacific Islander, and 1% American Indian / Alaskan Native. In addition, 77% of HSII's senior class graduated in 2010, far above the recently reported citywide average of 62.7% (2009). 100% of graduates who applied were accepted into college.

Many incoming students have had difficult experiences in middle school and very little exposure to the performing arts, which makes the integration of imaginative learning into the academic program and the culture of the school a priority and a challenge for HSII. Teachers and administrators at the school continue to explore new ways to do this.

**LCI has seen an impact of its work on student learning, and the following describes:**

1) some professional highlights of a TA working in partnership with teachers at HSII; and 2) a unit of study that was conducted with the 9<sup>th</sup> grade students in the spring of 2010, which shows how the teachers connected LCI's work with their daily curriculum, the impact it had on the students' learning, and the social and emotional benefits.

**Highlights of a TA working in partnership with HSII teachers:**

In Spring 2011, 11<sup>th</sup> and 12<sup>th</sup> grade students at HSII worked with a TA on a production of Hamlet. The theme for 11<sup>th</sup> grade students is: "What is my role as a citizen of this country?" "Now that I have explored who I am in a variety of contexts, how can I take action as I graduate high school?" is the theme for 12<sup>th</sup> grade students. The issue of taking action or not taking action is central to Shakespeare's Hamlet, and the students explored this through writing and performing inner monologues, rewriting scenes using the central question of "what if" or "as if" to consider the effect of choice and action, and eventually staging their original and Shakespeare scenes using a variety of theatrical devices. The students also drew comparisons between the story of the Prince of Denmark and actual historical events. The act of questioning the text, the characters motivations, their personal and historical connections, and how best to express their understandings in writing and performance led to the development of critical skills. Although they were not required to read the entire text, numbers of students asked to borrow copies from the class library, which shows a strong level of engagement with the work of art.

These outcomes were possible with the collaboration of the teaching partners who are trained in LCI's methodology, and who supported and sustained the study of the work of art in the time between TA's workshops with the students.

### **Case Study – 9th Grade Unit of Study on The Man Who Planted Trees:**

The study of works of art can help students to orient themselves to HSAIL and its particular mission, and in the spring of 2010, students at HSAIL studied *The Man Who Planted Trees*, a work performed by the Puppet State Theater Company. The 9th grade teachers saw an opportunity to integrate the study of this work with several important initiatives taking place in the school and in doing so, helping the new students understand the school's mission and the kind of learning they will be engaging in:

1. Theme of identity: HSAIL organizes much of its first-year curriculum around the guiding question “Who am I?” Since *The Man Who Planted Trees* is a biographical work, it connected neatly to this question. In their unit, teachers wanted students to reflect on their own identities and how their stories fit into a larger context.
2. Strengthening school culture: HSAIL has undertaken a major initiative to restructure its teaching teams in order to support a stronger, more cohesive school culture. During 2009-10, this work began among 9th grade teachers, with a primary focus on creating routines and rituals that would help entering 9th graders successfully transition into high school. The teachers saw this unit as an opportunity to reinforce positive ways of working and learning together, and to continue teaching students to share ideas and feedback in a constructive, non-judgmental way.
3. Supporting student literacy: HSAIL's 9<sup>th</sup> grade team of teachers has supported student literacy by integrating the Capacities for Imaginative Learning into their literacy strategies. In one class, studying a work of art and working with an LCI teaching artist presented an opportunity to help students learn writing skills and terminology they had not had the chance to learn during other parts of the school year.

### **The Unit of Study in Practice**

The unit that one of the 9th grade English Language Arts teachers taught around *The Man Who Planted Trees* paired a study of the work of art with a two-week unit on writing poetry. When studying the play, the teacher wanted students to focus on the choices the artists had made, and she knew she could help students explore the same idea when writing their own poems. She believed poetry writing would fit well with the unit's theme of identity, and she knew poetry would be a relatively accessible genre for her students. Writing poems would give even struggling students a successful experience in the classroom and would help students learn new literary terms and techniques – many of which they would need to know for the New York state English Language Arts exam.

From the start, the teacher let students know that this unit would focus on three ideas:

identity, technique, and the choices one makes. The unit she taught contained several elements, interwoven over several weeks:

- Over the course of several lessons, students worked with an LCI teaching artist to create puppets of their own that represented some aspect of him or herself. Students were told that their puppets needed to embody some part of their identity, but that element should be fictionalized, exaggerated, or changed in some way. This allowed students to explore identity without having to share anything with their peers that felt too personal.

In the midst of their puppet-making, students saw and discussed their responses to a performance of *The Man Who Planted Trees*. The teacher focused the discussion on the choices the artists had made to communicate something about the characters' personalities.

- Lessons about poetry: On days devoted to poetry, students learned about different poetic forms or literary techniques and then used these in their own writing. The teacher focused her lessons on technique to help students learn important terms and forms from the core English Language Arts curriculum.
- Final product and student performances: The students also created a final product to share with their peers. They made both a booklet of their poetry and an "identity puppet" based on themselves. Working in groups, they combined these creations in short skits, where each puppet's dialogue included some part of the creator's poetry.

The work the students did on *The Man Who Planted Trees* yielded several important lessons that the 9th grade teachers can build on as they extend their students' learning and development.

1. The importance of a final product: Having a clear final project – one students knew about from the start – was an important part of the unit's success. Students understood how the poetry and puppet-making elements of the unit would fit together. They also knew they would have the chance to develop their poems and skits over time before presenting them to their peers, which seems to have created an increased sense of ownership. Many students took more care with and pride in this project than they had with schoolwork earlier in the year.
2. The power of art-making: The teacher was surprised by how engaged students became in the process of puppet-making and how attached they became to their puppets.

3. The value of a safe, positive space for sharing work: The teachers on HSAII's 9th grade team worked throughout the year to make the classroom a positive, productive space for learning and expression. A major goal of their collaboration has been to help new 9th graders build empathy and understanding for each other by establishing clear routines and norms in the classroom that are built around mutual respect and ongoing dialogue, not simply following the rules.

Those classroom routines helped foster an environment in which student's performances could be shared and discussed, rather than made fun of. Even though their presentations contained something personal – some lines from a poem about their identity – students were still willing to share, listen to and discuss each others' work. One student reflected that his biggest area of growth was his ability to speak in front of a group – something he never thought he could do – and he cited his presentation at the end of the LCI unit as evidence of his improvement.

The unit on The Man Who Planted Trees proved to be a powerful experience for many of the 9th graders in this class. It helped students build important skills in writing, listening, speaking and presenting their work, while also developing the ability to learn productively – individually and in groups – in the classroom.

A few other examples of how teachers and students have used works of art in their studies at HSAII over the years are:

- The digital dance work Ghostcatching led to a math lesson in which students crafted shapes out of ribbon and measured them to understand ratio and proportion.
- Teachers connected a dance program, which explores the legacy of 19th-century American President Abraham Lincoln, to lessons on history and government. One student noted that he would now regard history as a dance, or many dances.
- Students learned about contrast, perspective, and mood during a unit about photographer Mary Whalen's portfolio A Night Sonnet So Far, and applied these ideas to their own persuasive writing and to analysis of photos taken by their classmates.

### **Other Schools and LCI's Work:**

HSAII is just one of many schools that we partner with in the New York City metropolitan area. We also work very closely with 9 other Inquiry Schools that encourage students to apply creative thinking and inquiry skills outside of their arts units, making these ideas critical to each school's curricula, community, and identity. In these schools, we have also seen the teachers connect the repertory pieces to their curriculum in very creative and innovative ways that have had an impact on student learning. To highlight a few additional examples:

- History and social studies teachers have used *The Arrival*, a wordless graphic novel depicting an immigrant's journey to a strange new land, to discuss issues of identity and heritage with students, who then create picture books to tell their own stories.
- At a middle school, a science teacher asked students to compare and contrast LCI's inquiry process to the science inquiry process, and to assess how to use these skills in other classes.
- English Language Arts teachers at an elementary school applied LCI's inquiry process to help students to read closely and analyze texts, an essential skill for all learning.

LCI's methods also accommodate special learning needs within the Inquiry Schools:

- At a high school, teachers of English Language Learners reported that their students built self-confidence through the experiential nature of instruction, which involved standing up and participating in movement activities.
- At a K-8 school, special education teachers credit LCI for creating a non-judgmental, image-rich environment for their students, while guiding teachers in building a vast repertoire of experiential lessons and approaches for literacy development.

### **Lincoln Center Institute's Capacities for Imaginative Learning:**

LCI's Capacities for Imaginative provide the framework for all of our work and are both an assessment and a planning tool. The Capacities for Imaginative Learning came out of our work in starting the High School for Arts, Imagination, and Inquiry. As part of the application for the school, LCI had to articulate, in language that entering 9th graders (14-15 year olds) could understand, what the goals of the school were and what the students would learn from LCI's arts-infused curriculum that they would not learn elsewhere. The original 9 Capacities that were articulated have grown into 10 (specified above). The Capacities are deeply embedded at HSAII, as well as at many of our local partnering schools. They guide both the teachers and a new generation of imaginative learners.

### **Conclusion:**

Units of study focused on fostering creative and critical thinking engages students in opportunities that help stretch their imagination and discover their own potential. As well, nurturing the Capacities for Imaginative Learning through the study of a work of art may transfer to lifelong learning in other curricular, social, and content areas.



## “미국 뉴욕 링컨센터 예술교육원 & HSAII(예술 상상력, 탐구 고등학교)”

데이시아 워싱턴 / 링컨센터 예술교육원 전임 TA

### 링컨센터 예술교육원(LCI, Lincoln Center Institute) 소개:

LCI는 링컨공연예술센터(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Inc)가 제공하는 교육의 초석이다. LCI는 상상력이 창의성과 혁신의 열쇠이며,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이라 믿는다. 매년, 전 세계 약 100개 학교,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약 40만 명에 달하는 학생, 교육자, 예술경영자와 함께 활동한다. LCI의 목표는 예술을 교실로 가져와 전 교과과정에서 영감과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는 것이다. LCI는 학생들이 예술에 참여하여 비판적 사고와 상상력을 동원한 사고를 기를 수 있게 도와준다.

LCI에는 약 80명의 TA(Teaching artist, 전문예술교육가)가 무용, 음악, 연기, 시각예술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다. TA는 뉴욕시에 위치한 학교의 전 학년 학생들(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뿐 아니라 교생 실습자, 기타 과목 전공 대학생, 10개 고등교육기관의 교수들과도 직접 활동한다. 학생들은 TA가 실시하는 워크숍에서 교사 혹은 교수와 함께 짝을 지어 특정 예술작품에 대해 집중연구 한다.

35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LCI는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을 통해 학생들의 인지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 분야의 리더 역할을 해왔다. LCI는 모든 교과과정에 적용시킬 수 있고 학생의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틀인 “상상력 학습을 위한 역량(Capacities for Imaginative Learning)”을 개발하였다. “상상력 교육을 위한 역량”에는 패턴 찾기, 공감 표현하기, 모호성 받아들이기, 대처하기, 의미 만들기, 행동하기, 반영/평가하기 등 상상력 학습에 필요한 총 10가지 역량이 포함되어 있다.

### LCI 국제예술교육워크숍(Lincoln Center Institute International Educator Workshop):

본 워크숍은 LCI접근법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를 대상으로 5일간 개최된다. 참여 대상은 국내외 교사이며 LCI의 방법론과 철학에 대해 교육 받고 추후 TA의 도움 없이도 습득한 전략을 수업 중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워크숍 참여자는 예술작품 연구에 참여하여 학생들이 배우는 역량을 파악하고 학생들에게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방법을 찾고 학교를 넘어 세계에 나설 수 있는 호기심 많고 개념적인 사고를 지닌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

LCI는 뉴욕시를 방문하기 어려운 교육자를 위해 2004-2005년부터 참가 희망자의 거주 지역에서



국제예술교육워크숍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2011년 한국의 서울문화재단이 LCI와 함께 두 번째로 2011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워크숍 (SEW 2011, Seoul Educators Workshop in Alliance with Lincoln Center Institute)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함께 하게 되어 영광이다. LCI는 오는 8월 입문자 워크숍(2011년 8월 15-19일)을 2회, 상급자 워크숍(2011년 8월 22-24일)을 3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본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워크숍은 전 세계에서 참여한 교육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모델이지만 교사가 TA와 협력하고 LCI에서 훈련 받은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 예술, 상상력, 탐구 고등학교 (HSAII, High School for Arts, Imagination and Inquiry):

2005년 LCI는 공립학교를 위한 뉴비전 단체(New Visions for Public Schools), 뉴욕시 교육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와 함께 HSAII를 설립하였다. HSAII는 뉴욕에 위치한 공립고등학교로 모든 학생이 다닐 수 있다. 본 학교의 학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예술 작품에 대한 학습을 통해 상상력을 동원하고 창의적,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자 하는 의지와 관심만 있으면 된다. HSAII의 모든 교사는 LCI의 방법론을 학습했다.

### HSAII 구성원 구조:

LCI와 HSAII의 교사 및 운영자 간의 파트너십이 가져오는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학교의 기반과 구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2004년 가을 HSAII의 9학년 수업이 처음 시작되었고 매년 각 학년이 추가되어 현재는 9학년-12학년 수업을 갖춘 학교가 되었다. 제1기 졸업생은 2009년 봄에 배출 되었다.

HSAII가 도시에 위치한 공립학교인 만큼 뉴욕시에 위치한 다른 고등학교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2009학년도 학생 중 15%만이 평균 점수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으며, 65%는 중학교에서 출석률이 좋지 않았다.

2010/2011 학년도에 HSAII에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약 400명의 학생이 있었다. 40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자립/협력 수업에 등록했다. 71명은 영어 학습(ELL, English Language Learners)에 등록했다. 56%는 남학생, 44%는 여학생이었다. 69%는 저소득층 자녀였다. 학생들의 인종은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 히스패닉/라틴계 55%,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39%, 백인 3%, 아시아인/태평양제도민 2%,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1%. 또한 2010년 HSAII 고학년의 졸업률은 77%로 최근 보도된 뉴욕시 평균 졸업률인 62.7%(2009)보다 높았다. 대학 진학 희망자 전원이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다.

입학생 중 많은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상상력 학습, 학문적 프로그램 및

학교문화를 통합해주는 수단인 공연예술은 거의 접해보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HSAII가 직면한 문제이자 최우선 과제이다. 학교의 교사와 운영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 중이다.

LCI의 활동은 학생들의 학습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그 중 일부 사례에 대해 설명하겠다.

- 1) HSAII에서 이루어진 TA와 교사의 파트너십
- 2) 2010년 실시된 9학년 학생 교육에서 교사가 LCI의 활동을 교과과정에 연결시킨 과정, 학생의 학습에 미친 영향, 파생된 사회적, 감정적 교훈

### **HSAII 교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하는 TA:**

2011년 봄, HSAII의 11, 12학년 학생들은 TA와 함께 햄릿(Hamlet) 공연을 구성하였다. 11학년 학생들의 주제는 “이 나라 국민으로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였고, 12학년 학생들의 주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한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였다. “행동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중심이다. 학생들은 글쓰기, 내적 독백을 통해 선택과 행동의 영향에 대해 탐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혹은 “마치 이런 것처럼”과 같은 질문을 사용하여 시나리오를 다시 써보고 최종적으로 다양한 연극 공연용 장비를 이용하여 자신이 쓴 작품과 셰익스피어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또한 학생들은 덴마크 왕자(Prince of Denmark) 이야기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비교해본다. 글 또는 극중 인물의 동기, 성격, 역사적 연관성 등에 대해 질문해보고 이해한 사실을 글과 공연예술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중요한 재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전체 원문을 읽으라는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갔는데 이는 학생들이 예술작품에 깊게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LCI의 방법론을 습득하고 TA의 워크숍에서 예술작품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준 교사와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사례연구 - 9학년 학습 “나무를 심은 사람(The Man Who Planted Trees)”:**

학생들은 예술작품에 대해 공부하면서 HSAII에 적응하고 특정한 미션을 지향하게 된다. 2010년 봄, HSAII 학생들은 퍼펫 스테이트 씨어터 컴퍼니(Puppet State Theater Company)의 “나무를 심은 사람”을 학습했다. 여기서 9학년 담임교사는 이러한 학습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고 통합하면서 새로운 학생들이 학교의 미션과 앞으로 참여할 수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1. 정체성의 주제: HSAII 1학년 교과과정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 전기체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문기에 적합하다. 수업 중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자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더 큰 맥락에서 어울릴 수 있는지 연구해보라고 지시한다.
2. 학교문화 강화: HSAII는 학교문화를 강화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수법을 새롭게 재편하는 이니셔티브를 실행했다. 2009-10학년도 9학년 담임교사부터 적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9학년 학생의 성공적인 고등학교 진학지원방법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3. 교사들은 이러한 수업 방식이 함께 협력하고 공부하는 긍정적인 방법을 강화하는 기회라고 여기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생각을 공유하고 편견 없이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게 되었다.
4. 학생들의 글 읽기/쓰기 능력 지원: HSAII의 9학년 담임교사들은 “상상력 교육을 위한 역량”과 글 읽기/쓰기 전략을 병합하여 학생들을 지도했다. 예를 들어, 예술작품에 대한 학습과 LCI 예술교육가와와 작업은 학생들이 다른 학년도에는 배우지 못했던 글쓰기 재능 및 용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다.

#### 실행중인 교육:

2주간 “나무를 심은 사람”을 활용하여 9학년 영어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예술작품에 대한 연구와 시 쓰기 수업을 결합시켰다. 교사는 연극을 공부할 때 학생들이 예술가가 내린 선택에 초점을 맞추면 학생들이 직접 시를 쓸 때에도 같은 생각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시 쓰기 수업이 정체성 찾기에 적합한 수업이고 시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접하기 쉬운 장르라고 생각했다.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던 학생조차도 시를 쓰면서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학생들은 뉴욕시의 언어 시험을 보기 위해 필요한 글 읽기/쓰기 기술과 새로운 용어를 습득할 수 있었다.

- 학생들은 여러 차례 수업에서 LCI 예술교육가와 함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인형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인형을 만들되, 그러한 요소들을 과장하거나 극적으로 만들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화를 주어야 했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친구들과 공유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다.
- 학생들은 인형을 만들면서 “나무를 심은 사람”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확인하고 토론했다. 교사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전달하기 위해 예술가가 내린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도록 지시했다.
- 시 수업: 학생들은 시 수업에서 다양한 시의 형식이나 글쓰기 기술에 대해 배우고 배운 것을 토대로 직접 시를 썼다. 교사는 학생들이 영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용어 및 형식을 배울 수 있게 기술에 중점을 두고 수업했다.
- 최종 작품과 학생의 성과: 학생들은 최종 작품을 완성하고 같은 반 동료들과 함께 공유했다. 시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 인형”을 묶어 책으로 만들었다. 학생들은 그룹을 만들고 시의 일부분을 적용하여 인형의 대화를 쓴 후에 짧은 희문(戲文)을 만들었다.

학생 교육과 개발을 진행한 9학년 담당교사들은 “나무를 심은 사람”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1. 최종 작품의 중요성: 최종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수업의 성공에 중요한 과정이었다. 학생들은 시와 인형을 만드는 작업이 잘 어우러진다는 사실을 이해했고 동료에게 보이기 전에 시와 희문을 쓸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이 직접 썼기 때문에 소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많은 학생들은 기존에 했던 작업보다 본 프로젝트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였고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2. 예술작업의 힘: 교사는 학생들이 인형 만들기 과정과 인형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3. 공동작업을 위한 안전하고 긍정적인 공간의 가치: HSAII의 9학년 팀 담임교사들은 교실을 학습과 표현을 위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했다. 협력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9학년 학생들이 단순한 규칙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교실에서 확실한 방법과 일반적인 표준을 설정하여 서로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에 기반을 두어 학생들이 서로의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다. 학생들의 발표에 개인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시 일부 - 학생들은 여전히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고 귀 기울여 듣고 토론하고 싶어 했다. 한 학생은 자신의 재능 중 가장 많은 발전을 보인 것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라고 평가했는데 예전에는 자신이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 학생은 발전 정도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 LCI 수업 마지막에 발표를 선보였다.

“나무를 심은 사람”에 대한 수업은 많은 9학년 학생들에게 강한 경험을 선사해주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쓰기, 듣기, 말하기, 작품 발표하기 등 중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고 수업에서 - 개인적이거나 그룹을 형성하여 - 생산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배웠다.

다음은 HSAII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수년간 예술작품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 일부 사례이다.

- 수학수업시간에 디지털 무용작품인 “고스트캐칭(Ghostcatching)”을 활용하여 리본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리본의 길이를 측정하며 비율과 균형을 이해했다.
- 교사들은 19세기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업적을 공부하기 위해 무용 프로그램과 역사 및 정치 수업을 연결하였다. 한 학생은 이제 역사를 하나의 무용, 혹은 무용의 연속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 학생들은 메리 월렌(Mary Whalen)의 포트폴리오 “A Night Sonnet So Far”를 배우는 수업에서 대조, 관점, 분위기에 대해 배웠고 배운 것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쓰고 학급 동료가 찍은 사진을 분석했다.

### 기타 학교와 LCI의 활동

HSAII는 LCI가 협력하는 뉴욕시에 위치한 많은 학교 중 하나일 뿐이다. LCI는 기타 9개의 학교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와 탐구 능력을 예술 이외의 수업에서 적용시킬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학교의 교과과정, 커뮤니티, 정체성에서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LCI는 교사들이 매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레퍼토리를 교과과정에 연결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주게 도왔다. 다음은 일부 사례이다.

- 역사 및 사회 과목 교사들은 이민자가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는 내용을 담은 글자 없는 그림책, “도착(The Arrival)”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정체성과 물려받은 특징에 대해 토론했고 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을 만들었다.
  - 중학교 과학교사는 학생들에게 LCI의 연구 과정과 과학 연구과정을 비교/대조해보고 이러한 기술을 다른 과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평가해보라고 했다.
  - 초등학교 영어 교사는 LCI의 연구과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글을 자세히 읽고 분석하게 하였다. 이는 학습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이다.
- 또한 LCI의 교육법은 학교에서 필요한 특별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킨다.
- 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은 일어서기, 움직이는 활동 참여하기 등 체험학습을 통해 자신감을 길렀다고 보고했다.
  -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다니는 학교에서 특수교육교사는 LCI가 학생들을 위한 편견 없고 이미지가 풍부한 환경을 만드는데 유용하고 다양한 체험수업 레퍼토리와 언어능력 개발 접근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LCI의 Capacities for Imaginative Learning:

LCI의 “상상력 학습을 위한 역량“은 LCI 활동의 틀이며, 평가 도구이자 계획 도구이다. “상상력 학습을 위한 역량“은 HSAII의 시작과 함께 탄생했다. LCI는 학교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의 목표와 학생들이 다른 곳에선 배울 수 없었지만 LCI의 예술접목 교과과정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을 9학년(14-15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했다. 처음에 9개의 역량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10개로 늘어났다. (위 상세 설명 참고) 많은 협력 학교뿐 아니라 HSAII에도 “상상력 학습을 위한 역량“은 깊게 자리 잡았으며 교사들과 새로운 상상력 학습자들을 위한 지침이 되어주고 있다.

### 결 론:

창의적,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수업은 학생들에게 상상력을 펼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예술작품을 공부하고 “상상력 학습을 위한 역량”을 개발하면서 기타 교과목, 사회 등에서 평생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SISAC

SISAC

**김 선**  
**Sun Kim**

예술교육을 통한 사회적 관계 맺기  
Building Partnership with Drama



SISAC

## “예술교육을 통한 사회적 관계 맺기”

김선 / 사다리연극놀이아카데미 교장

예술교육자로서 나의 일터는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이다.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는 한국에서 연극예술과 교육의 만남을 시도해온 독립적인 민간 예술교육 단체이자, 최전방에서 예술교육의 변화와 바람을 맞으며 고군분투해온 전문적인 현장작업가·연구자 그룹이다. 나 개인은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이전부터 연극놀이 공부와 교육을 실행했었지만,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라는 가치와 신념을 같이 하는 집단이 있었기에 예술교육 분야에서 과감한 실험작업과 사회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라고 하는 민간 예술교육 단체의 작업과 고민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곧 정부 주도적인 예술교육, 자본이 기반이 되는 예술교육과 다른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독립성을 지키며 한 권에서 예술교육을 담당해온 예술교육자들의 의미와 가능성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 그 땀 그랬다!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는 1998년 1월 극단 사다리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당시 극단 사다리의 대표였던 유홍영 선생님의 자문을 받아 5명의 연극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모여 집단을 꾸린 것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극예술교육은 기존의 배우훈련이나 공연 중심의 접근법과 달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육연극’ 혹은 ‘연극놀이’라 부르는 새로운 연극예술교육의 이론과 방법들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연구소 창립 멤버는 각기 개별적으로 심포지엄과 워크숍, 강연 등을 통해 ‘과정중심의 연극’, ‘놀이성에 기반을 둔 연극’, ‘참여자의 성장과 개발을 위한 연극’을 단편적으로나마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가치에 주목하였다. 소심하고 콤플렉스 덩어리였던 내가 연극놀이를 통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상상의 세계를 지금 여기에 창조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었던 마법과도 같은 놀라운 연극적 경험을 남들에게도 하게 해주고 싶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연극예술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구성원들의 근본적인 욕구였다. 우리는 이론 따로, 실제 따르기가 아니라 이론을 현장에서 실천하며 검증하고, 실천적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체계화하고자 함께 모였고 전문적인 연극예술교육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며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즉 전문가가 모인 그룹이 아니라 전문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의 모임으로 출발한 것이었다.

그 때는 사회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정책이 거의 없었다.

그 때는 연극놀이 교육을 직업화한 민간단체가 없었다.

그 때는 우리나라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극놀이 교육사례가 거의 없었다.

그 때 우리는 자본금도, 사무실도 없이 맨 몸으로 시작했다.

### 좋은 예술교육자는 어떤 사람인가?

처음엔 유능한 좋은 교사가 되고 싶었다. 우리는 말과 글로 연극예술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며 학습을 위한 좋은 매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보다 직접 어린이와 청소년을 만나 정말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연극놀이 수업을 지도함으로써 연극놀이가 지닌 교육적 가치를 실현해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 공부와 함께 현장작업을 병행해나갔다. 알고 있는 것을 교육현장에 적용하면서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교수 기법을 익히고 참여자들을 상상의 세계 속으로 안내하여 그들의 잠재된 능력을 발현시키고 공동체 작업을 안내하는 예술교육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들을 찾아 나갔다. 또한 외국에서 개발된 연극놀이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들에게 꼭 맞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진짜로 우리 자신의 연극놀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나 둘씩 개발하기 시작했다.

대상에 맞게 교육적 목표를 설정하여 연극예술의 형식을 활용하여 연극놀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잘 지도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곧 깨달았다. 그것은 예술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었을 뿐이었다. 교육의 장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가꾸어나가는 능력이 없다면 아이들을 만날 수조차 없다. 민간차원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우리는 교육을 의뢰하는 기관의 행정가와 학부모, 관련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바와 타협하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바를 설득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교육의 외적 조건들을 조성해 나가야 했다. 교육의 이상만 부르짖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는 가장 많이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예술교육자를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 우리는 팀원 개개인이 교육내용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능력 있는 교사일 것과 더불어 기획, 홍보, 매니지먼트, 코디네이터, 행정, 상담 등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전 방위로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것을 요구하고 훈련한다.

전문 지식과 현장경험을 쌓으면서 정신없이 일하다보니 어느 순간 자신이 고갈되고 수업에서 생기를 잃어버리는 시기가 왔다. 익숙한 것에서 오는 매너리즘에 부딪친 것이다. 예술적 체험은 비단 우리가 교육하는 대상 뿐 아니라 가르치는 우리에게도 적용됨을 새삼 자각하는 순간이었다.

그래, 우리는 예술가이기도 했던 거다. 다양한 방면에서 나의 상상력과 창조 욕구를 자극하는 경험을 찾기, 사회와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당연한 것에 의문을 품고 사고하기, 교육 현장에서 ‘객관성 유지’라는 명목 하에 드러내지 않았던 나 자신의 감성과 지성을 드러내 표현하기 등 예술가로서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소 차원에서 탐색하고 실천하고 있다.

우리가 중요시하는 또 하나의 예술교육자의 덕목은 윤리성이다. 1) 사기 치지 말기. 나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를 대하던 진실하게 소통할 것. 내가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기. 2) 내가 동의하지 않는 정치적, 사회적 이념을 위해 예술교육을 서비스 하지 않기. 3) 나의 정치적, 사상적 견해를 교육의 대상에게 강요하지 않기.

현재 우리는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좋은 예술교육자가 되었는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지나간 작업들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좋은 예술교육자의 상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앞으로도 노력해 갈 테니까. 그리고 또 부족한 점을 메워줄 다른 동료들이 있으니까.

#### 예술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우리가 공부한 연극놀이는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누가 연극놀이를 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연극놀이는 각기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가?

제도교육에서 연극은 예술교육의 범주에서 완전히 도외시 되어왔던 1990년대, 국내에서 연극놀이 교육의 주요한 대상으로 논의되던 층은 학령기의 어린이와 청소년이었다. 연구소의 초창기 교육활동 역시 6, 7세 유아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보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더 나아가 연극놀이가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적용 가능한가 알고 싶어졌다. 학령기의 일반 아동청소년이라는 범주를 벗어나는 사람들에게도 연극놀이의 가치를 입증하고 싶었다. 또한 그들에게 적합한 방법론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찾고 싶었다.

또 한편으로 예술의 접근성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느꼈다. 당시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모두 부모가 선택해서 돈을 내고 연극놀이를 접하게 된 아이들이었다. 이들은 물론 연극놀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연극예술의 즐거움을 맛본다. 그러나 이들은 연극놀이 교육을 받지 않는다 해도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문화예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다.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이들은?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된 이들, 그들이야말로 예술체험의 기회가 절실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과감히 그들을 찾아 나섰다. 굳이 부르는 사람이 없어도, 지원금이 없어도. 처음에 만난 이들은 정신지체 아동이었다. 1998년 후반부에 6개월간 주 1회 학교를 방문하여 정신지체 아동을 관찰하고 특수교육의 교과과정과 환경을 연구한 후, 교육을 시행하고 평가하였다. 이후 시각장애 아동, 자폐아, 신체장애 청소년, 저소득층 아이들, 노인, 장애아 어머니,

탈북자 자녀 등 사회의 문화예술 취약계층과의 만남을 조금씩 넓혀 나갔다. 새로운 대상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1) 대상 관찰 2) 대상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 3) 이들의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연극놀이 교육의 목표 설정 및 프로그램 개발 4) 실제 이들과 함께 하는 연극놀이 작업 (그들의 욕구에 따라서 공연 과정이 포함될 때도 있고, 부모님 참여 수업이 포함될 때도 있다.) 5) 평가의 과정을 착실히 밟았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욕구가 있다. 함께 어울려 놀고 싶어 한다. 창조와 발견의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래서 장애 유무, 나이, 지적능력, 국적,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연극을 비롯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각각이 놓인 특수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여건에서 비롯되는 그들만의 요구와 특수성을 예술교육자가 깊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예술활동을 올바르게 안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며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 인간은 무엇으로 일하는가?

우리에게 이 질문이 화두였던 이유는 현실적으로 그다지 돈이 안되는 일임을 알고 시작했기 때문이다. 너무 좋은 걸 아는데, 이 일을 하며 평생 산다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돈이 아닌 무엇이 나를, 우리를 자발적으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을까?

#### (1)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다!

인간이 피동적으로 되는 것은 선택의 자유가 없이 다른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연구소라는 조직 내에서 일하면서도 최대한 팀원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하고 그 선택을 존중하고자 노력한다. 어느 일을 해야 한다고 강제하지 않는다. 어느 대상으로 어떤 류의 일을 하는가, 어떤 시기에 어느 만큼의 일을 할 것인가 모두 본인이 선택한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벌이지 않는다. 많이 일하고 많이 벌 것인가, 놀면서 일하면서 적게 벌 것인가 역시 스스로 결정한다. 각자 자기의 욕구와 취향, 현실적 여건에 맞게 일한다.

연구소의 운영과 정책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모두가 결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위계에 따른 상하관계, 별점과 승진제도 같은 것은 없다. 평등한 구조 속에서 모두 모여 토론하고 결정한다. 이 때 다수결의 원칙 보다는 충분히 문제가 제기되고, 각자의 입장이 토로된 후, 천천히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아나간다. 연구소의 정체성과 장기적인 방향성과 같은 중대한 문제의 경우에는 단시간에 결정짓지 않고, 수개월에 걸쳐 혹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토론을 지루하게 반복한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상당히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이라고 지적받아온 사항이다. 그러나 우리는 별로 서두르지 않는다. 전체를 위해 희생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어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선배라거나 소장이라고 해서 더 많은 발언권이나 결정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연구소에서는 소장과 기획팀장, 행정 일을 일정 기간 돌아가면서 행한다. 그들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은 월급을 받으며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가 연구소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장을 했던 팀원이 그 다음해에는 기획팀 아래에서 기획팀원의 일을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이 상충될 때? 하고 싶지 않는데 연구소를 위해 일해야 할 때?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일방적인 강요는 없다. 대화를 통해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뿐. 그것이 설령 비경제적이고 전체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연구소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 (2) 분배의 방식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적은 돈이라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모든 수익과 배분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수익 배분의 방식도 함께 논의한다. 우리가 수익을 분배를 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많이 일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기’와 ‘능력과 연차에 따라 수익을 차등분배하지 않기’이다. 우리의 주된 수입은 강사료이다. 강사료는 해당 수업을 한 교사가 받는 돈이다. 그 돈의 25%를 연구소 운영기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강사가 가져간다. 일괄적으로 연구소가 거둬들인 후, 분배하는 방식이 아니다. 일을 많이 한 팀원은 수입 또한 많지만, 그만큼 전체 운영기금을 많이 내게 되어 연구소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능력과 경험, 연차를 고려하지 않는 동등한 분배방식은 외부 사람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이다. 같은 시간, 같은 종류의 일을 했다면, 이제 막 들어온 신입 교사와 10년 된 교사의 수입은 같다. 이는 예술교육자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연극놀이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공부와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교사는 물론 좋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제 수업을 능수능란하게 진행할 확률이 크다. 그러나 이들도 종종 실패한다. 초보 교사라 할지라도 특유의 생동감과 에너지로 참여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따뜻한 감성으로 소통을 일궈내기도 한다. 오래된 팀원들이 신입과 같은 강사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들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행정과 기획, 연구 프로젝트, 소교육팀을 이끄는 팀장, 프로그램 디렉터, 자체 교사교육 지도 등. 동등한 분배방식은 다른 한편으로 아직 전문적 능력은 부족하지만 열정만은 가득한 젊은 예술교육자 지망생들에 대한 투자의 의미도 갖는다. 이들이 중간에 좌절하지 않고 좋은 예술교육자로서 성장할 때까지 연구소를 위해 미래에 많은 일을 할 수 있기까지 버틸 수 있는 생존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있다. 일한대로 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연구소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질병, 육아, 노령화, 가족 구성원의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일할 수 없다면? 기초적인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예술단체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로서는 연구소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힘든 재정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연구소의 공동 운영기금 중 일부를 팀원들의 복지에 조금씩 할당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윤을 최고의 목표로 삼지 않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 (3) 나는 성장하고 있다!

일터가 곧 나의 배움터이자 놀이터라면? 일을 위해 내가 가진 소스가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느낌은 사람을 곧 지치게 한다. 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타인의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나는 그런 일을 통해 뭔가를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면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헌신적으로 일한다. 설령 실패한다 해도 자신의 부족함에 좌절하기 보다는 필요한 공부를 찾아서 하게 된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 교육을 담당하는 팀은 동료들을 대상으로 모의수업을 시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교육내용을 시험하고 자문을 받는다. 그리고 현장교육 이후에는 전체적인 회의에서 목표 설정,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방식 등에 대해 냉정하고도 철저한 평가를 받는다. 평가에 따른 별점, 승진, 수입증가 같은 것은 없다. 자신의 작업에 대해 순수한 피드백을 받는 시간으로써 좋은 예술교육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선배들은 안주하지 않도록, 신입교사는 더 노력하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자리임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월요일에 일하지 않는다. 그 날은 모두 모여 크고 작은 스터디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스터디의 주제는 그 때 그 때 교사들이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찾아 시행한다. 주제에 따라서 이론공부이거나 워크숍 형태이거나 외부 현장으로 나가기도 한다. 지금까지 해온 스터디 내용으로는 좋은 연극놀이 강사가 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론과 실기 분야의 공부도 있었지만 ‘질적연구’, ‘희곡 창작’, ‘전래놀이’, ‘부모상담’, ‘응급처치’, ‘창의적 움직임’, ‘요가’ 등 폭넓은 분야에서 멤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라면 무엇이든지 배우고 공부한다. 각자 외부에서 미술이나 생태, 문학, 음악, 심리치료 등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를 교육받기도 하는데 이는 연구소로부터 공식적인 교육지원금을 받는다. 개개인의 이런 공부는 팀의 스터디에 반영되어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구조를 띄기도 한다.

연구소에는 ‘깜짝 놀래줘!’라는 연구지원제도가 있다. 연구소 내에서, 1년에 한 번씩 개인 연구를 공모한다. 연구주제와 계획을 세워서 연구제안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 1년에 2-3명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1년 후, 그 연구원은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연구결과는 공연형태일 수도 있고 논문의 형태이거나 동영상일 수도 있다. ‘깜짝 놀래줘’의 연구는 분야와 목적, 방법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깜짝 놀랄 만큼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 스페인 전공자 연구원은 스페인의 전래놀이 책을 번역하여 소개했고 다른 연구원은 1,2세를 위한 연극공연을 제작하여 선보였다. 이외에도 ‘연극놀이를 적용한 한국어 교육 사례’,



‘연극놀이 활동이 참여자의 뇌파에 미치는 영향’, ‘서술형 전래놀이 연구’,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한 궁궐 프로그램 연구’ 등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사후에 연구소의 주요한 교육 콘텐츠로서 활용된다.

연구소에서 수업을 적게 하던 많이 하던, 우리는 각자 바쁜 삶을 산다. 그러나 당장 오늘, 내일 해내야 하는 일에 급급하면 오래 즐겁게 가지 못할 것임을 안다. 당장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공부를 하고 그런 공부의 과정이 연구소로부터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는다는 점은 연구소 측면으로 보면 장기적인 투자이자 개인적으로는 예술교육자로서 자부심과 창조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된다.

### 예술교육, 왜 무엇을 위해 행하는 것일까?

한국에서 예술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며,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지향을 가지고 활동하는가? 처음부터 거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좋은 예술교육자가 되겠다는 소박한 바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예술교육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다소 모호한 확신뿐이었다. 우리가 연극놀이를 통해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미치고 싶은지, 미쳐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림은 없었다. 결국 독립적인 민간 예술교육 단체로서 최소한의 생존에 성공하면서 본질적인 고민은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사다리연극놀이학교’와 ‘방학 연극놀이 교실’이다. 이 두 가지는 정부의 지원금이나 외부 수업 의뢰가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우리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주요한 자체 수익사업이기도 하다. ‘사다리연극놀이학교’는 만 2세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연령별로 1년에 걸쳐 연극놀이 교육을 시행한다. 연령별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성장과제를 선정하여 그에 적합한 지도방법을 적용하는데 크게 보면 연극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통합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몇 년 전 강남 엄마들이 즐겨본다는 주부잡지에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예술 분야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의 연극놀이’가 소개된 적이 있었다. 우리와 상관없이 나간 기사였다. 그들에게 우리는 고급 예술 사교육 학원이었던 것이다. 2000년대 들어 교육계에 창의성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수학, 과학, 영어 등을 학원에서 가르치면서 자녀의 대학 입학에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중산층 학부모들은 이제 예술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교과학습 위주에서 예술교육으로 관심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예술을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사교육 목록에 더 첨가시킨 것이다. 기존의 동네의 음악, 미술 학원은 그들에게 성이 차지 않았다. 소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고 퀄리티를 보장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찾았다. 물론 ‘사다리연극놀이학교’와 ‘방학 연극놀이 교실’을 선택한 학부모 전부가 그러한 목적으로 자녀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초창기부터 우리의 교육적 신념에 동의하여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교육 광풍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논의 끝에 학부모와 소통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예술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겼다. 특히 장기적인 교육인 ‘사다리연극놀이학교’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특강, 개별적인 부모 상담, 편지글과 수업 후의 브리핑, 독서토론 등을 통해 ‘우리 아이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고 현재의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난 다른 교육, 치열한 경쟁이 아닌 공존하는 삶의 방식이 가능함을 이야기 나누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고자 노력한다. 이들이 자녀에 대해, 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의 교육과 삶의 질을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술교육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꿈꾼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사다리연극놀이 연구소는 세 개의 부설기관이 있다. ‘사다리연극놀이학교’, 사다리연극놀이아카데미와 ‘연극, 놀이, 그리고 교육’이라는 출판사이다. ‘사다리연극놀이아카데미’는 연극놀이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양성 교육기관이다. 단기 입문과정과 1년에 걸친 심화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전문 예술교육자를 꿈꾸는 현장작업가를 비롯해 초중고 교사, 유아 교사, 사회복지사, 기획자, 연극인, 동화구연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사들에게 그간의 우리의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교육 방법을 보급한다. 출판사는 국내의 연극놀이 연구와 작업들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연극놀이 전문 저널을 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극놀이 관련 서적을 출판할 예정이다. 아카데미와 출판사는 정부의 지원금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수익사업의 개념은 아니다. 물론 아카데미에서 수강료를 받고 출판된 책의 판매수익이 있지만, 그것은 투자비용을 훨씬 못 미친다. 매년 적자를 감수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비교적 일찍 연극 분야의 예술교육을 시작한 단체로서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현재와 미래의 헌신적인 예술교육자들을 위해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가 2008년 <한국에서 연극놀이 전문가로 살아남기-그 역사와 전략>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이다.

연구소 초창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극놀이 교육을 시행했을 때, 그 교육적 효과는 컸다. 장애 아동들의 자기표현과 사회성을 증진시켰으며 저소득층 아이들의 자아감을 향상시켰다. 이런 교육은 거의 자원봉사와 같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은 “착한 일 한다” “기특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반응은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했다. 개인의 선의에 기대다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그들의 교육은 그들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를 공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교육을 기약할 수 없었던 우리는 무력감과 죄책감을 느꼈다. 문화예술교육에서 공공성의 개념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낀 때였다. 다행히도 2000년대 이후 국가의 공공정책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주요 논제로 등장하면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개념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제도가

여러 공공기관에서 시행되었다. 우리는 공공기관의 지원금을 받으며 장애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아 어머니, 탈북자 자녀, 저소득층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연극놀이 교육을 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예술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대상으로 실험적인 작업들도 시도할 수 있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진행되는 ‘유아 대상 평화교육 T.I.E(Theater in Education)’, ‘역사탐방 사대문 및 궁궐 프로젝트’, ‘문화가 있는 놀이터’, ‘이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가 그 예이다. 우리는 지원금사업에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작업하지만 충돌을 빚을 때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로 느끼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 분야 공공정책이 예측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지속적이거나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크게는 정권이 바뀌면 작게는 담당 책임자만 바뀌어도 그 전의 교육 사업들은 그 성과와 상관없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방향의 정책이 등장한다. 또한 다수의 교육 사업들이 매우 단기적이다. 길어야 1년이다. 그러면서 현장작업가들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한다. 예술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가들이 행정편의적인 태도로 교육의 방향과 실천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려 들 때, 획일적인 기준을 들이댈 때, 우리는 답답하다.

나이, 계층,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예술교육은 본질적으로 공공의 성격을 띤다. 예술교육 관련 공공기관은 국가적 안목으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은 독립적인 민간 예술교육단체는 동일한 신념하에 헌신적으로 연구하고 작업한다.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기에 이들은 자유롭게 실험하고 과감한 도전을 함으로써 예술교육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한다. 민간단체의 헌신적인 실천력과 콘텐츠가 공공 부문과 만날 때 보다 양질의 예술교육이 실현가능할 것이다. 예술교육의 정책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양자가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동등한 파트너로서 만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된다면 건강하고도 창의적인 예술교육 민간단체들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어깨는 무겁지만 가슴은 여전히 뜨겁다!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가 출범한 지 올해로 13년 째, 5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20명의 예술교육자가 전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소 구성원들의 이직률은 매우 낮다. 이들은 한번 들어오면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활동한다. 권력과 돈이 인간을 움직이는 주요 동기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를 직접 찾아오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90%가 이미 다녀간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한 것이다. 교육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진심이 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시간이 갈수록 우리 어깨는 무거워짐을 느낀다. 젊었던 멤버가 나이가 들면서 부양 식구가 늘어나고 출판사 적자는 점점 누적되고 외부기관과의 협력작업에서 우리의 자부심을 손상 받고 상처받는 일들이 적지 않다.

몇 해 전, 밤샘 마라톤 회의를 하며 연구소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다. 그 때 주된 의제 중 하나가 연구소의 외형적 덩치를 더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건물을 사서 극장과 교육 공간, 도서관을 만들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다양한 종류의 예술경험을 할 수 있는 센터를 꿈꿔본 것이다. 꿈속의 모습은 근사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팀원들 개개인이 연구소 기금을 무리하게 더 내고 원하지 않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자체 수익 사업을 확장하고도 엄청난 규모의 빚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연구소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역사에 남을지 몰라도 그것은 팀원 개개인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다. 팀원 개인들이 행복하지 않는데 번듯한 연구소의 외관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연구소의 덩치를 키우는 일은 일단 접었다. 대신 그 이후 앞으로 우리 연구소의 방향성을 기늠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그 하나는 기존에 예술교육을 연구소가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드나들며 예술에 대해 논하고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오픈된 만남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연극놀이학교 소속의 청소년 대상 연극교육을 ‘청소년 연극클럽’으로 전환한 것과 아카데미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사랑방’ 운영이 그 예이다. 또 다른 시도는 ‘숲 연극놀이’이다. 이는 단순히 숲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고 생태적 삶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생태 운동적 차원의 예술교육이다. 연구소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아직도 우리는 논의 중이다. 확실한 것은 연구소의 구성 멤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직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행복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거창한 예술교육 담론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 “Building Partnership with Drama”

Sun Kim / Principal of Sadari Creative Drama Academy, Korea

I work at the Sadari Creative Drama Laboratory(SCDL) as a teaching artist. The Sadari Creative Drama Laboratory is an independent, non-profit organization which brings together art and education. We are also a group of professional artists and researchers at the forefront of changes being made in arts education. I was involved in the study of drama/theatre and education before joining SCDL, where I made drastic trials and established a social network, thanks to my colleagues who share the values of SCDL and believe in it.

Here, I would like to explain the work and challenges of a non-profit organization called the Sadari Creative Drama Laboratory(SCDL). I want to identify the meaning and potential of the work done by teaching artists who have voluntarily and independently taken part in arts education in a way unrelated to government-led, financial aid-based arts education.

### **The way it used to be!**

The SCDL was established in January 1998 with the support of the Sadari Theater Company. Five people with experience in drama set up SCDL, based on the advice of the then head of the Sadari Theater Company, Hong-young Yoo.

Since the late 1980s, the awareness has been growing that the approach taken by theatre education for children and the youth should be different from a traditional actor or performance-centered approach. As a result, new theories and methodologies of drama/theatre education called “educational drama and theatre” or “creative drama” were introduced. Each founding member of SCDL experienced “process-centered drama,” “play-based drama” and “drama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participants.” Even though those experiences were fragmentary and not holistic, they delved into the value of such dramas. I used to be a shy person, but I could transform myself into a positive person through dramatic experience. I wanted to help other people experience such magical dramatic experiences which is the world of imagination I create here and now, and live through. This has been an earnest desire among the members of SCDL who are working as educators of drama. We have gathered to connect theory and practice by making actions and verifying them on site, and developing and systemizing the right



methodology for Korea. When we established SCDL, we made ourselves a promise to live the life of an educator of drama and theatre. In other words, at the beginning, we were not a group of professionals, but a group of people who wanted to become professionals.

At that time, there was almost no support policy for social and cultural arts education. At that time, there was no private organization providing jobs in the drama education sector.

At that time, there were few cases where drama was used to educate infants, children and the youth.

At that time, we started without startup capital or an office.

### **Who are the good teaching artists?**

At first, I wanted to be a competent drama teacher. Rather than talking or writing about how drama and theatre can be good educational tools to improve imagination and creativity in children, we wanted to realize the educational value of drama by meeting children and youth face-to-face and letting them experience exciting and meaningful drama. That is why we continued to carry out theoretical studies and work in the field at the same time. We applied our knowledge in the field, learned teaching methods by ourselves, and looked for the basic techniques that teaching artists should develop in order to guide learners into the world of imagination, to help them realize their potential and support community work. In addition, when we found out that drama curriculum developed in other countries were not suitable for Korean children, we started to develop the right drama curriculum and lesson plan for our children.

We also came to realize that abilities to set an educational goal for each group of learners, and create and teach drama curriculum using drama were not all that we needed. These were minimum requirements for teaching artists. Unless we have the ability to create and continuously cultivat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n our own, it was impossible for us to meet the children. As we wanted to work independently as a small organization in a private and non-profit sector, we had to ensure sufficient and effective communication channels with parents, teachers, and administrators by listening to their diverse needs and discussing what we can compromise. We tried to take cautious steps in persuading them of the value of our programs since we were aware of the realities of educational conditions in Korea. We could not just cry out for the idealistic education. It was considerably frustrating, but at the same time, gave us an opportunity to again define what a teaching artist is. Currently, we ask and train our members to be competent

teachers who can establish the educational contents and to be professionals who can take charge of the overall process of artistic education, ranging from planning, PR, management, coordination, and administration to consulting.

As we have been busy accumulating expertise and experiences for a period of time, suddenly we found that we were exhausted, looking lifeless in classrooms. We seemed to fall into mannerisms. It was a moment when we realized that artistic experiences are applied to not only learners of our programs, but also to us, the teachers. Yes, we are also artists. Our team is working together to find ways to stimulate our desires for imagination and creation, to stay deeply interested in society and people, and become curious about things that people considered to be matters of course, and show our emotions and intelligence which had been set aside for the purpose of keeping objectivity.

Another important virtue of teaching artists is ethics. 1) Do not attempt to cheat. Communicate sincerely with people regardless of their age or stratum. Do not exaggerate your ability or knowledge. 2) Do not work for a political or social ideology you do not agree with. 3) Do not force learners to accept your political or ideological perspectives.

Are we good teaching artists who fully meet the above-mentioned requirements? No one would be able to say that they do. Still, we are satisfied so long as we understand what kind of teaching artists we want to become, because we will continue to make an effort and we have our colleagues who can compensate for our weak points.

### **For whom do we provide arts education?**

Whom can we teach drama? Who can be participated in drama? What does drama and theatre mean to them?

When drama was excluded from art subjects in public school in the 1990s, some people thought drama activity was for only children and youth in school. At beginning, we focused on 6 to 7-year old children,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While providing the educational programs designed for ordinary children, we became curious about how far the drama activity can expand in terms of age and what kind of group. We wanted to prove the value of drama and theatre to people beyond school age children and youth. We believed that there must be an appropriate methodology, and we wanted to find it.

On the other hand, we found some problems about accessibility to the arts. The children we met at that time were given opportunities to access drama and theatre, because their parents paid for the programs. Those children, of course, learned to express themselves through drama and enjoyed the pleasure of theatre arts, but they could meet



their needs for culture and arts at their home to some degree without the benefit of drama education. Then, what about other children who were prevented from experiencing culture and arts? Some children are socially and culturally alienated, and aren't these children the ones who desperately need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arts? We set off in search of those children, although we did not have any financial support and nobody asked for our help. First, we met mentally-challenged children. We visited a school once a week for six months in late 1998 to meet its mentally-challenged children and study the curricula of special education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We provided the education programs and analyzed our achievements. Later, we met a wider spectrum of people who were alienated from the culture and arts and had no access to them, such as visually handicapped children, autistic children, physically challenged youth, children from lower-income families, senior citizens, mothers of the handicapped, and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Whenever we met a new group of learners, we went through the following steps: 1) Participating observing 2) Conduct pedagogical research 3) Devise drama curriculum and contents tailored for the needs of the people and set their goals for them 4) Teach the drama to the people (sometimes the program includes performances, depending on needs, and sometimes parents join the programs) 5) Assess the achievements

Everyone has a desire to express themselves. People want to get along with others and feel happy while creating and discovering something. This is why I believe that all people, regardless of their physical ability, age, intelligence, nationality or economic status, can be involved in artistic activities including drama. If, however, teaching artists do not fully understand the needs of a certain group of people that were created by their specific social, economic or cultural status, guiding those people to artistic activities suitable for them will be impossible. Because we do not teach them unilaterally, but communicate, learn and move forward together.

### **What motivate people to continuously work?**

This question became a subject of our conversation, because we started this work even though we knew that this work would not make a lot of money. We know this work was worth doing, and we will be happy if we did it for the rest of our lives. Then how can we do that? What else besides money can motivate me to work sincerely?

#### **(1) I choose and make decisions!**

I think people become passive when they only have to follow the decisions of others without being given any freedom of choice. SCDL strives to offer wide choices to my

colleagues and respect their decisions. We do not force them to do something. We are free to choose whom they work for, what kind of work they do, when and how. We decide whether we will work a lot and earn a lot of money, or work a little and earn a little, and follow their needs, preferences and other matters when choosing to work.

The operating principle of the SCDL is “Everything is decided by everyone.” We do not have any subordinate-superior relationship, penalty or promotion structure. Under a structure of equality, everyone gathers for discussions and decisions. We prefer exchanging views and slowly reaching a consensus. Regarding some significant issues like the identity or the future paths of SCDL, we do not make a decision within a short-period of time, but have repeated discussions over a few months, or even a year and more. Many people outside our team have pointed out that such a management style is considerably inefficient. We, however, do not want to rush, because we believe that showing one’s desire and finding a point on which such desire can be included is more important than asking an individual to make sacrifices for the team. Seniors or a head of the laboratory do not have more rights to speak or make decisions. People at the team rotate their positions, from the head of the laboratory, the head of the planning department to the administrative positions. Those with positions are not meant to be superiors but servants to others. In fact, those with positions provide more service for the team with very little compensation, because all of us are the owners of SCDL and we share responsibilities and rights together. In this sense, it is not strange at all that a member who used to work as the head of the laboratory last year becomes a member of the planning department this year.

What if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among individuals and groups? What if I have to work even though I do not want to? Of course, such cases happen, but there is not one-way pressure. We just try to find to talk it out until we have a minimum of consent, even though it may be an uneconomical direction and a way that reduces the benefits for the team. I, however, strongly believe that working for oneself first will be ultimately beneficial for SCDL as a whole.

## **(2) Ways of distribution**

I think the way revenue is split, rather than the amount of money, is more problematic. We open, discuss about and distribute revenue together. There are two principles when it comes to splitting the revenue: the first is that “people who work more take more revenue” and the second, “the pay is not commensurate with rank and seniority.” The major source of income comes from drama classes. A teacher takes his or her share, and contributes 25% of the payment to SCDL so that it can stay in operation.

In this way, SCDL does not collect all income and distribute revenue. The income of members who work a lot is higher, but the contribution for operating expenses is also higher.

People outside the team think that it is strange not to consider abilities, experiences or seniority when distributing the revenue. If a newcomer and a teacher with 10 years of experience did the same job for the same amount of hours, their incomes would be same. This policy started from asking ourselves how we can assess the abilities of teaching artists. It is true that a teacher with an academic background and abundant experiences in drama teaching has a greater potential to develop good programs and teach students well, but these kinds of teachers often fail as well. On the other hand, a new teacher can inspire people and promote warm-hearted communication with his or her liveliness and energy. Besides drama class senior teaching artists can be program directors and the team heads of the administration, planning, research projects and small study groups. The equal payment system is also a form of investment in the energetic teaching artist candidates who need to build themselves up into professionals. The cost of their survival is paid so that they would not give up before becoming a good teaching artist and contributing to SCDL in the future.

There are some problems. Getting paid based on the amount of work means the teaching artists cannot get any protection from the SCDL when facing personal difficulties. What can we do if we cannot work because of disease, caring for children, ageing or family problems, even if that person still needs to support his family? This is a universal problem for artistic organizations whose employees are not protected by the four basic insurances, which are the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surance. For the present, the financial condition of SCDL is not sufficient to provide such protection, but we started discussing this issue in 2009. We decided to allocate a small amount of money in the operating expenses to pay for the welfare of our teaching artists, but it is difficult to contradict that it is a difficult issue for a non-profit organization to solve by itself.

### **(3) I am growing!**

What if a workplace is a school and at the same time, a playground? The feeling that your source of energy is constantly being consumed by work will quickly make one exhausted. On the other hand, people who get continuous feedback from others and feel that their work is teaching them something will devote themselves to their work, no matter how hard it is. When faced with failure, they will start to study rather than get discouraged.

When developing new educational programs, the team in charge conducts a trial class in front of colleagues to get feedback on their programs. In addition, after the programs are done, the goal setting, education programs, and teaching methods are thoroughly assessed. There will not be any penalties or benefits such as a promotion or an increase in income. The time for receiving useful feedback from colleagues is recognized as a process that makes one a better teaching artist. People at the team understand that it is an opportunity for seniors to get rid of complacent attitudes and for new teaching artists to be encouraged and motivated.

We do not work on Mondays. Every Monday, we gather in small or big study groups, have special events and food, and share stories. Teachers in study groups choose a topic after discussing what they want to study. Depending on the topic, study groups focus on theoretical studies, hold a workshop, or go outside the laboratory. To date, teachers have studied some theories and practical skills they need to have to be good teachers, but they also studied other things that they are interested in, such as qualitative research, playwriting, traditional games, consulting with parents, creative movements and yoga. Getting official financial support from SCDL, they sometimes go outside the laboratory to get trained about things they are personally interested in, such as art, ecology, literature, music and psychotherapy. After training, they come back to their study groups and teach the others.

SCDL has a research support system called “What a Surprise!” which is an annual research contest. Research proposals handed in by participating researchers will be screened, and two or three proposals will be selected. These researchers will receive research funds for one year of research, and after one year, they will present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 works. The mode of presentation can be a performance, paper or video clips. “What a Surprise!” does not place any limitation or requirement on the research objectives and methods, and this leads to a surprising variety of interesting results. For example, one researcher who majored in Spanish culture and language translated and introduced a book on Spanish traditional play, and another researcher created and showed a drama for 1 or 2 year-old children. Other examples were “Korean language education using drama,” “the influence of drama activity on brainwaves” and “using qualitative research to study on applied drama at the Korean palaces.” The results of research are utilized as major educational content at SCDL.

Our lives are busy whether we give a number of lessons at SCDL or not, but we know that if we are too busy thinking about or doing our tasks today and tomorrow, the pleasure of working will not last longer. From the perspective of SCDL, studying something that does not help to make immediate profit and encouraging such studies is a long-term investment,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eaching artists, it becomes a basis

for enjoying creation and taking pride in being a teaching artist.

### **Why do we provide arts education?**

What does arts education mean in Korea, and what are the ultimate objectives of SCDL? We did not start out with ambitious goals. We simply hoped to become good teaching artists and had a rather ambiguous conviction that arts education is socially meaningful and valuable. Back then, we had not specifically figured out what kind of influence the drama can have on society, or what kind of influence we wanted to and should bring to it. Eventually, as we succeeded in surviving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for arts education, we started to ponder about such fundamental questions within ourselves and still in progress.

The major educational programs of SCDL are “Sadari Drama School” and “Drama Program for winter/summer.” These are revenue-making programs that can be sustained without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or requests for outside classes. The Sadari Drama School provides various age groups from 2 year-old children to youth with drama and theatre education for one year. Considering the developmental stages of children, we set a specific goal and apply teaching methods tailored to each specific age group. So we offer comprehensive art education with drama at its center.

A few years ago, a magazine targeting mothers and wives in the high-income group ran an article about the drama program of the SCDL, saying that it was art education that should not be missed out on for their children. We did not intend to advertise our program. Those mothers and wives considered SCDL as a luxurious private school for the arts. In 2000, a new trend of creativity was emerging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many parents of the middle income group who sent their children to private institutes for supplementary studies in mathematics, science and English and did everything to make their children students of renowned universities started to turn their eyes to the arts. Those parents did not move their interest from academic subjects to art education, but just added art as another subject that their children should learn to go to a good university. Parents who were not satisfied with the traditional private institutes for music or art located in their neighborhood started to look for new arts education programs that could guarantee high-quality education for a limited number of children. Of course, not all parents who send their children to Drama School or Drama program for winter/summer are like this. Many parents bring their children to us because of their strong confidence in our belief and conviction. We, however, have to actively present our perspective about education to prove that we did not start out for distorted purposes. After in-depth discussions, we concluded that we would not be able to get that effect

from arts education that we aimed at without communicating with parents. So we started to look for ways to communicate and took action. A long program, Drama School, particularly needed the deeper involvement of parents. We provided special lectures, personal consultations, letters, briefings after drama class and book discussions to parents to relieve their anxiety ; 'What if my child is left behind in such a competitive school and society'. We talked about new education that wa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curricula which was focused on the university entrance exams and which was about the possibility of a lifestyle where people could live in harmony, not in fierce competition. I believe that if parents change their views about education, we will be able to enhanc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of lives.

What else can we do to fulfill our dream of bringing changes to the society using arts education? The SCDL runs three affiliated organizations. These are "Sadari Drama School" for children and teenagers, "Drama Specialist Academy" and a publisher "Drama, Play, and Education." Drama Specialist Academy is an educational institute for nurturing teaching artists who are teaching drama. It includes a short introductory course and a one year advanced-level course. Artists and teachers of a variety of career backgrounds, such as artists, teachers in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kindergarten teachers, social workers, planners, theatrical people and story-tellers, come to the academy to get training on the education programs and teaching methods of SCDL. The publisher Drama, Play, and Education issues a journal to introduce research and work on drama/theatre education in Korea and share updated information, and plans to publish books related to drama education. The academy and the publisher run their businesses without financial aid from the government, but they are not businesses that are run for profit. We, of course, receive tuition fees at the academy and raise some profit by selling published books, but come considerably short of the amount invested. SCDL, however, continues its efforts in these areas, putting up with losses, because we believe that it is our duty, as a front-runner of arts education, to further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and of devotional teaching artists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In this context, SCDL held a symposium under the theme of "How to Survive as a Teaching Artist for Drama in Korea -- History and Strategies" in 2008.

Our initial drama education targeting socially vulnerable people reaped significant educational benefits. Physically or mentally challenged children could learn to express themselves and develop social skills, and children from lower-income families could strengthen their self-respect. People outside the SCDL praised these works, thinking that we were doing on a voluntary basis. Such responses, however, made us feel uncomfortable, because if we depend on personal good will, it makes our argument



meaningless that access to culture and arts education should be ensured for socially vulnerable people and that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for them should start from having an understanding of and researching their distinct characteristics. We felt helpless and guilty as we could not promise them long-term education. This was the time when we recognized the desperate need for the culture and arts education to go public. Fortunately, culture and arts in education emerged as an important topic after 2000 when discussing public policy and many public organizations started to provide lifelong culture and arts in education programs for the socially vulnerable. We could offer drama education programs to physically or mentally-challenged children and youth and their parents, senior citizens,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children from lower-income families. Furthermore, we could try experimental works out on a broader spectrum of learners. For examples, we had projects such as “TIE(Theater in Education) Program : Peace Education for Infants” which takes place in trains, “Site Specific Drama projects : Visiting the Four Main Gates and Palaces of Old Seoul” “Creative Drama at Playground” and “Multicultural Festival for Immigrants and Residents.” We cooperate with public organizations on some projects that get support funds, but often encounter conflict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is that the public policy for culture and art is not only unpredictable, but also unsustainable and unstable. If a new government is established or our liason changes, the previous educational projects are stopped regardless of their achievements, and completely different policies will be introduced. In addition, there are many short-term educational projects which last less than one year, but artists are asked to produce tangible results. We feel overburdened with worry when educational administrators try to apply a uniform standard and control the overall direction and process of education for the sake of administrative convenience without understanding professionalism or special characteristics of arts education.

Arts education which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quality of lives of all people, regardless of their ages, classes or abilities, and making a healthy society is essential for the public. Public organizations related to arts education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for everybody that provide many people with opportunities to experience culture and art. Non-profit organizations like SC DL devote themselves to research and work with strong conviction. A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is not subordinate to anyone, we are free to experiment and take up unique challenges, opening up new prospects in the field of arts education and developing new contents. Good quality arts education will be possible when the power of execution and the content of non-profit organizations are combined with the public. I think the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should respect each other whe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on arts in education, and that when this



happens, non-profit organizations will be able to contribute further to creating healthy and creative programs for arts education.

**We shoulder a heavy burden, but still have passionate hearts!**

This year marks the 13th anniversary of the Sadari Creative Drama Laboratory. SCDL started out with five teaching artists but now there are twenty. The turnover rate of employees is very low. Once they join, they devote themselves to works despite the low income. I think this proves that the most important motivators for people are not power and money. 90% of parents and teachers who visit SCDL come to us after getting wind of good information about our programs by word of mouth. This reveals that they have felt and understood our sincere dedication to education and people. The heavy burden placed on our shoulders, however, only feels heavier as time goes by. Members of SCDL get older and have more family dependents. Losses at the publisher are getting higher, and some coordinated works with other organizations often hurt our pride.

A few years ago, we had an all-night meeting, discussing the future path of SCDL. One of the main items on the agenda was whether to increase the external scale of SCDL. We dreamed about buying a building to create theaters, educational spaces and libraries where more people can visit and have various artistic experiences. The art center we dreamed about looked fantastic, but in reality, members had to contribute more funds, work more, expand revenue-making projects and take on a significant amount of debt. In addition, we came to question for whom we wanted to expand the scale of the SCDL. It may be meaningful for the society and become history, but it surely will require an enormous sacrifice from the members. What is the point of making splendid facilities if the members working there are not happy? In this sense, we gave up on expanding the scale of SCDL. Instead, we are trying new things to open a new path for the future. One of our trial ventures is to provide an open venu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one, in which people can come and discuss about arts and create something themselves. We also opened a "Drama Club for Youth" which used to be under the Drama School, and "SARANGBANG" which graduates of the academy meet regularly and communicate their drama work. Another trial venture is "Ecodrama." This program takes place in the forest, and aims to explore how people and the nature can coexist and spread the value of ecologically sound lives. Discussions on the future paths of SCDL are still ongoing. What is certain is that the members of SCDL have passionate enthusiasm, regardless of their age, and that arts education will lose its meaning without the ensured happiness of members of SCDL.

SISAC

SISAC

**MEMO**

SISAC

□ MEMO

SISAC

□ MEMO

SISAC

□ MEMO

SISAC



□ MEMO

SISAC

SISAC

## 2011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

SISAC 2011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Arts in education and Creativity

발행인	안호상
기획	서울문화재단 창의예술센터 예술교육팀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a href="http://www.sfac.or.kr">www.sfac.or.kr</a>
전화	02) 758-2010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